

JOURNAL OF CENTRAL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Vol. 48

2025. 10

CONTENTS

Cultural Continuity and Regional Polity in the Mangyeong River Basin during the Proto-Three Kingdoms Period

: Based on Recent Settlement Excavation Data Kim, Eun-Jung

Fishing Culture in the Goseong Region during the Samhan and Three Kingdoms Periods

- Focusing on the Dongoe-dong Site in Goseong - Lee, Su-Yeon

The Study on Iron-plate Ritual Utensil with Bird Decorations in Haman region

Bae, Hyo-Won

Structure and Operation of Earthenware Kilns in the Late Silla–Early Goryeo Period

Yoon, Yeo-Heon · Tae, Young-Rim

Archaeological Perceptions and Spatial Hybridity of Dalseong Earthen Fortress in Daegu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Kim, Hai-Gyoung · Kim, Sun

中央考古研究

第48號

2025.10

中央文化遺產研究院

中央考古研究

第48號 | 2025. 10

연구논문

만경강 유역 원삼국시대 문화 연속성과 지역 정치체 | 김은정

삼한 · 삼국시대 고성지역의 어로문화 | 이수연

咸安地域 鳥形裝 鐵板儀器 研究 | 배효원

나말여초 토기가마의 구조와 운영에 관한 연구 | 윤여현 · 태영림

일제강점기 대구 달성토성의 고고학적 인식과 공간적 혼종성 | 김해경 · 김선



中央考古研究

第 48 號 | 2025. 10

연구논문

만경강 유역 원삼국시대 문화 연속성과 지역 정치체 | 김은정

삼한·삼국시대 고성지역의 어로문화 | 이수연

咸安地域 鳥形裝 鐵板儀器 研究 | 배효원

나말여초 토기가마의 구조와 운영에 관한 연구 | 윤여현·태영림

일제강점기 대구 달성토성의 고고학적 인식과 공간적 혼종성 | 김해경·김선



중앙고고연구 편집위원회

위원장 성정용(충북대학교)

위 원 권오영(서울대학교)

김범철(충북대학교)

성형미(동양대학교)

이영철(대한문화재연구원)

조윤재(고려대학교)

최태선(중앙승가대학교)

高田貫太(일본국립역사민속박물관)

간 사 오준혁(중앙문화유산연구원)

정수진(중앙문화유산연구원)

中央考古研究 - 第 48 號 -

인쇄일 2025년 10월 25일

발행일 2025년 10월 31일

발 행 중앙문화유산연구원

인쇄처 현대옵셋인쇄사

주 소 본원 1352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78(삼평동) 서건타워 904호

tel. 031-708-8001 fax. 031-708-8010

분원 34029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 7로 32-9(용산동)

tel. 042-933-2700 fax. 042-933-7300

홈페이지 www.jungang.re.kr



만경강 유역 원삼국시대 문화 연속성과 지역 정치체

: 최근 발굴 자료를 중심으로

Cultural Continuity and Regional Polity
in the Mangyeong River Basin during
the Proto-Three Kingdoms Period

: Based on Recent Settlement Excavation Data

김은정
대한문화재연구원 연구교수

- I. 서론
- II. 분석틀과 방법론
- III. 문화적 연속성의 재발견
- IV. 지역 공동체의 물질문화
- V. 결론

국문 요약

만경강 유역은 원삼국시대 한반도 서남부 지역의 사회문화적 변동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지역이다. 본 연구는 최근 10여 년간 축적된 대규모 발굴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 두 가지 가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① 기원 전후~기원후 2세기 '문화적 공백기'는 실재하지 않았다. ② 만경강 상류에는 독자적 지역 정치체가 존재했다.

그 결과 첫째, 삼각형점토대토기와 경질무문토기의 출토 증가 및 점토부뚜막의 이른 등장을 통해 만경강 유역의 문화적 연속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직구장경평저호의 집중적 분포와 대형 심발의 지역적 특수성 분석을 토대로, 만경강 상류에 독자적 문화 정체성을 가진 지역 정치체가 존재했음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기존의 문화 단절론에서 문화 연속성론으로의 관점 전환을 제시하며, 물질문화의 정량적 분석을 통한 지역 정치체 복원 방법론을 제안한다.

주제어 : 원삼국시대, 문화적 공백기, 지역 정치체, 취락, 경질무문토기, 만경강 유역

I. 서론

1. 연구 배경과 문제의식

만경강 유역 원삼국시대는 마한 사회의 융성과 더불어, 지역 문화의 독자성과 보편성이 동시에 나타나는 복합적 양상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기의 사회·문화상 복원을 위한 체계적 연구는 아직 충분히 축적되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기원 전후부터 2세기대까지 이른바 ‘문화적 공백기’는 발굴 자료의 단편성과 해석상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여전히 논쟁적 과제로 남아 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시기의 한계에 그치지 않고, 지역 고고학 전체의 시대적 연속성 규명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2. 연구 목적과 가설

최근 10여 년간 만경강 유역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구제발굴을 통해 방대한 신규 자료가 축적되었다. 본 연구는 이들 자료의 종합적 분석을 통해, 만경강 유역 원삼국시대의 문화 양상을 실증적으로 복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두 가지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기원 전후~2세기 ‘문화적 공백기’는 실제 문화적 단절이 아니라 고고학적 가시성의 문제였다. 둘째, 만경강 상류 지역에는 독자적인 문화 정체성을 갖춘 지역 정치체가 존재했으며, 이는 물질문화의 분포 양상에 근거해 복원이 가능하다.

3. 연구 방법과 자료

본 연구는 주요 취락 자료를 대상으로 물질문화의 시공간적 분포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대상은 최근 발굴된 전주 동산동 유적, 전주 여의동2가 유적 등 중·대형 취락 유적과 그 출토 유물이다.

토기 분석에서는 기존 분류와 명칭 사용이 지닌 연구사적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합리적인 용어 체계를 정립하여 자료 해석의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기형, 기벽 두께, 태토 조성, 소성도 등의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기존 용어 사용의 타당성을 재평가하고, 그 개념적 적합성을 새롭게 재정의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론적 틀을 적용하여 최근 조사된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만경강 유역 토기 문화의 지역적 특성과 시간적 변화를 규명하고자 한다.

Ⅱ. 분석틀과 방법론

1. 토기 분류체계와 용어 재정의

한국 고고학에서 ‘무문토기’, ‘삼각형점토대토기’, ‘경질무문토기’는 각기 상이한 연구사적 맥락에서 정의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무문토기는 청동기시대, 삼각형점토대토기는 초기철기시대, 경질무문토기는 원삼국시대를 대표하는 토기군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 구분에 기초한 분절적 접근은 세 토기 유형 사이의 계통적 관계와 기술적 연속성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존 연구에서는 세 토기군을 별도의 문화적 기원을 가진 독립적 유형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했다. 예컨대, 삼각형점토대토기는 원형점토대토기에서 형식 변화를 거쳐 발생하거나(이재현 2003; 박진일 2013), 외래 계통의 영향으로 나타난 것으로(박순발 1993, 2004, 2009) 해석되었다. 경질무문토기는 무문토기 전통에서 발전한 과도기적 토기로 이해되어왔다(김양욱 1976; 최병현 1998: 105~145; 최성락 1988:1~17).

최근 노혁진(2015), 오용제 외(2024: 245~270)의 연구는 이러한 기존 관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세 토기 유형이 서로 다른 문화 전통이 아닌 하나의 기술적 연속체 내에서 시간적 변이와 지역적 변동을 반영한 것임을 논증하였다. 이들은 태토의 조성과 처리, 성형 기법, 표면 처리 등에서 세 유형이 근본적인 공통점을 갖는다는 점을 세밀한 기술사 분석으로 밝혔다. 형태적 차이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술 발달과 각 지역의 선호도 차이에 의해 설명될 수 있으며, 문화적 단절이 아닌 연속적 변화의 흐름에서 이해하는 접근이 더욱 합리적임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각 용어를 다음과 같이 재정의하고자 한다.

무문토기는 청동기시대부터 원삼국시대 초기까지 지속된 한반도 재지 토기 제작 전통의 유형으로, 표면 무문양·점토띠 쌓기 기법·산화염 소성을 통한 갈색 또는 적갈색조·800~900℃의 비교적 낮은 소성온도(김준규·홍승연 2021: 176~182; Rice

1987; Shimada 1994)를 주요 속성으로 한다. 시기별로 태토의 조성이나 형태·크기에는 변화가 존재하나, 전반적인 제작 기술 체계는 일관적으로 유지된다.

삼각형점토대토기는 무문토기 전통 내에서 구연부 점토대 단면이 삼각형으로 변형된 특수 형태로, 원형점토대토기에서 변형된 형식으로 해석된다(박진일 2013). 이 유형은 구연부의 구조적 보강과 장식 효과를 동시에 추구한 기술적 개선으로 볼 수 있으며, 제작 방식 또한 무문토기와 동일한 전통을 따른다. 따라서 삼각형점토대토기는 별도의 문화적 전통이 아니라, 기존 무문토기 내에서 나타난 지역적·시기적 특수화 양상으로 인식된다.

경질무문토기는 만경강 유역에서 무문토기 제작 전통의 최말기 단계에 등장한 과도기적 토기군으로 재정의된다. 이 유형은 기술적 혼재성을 특징으로 하며, 점토띠 쌓기 및 종방향 기면 정면 기법이 지속되는 가운데, 타날문토기 제작 기법(특히 일부 개체에서 미약하게 나타나는 타날 흔적과 기벽의 점진적 얇아짐)이 부분적으로 확인된다. 전체적인 기형은 기존 무문토기의 틀을 유지하나, 바닥부는 두꺼운 평저를 유지해 타날문토기와 구별된다. 시기적으로는 기원 전후에서 2세기 말·3세기 초반까지 제작·사용되며, 3세기 전·중반 이후에 타날문토기로 대체된다. 이러한 변화는 만경강 유역 토기 제작 전통이 외래 기술을 점진적으로 수용하면서도 독자적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했던 과도기적 산물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이 각 토기 개념을 재정의하되, 연구사적 소통을 위해 기존 용어는 그대로 사용한다. 다만 토기 유형의 분류와 해석에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새로운 기준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고자 한다. 한편 만경강 유역의 삼각형점토대토기와 경질무문토기의 시간적 선후 또는 동시성에 관해서는 자료상의 한계가 존재하므로, 본 연구는 선후관계에 대한 판단 대신 각 토기 유형이 시기별로 나타내는 양상과 의미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유적 자료 분석에서는 제작 기법, 소성 조건, 형태적 특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분류의 정확성을 높이고, 필요할 경우 기존 분류 방식과의 차이점도 명확히 언급할 것이다.

2. 지역 정치체 분석 기준

본 연구에서 ‘지역 정치체’란 일정한 공간 범위 내에서 독립적인 의사결정 구조와 위계적 사회조직을 갖춘 고대 공동체 단위로 정의한다(Renfrew 1986). 이는 단순한

취락군의 집합이 아니라, 중심 취락을 정점으로 주변 취락들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통합된 실체를 의미한다.

만경강 유역에 독자적 지역 정치체가 존재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물질문화 분포 분석을 핵심 방법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지역 정치체의 존재와 그 영역을 파악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방법이다(Earle 1987: 279~308).

첫째, 직구장경평저호와 같이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특수 토기류의 양상을 분석하여 해당 지역 공동체의 독자적 정체성을 확인한다. 이들 토기류의 분포 범위는 지역 정치체의 영역을 추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둘째, 대형 심발 등 일상 토기에서 확인되는 지역적 특수성(크기, 제작 기법, 분포 양상 등)을 검토함으로써, 생산 및 유통 체계의 독립성을 설정한다. 셋째, 희소성이 높은 토기류의 사회적 기능과 분포 양상 분석을 통해 정치체 내부의 계층 분화와 권력 구조를 파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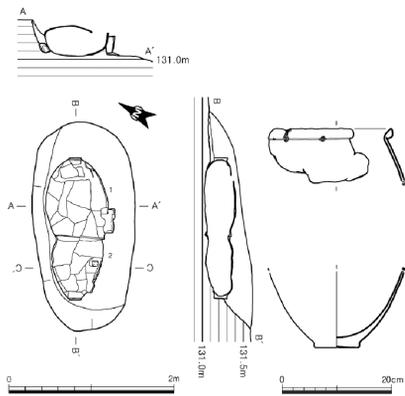
Ⅲ. 문화적 연속성의 재발견

1. 삼각형점토대토기와 경질무문토기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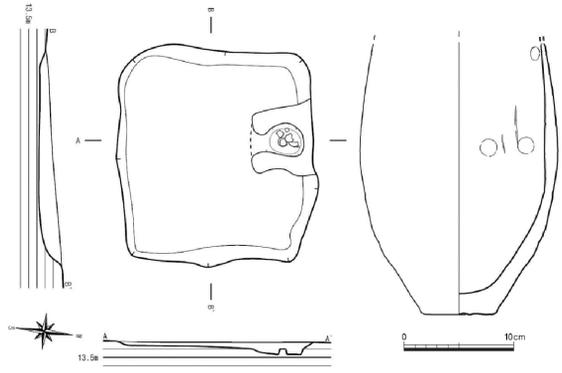
전북지역은 선사시대 이후 초기철기부터 삼국시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정치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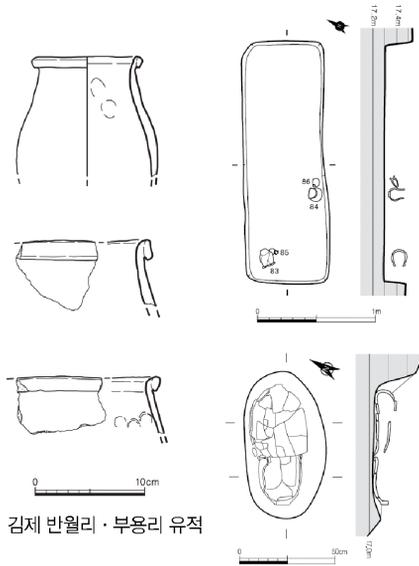
[그림 1] 전주 여의동2가 유적 출토 삼각형점토대토기와 경질무문토기
(1, 263호 주거지 2, 308호 주거지 3, 115호 주거지 4, 163호 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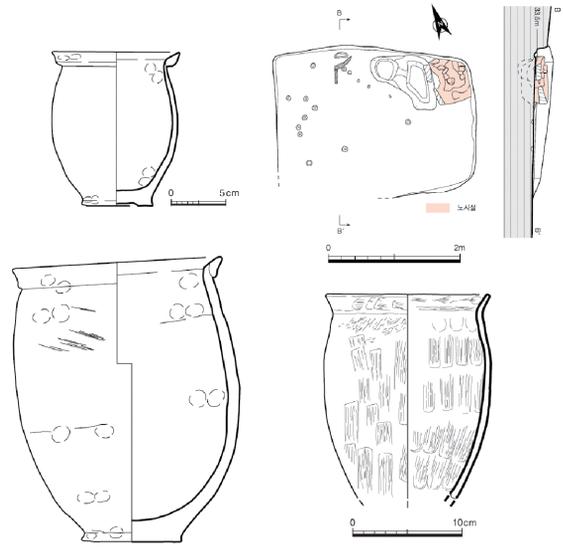
군산 건장산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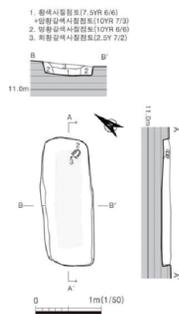
군산 지곡동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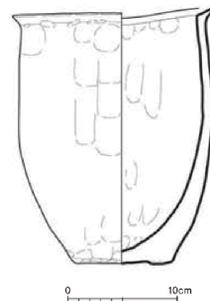
김제 반월리·부용리 유적



원주 둔산리 청등 유적



부안 공월리 유적



[그림 2] 전북 서부지역 삼각형점토대토기·경질무문토기 출토 현황

용성과 쇠퇴를 반복한 지역이다. 특히 원삼국시대의 만경강 유역은 마한 정치체의 주 활동 영역이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는 기원 전후경부터 기원후 2세기대에 해당하는 유적이 거의 확인되지 않으며, 타날기술로 제작된 토기가 출토되는 유적 역시 대부분 3세기 이후로 분류되어 시기별 유적 수에 현저한 비대칭이 나타난다. 이에 대해 학계에서는 인구 감소로 인한 문화적 공백이 존재했다는 견해(김승옥 2004: 56~86)와, 지역적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편년 기준에 따른 착시현상이라는 견해(김장석·박지영 2020: 4~30)가 각각 제기되어 왔다.

최근에는 전주 여의동2가 유적(대한문화재연구원 외 2024)과 동일 층적지 상에 위치한 일대 유적(전주 동산동, 동산동 쪽구름, 동산동 청동기시대 취락 유적)에서 삼각형점토대토기와 경질무문토기가 다수 출토되고 있다(그림 1).

특히 전주 여의동2가 유적에서는 115호, 163호, 263호, 308호 주거지 등에서 삼각형점토대토기와 경질무문토기가 공반 출토되어, 두 토기 유형 간의 시간적 연속성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전북 서부지역의 군산, 김제, 부안, 완주 등지에서도 삼각형점토대토기와 경질무문토기 출토 사례가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군산 건장산 유적 1c9호 옹관묘(삼각형점토대토기), 군산 지곡동 유적 22호 주거지(경질무문토기), 김제 반월리·부용리 유적 5구역 1호 수혈(삼각형점토대토기), 김제 서정동Ⅱ 유적 5호 토광묘·2호 옹관묘(삼각형점토대토기), 부안 궁월리 유적 8트렌치 토광묘(경질무문토기), 부안 원천리 유적 4호 수혈(삼각형점토대토기), 완주 둔산리 청동 유적 10호 주거지(경질무문토기) 등이 그에 해당한다(그림 2).

이들 유적 자료는 전북지역에서 ‘문화적 공백기’로 간주되어 온 시기의 실체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2. 취사시설 발달의 연속성

원삼국시대에 주거 내 취사시설로 등장한 부뚜막은 조리된 음식의 섭취를 가능하게 한 혁신적인 시설이었다. 만경강 유역을 비롯한 동시기 여러 주거지에서 확인되는 여러 물질 자료-예를 들어 부뚜막과 연도(구들), 그리고 그 주변에 산재한 토기 및 식물 유체-는 부뚜막을 이용한 불 조리가 이루어졌음을 명확하게 보여준다(김은정 2022: 5~40).

중부지방 마한의 방형계 주거지에서는 점토로 만든 ‘|’자형 외출 구들(시흥 목감

동 유적 2호 주거지)이 2세기 중후반에 설치되었으며(송만영 2018: 5~47), 호남 서부지역에서는 직선형 부뚜막 ‘I’식 노지(나주 신도리 신평 유적 16호)가 3세기를 전후해 등장한다(이영철 2015).

특히 호남 서해안의 고창·부안 일대에서는 사주공식 방형계 주거지 내에 점토부뚜막과 단수 또는 복수의 솔받침이 결합된 취사시설이 3세기부터 설치되기 시작한다(오승환 2018). 또한 전북 만경강 및 동진강 유역의 취락 자료(부안 백산성 유적 7호 주거지, 전주 동산동 유적 128호 주거지)에서도 2세기 중반경부터 점토 부뚜막이 사용된 사례가 확인된다(김은정 2017b).

솔받침은 부뚜막의 연소부에 설치되는 구조물로, 조리 시 부뚜막에 걸린 솔의 바닥을 받치는 역할을 한다. 호남지역에서는 솔받침이 확인된 주거지가 수천여 곳에 달하며(김은정 2017a: 1~42), 이들은 석재 또는 토제로 제작되어 하나 혹은 복수의 석재+석재, 석재+토제, 토제+토제 조합을 보인다.

최근 전주 여의동2가 유적(132호, 168호)에서 주목할 만한 발견이 이루어졌다(그림 3). 이곳에서 전주 동산동 128호 주거지 부뚜막의 솔받침과 유사한 형태의 경질무문토기 계열 솔받침이 다수 확인되었고, 이들 솔받침은 바닥과 기벽이 두껍고, 타날 흔적보다는 종방향 기면조정 흔적이 관찰된다. 이는 경질무문토기와 동일한 제작 기법을 보여주는 것으로, 점토부뚜막 사용 시점에 대한 기존의 인식에 중요한 재고를 요구한다. 즉, 점토부뚜막은 기존의 ‘타날문토기 단계(3세기)’라는 견해보다 이른, 무문토기 제작 전통의 최말기인 경질무문토기 제작 시기부터 이미 사용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그림 3] 경질무문토기와 타날문토기를 사용한 솔받침

- (1. 전주 동산동 유적 128호 2. 전주 여의동2가 유적 132호 경질무문토기 3. 전주 여의동2가 유적 168호 4. 전주 여의동2가 유적 89호 격자타날문토기)

3. 문화적 공백기 가설의 재검토

상기 분석 결과는 기원 전후~기원후 2세기 ‘문화적 공백기’가 실제로는 문화적 단절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삼각형점토대토기와 경질무문토기의 출토 증가, 취사시설의 점진적 발전, 그리고 기술 연속성의 과학적 입증(오용제 외 연구 결과 참고) 등은 모두 이 시기가 문화적 혁신과 발전의 시기였음을 보여준다.

이 시기는 무문토기 제작 전통에서 타날문토기 제작 전통으로 이행되는 문화적 전환기이자, 취사 기술의 발전 등 여러 사회적 변화가 이루어진 시기로 평가된다. 따라서 ‘문화적 공백기’라는 명칭은 실제 문화 단절을 의미한다기보다, 고고학적 가시성이나 기존 편년 체계의 한계에서 비롯된 오류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발견의 의의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만경강 일대에서 무문토기 제작 전통의 최말기(경질무문토기 단계)에 이미 점토부뚜막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경질무문토기와 함께 타날문토기가 공반 출토되는 양상은, 타날문토기 도입 시점이 기존 인식(3세기대)보다 소급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이번 연구는 삼각형점토대토기 문화, 경질무문토기, 타날문토기 등 여러 제작 전통이 만경강 유역을 중심으로 전북 서부 전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하였을 개연성을 뒷받침한다. 또한 만경강 일대 취사 기술의 발전 역시 기존 편년보다 더 이른 단계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중요한 고고학적 성과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화적 연속성과 기술적 발전은 단순한 기술 전승을 넘어, 독자적인 문화 정체성을 지닌 지역 공동체의 실재를 시사한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지역 공동체의 실체를 물질문화의 공간적 분포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IV. 지역 공동체의 물질문화

앞 장에서 확인한 문화적 연속성을 바탕으로, 본 장에서는 만경강 유역에 독자적인 지역 정치체가 존재했는지 여부를 물질문화의 공간적 분포 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고창 왕촌리 유적 7호 토광묘, 고창 예지리 유적 11호 토광묘 등지에서도 유사한 평저호가 확인되지만, 이들은 바닥 직경이 6cm 내외로 만경강 유역 출토품(13~22cm)과 크기 면에서 큰 차이를 보여 같은 기종으로 보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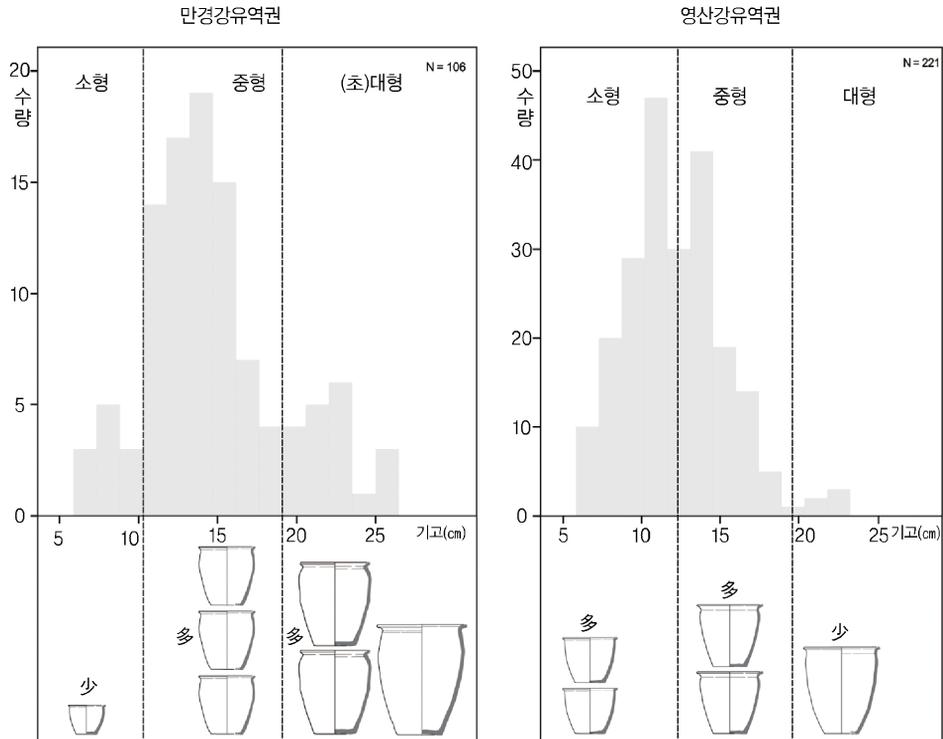
형태 분석 결과, 직구장경평저호는 경부가 동체보다 길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동체와 경부 길이 비는 1:0.5~0.7에서 1:1.25~1.5 범위로 다양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특징은 초기철기 흑색마연토기 계통과의 연관 가능성(서현주 2021: 800~819)도 제기된다. 동체는 중하위가 볼록한 반구형에 평평한 바닥을 가지고, 일부 견부에는 원형 돌기가 부착되어 있다. 문양은 거의 없으나, 일부에서는 격자 타날 흔적이 미약하게 확인된다. 대부분 연질 소성이지만, 경질 소성품도 일부 존재한다.

분포 양상은 만경강 상류의 완주·전주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출토 수량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이 토기가 단순 취사·식기가 아니라 높은 상징적·사회적 가치를 지닌 희소품이었음을 시사한다. 만경강 상류 이외 지역(임실 상신리B·갈마리 해평 유적, 익산 구령리IV 유적, 군산 미룡동 고분군)에서도 소수 개체가 발견되지만, 이는 만경강 상류 정치체가 인접 정치체와의 교류·동맹·위신제 분배 등의 관계 구축 과정에서 활용된 예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일부 예외 출토를 제외하면, 직구장경평저호는 만경강 상류의 전주·완주 정치체 내에서만 공유·통제된 특수 물품으로, 그 분포 범위는 정치체(또는 지역 공동체)의 영역 추정에도 활용될 수 있다.

직구장경평저호의 정확한 기능은 단정하기 어렵지만, 액체류 제례용기 또는 매장 의례 후 공헌 대상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김은정 2017b; 서현주 2016). 이 유물의 또 다른 주요 특징은 바로 그 희소성에 있다. 금동관, 금동신발 등 삼국시대 중앙권력에 의한 하사품과 달리, 생산 자체가 의도적으로 제한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정치체 내 특정 계층만이 이를 소유했음을 시사한다. 이는 곧 이 지역 공동체의 독자적 정체성과 위계적 사회 구조를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2. 대형 심발의 지역적 특수성

지역 정치체의 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하는 또 다른 주요 물질자료로는 대형 심발의 지역적 분포 양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심발은 원삼국~삼국시대 유적에서 폭넓게 출토되는 대표적 토기 기종이지만, 호남지역에서는 그간 형태와 문양 등에서 두드러진 지역적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어왔다.



[그림 5] 심발의 기고 분포(김은정 2024b 재인용)

그러나 최근 만경강 유역 출토 심발의 정량적 분석 결과(김은정 2018: 144~146, 2024b: 37~69)에 따르면 중요한 지역적 차별성이 새롭게 확인되었다. 호남지역 심발은 일반적으로 소형, 중형, 대형으로 유형화되는데, 특히 만경강 상류의 전주·완주 지역에서는 대형 심발이 월등히 높은 비율로 출토되며, 기고 25cm 이상의 초대형급 심발이 다수 확인된다는 특징이 있다. 반면, 영산강 유역에서는 소형·중형 심발이 대부분이고, 대형 심발은 매우 드물게 출토되어 만경강 유역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그림 5).

이 같은 지역별 심발 크기의 차이는 토기 생산 및 유통 체계가 각 세부 지역권별로 독자적으로 운영되었음을 시사한다(김은정 2018: 144~146; 이지영 2021). 특히 초대형 심발이 일부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현상은 해당 토기가 특정 문화권(만경강 상류 지역) 내에서만 생산·유통되었음을 강하게 암시하며, 이는 그 지역 내에 독자적인 정치체가 실재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고고학적 근거로 평가할 수 있다.

3. 물질문화를 통해 본 지역 정치체

물질문화의 분포 분석 결과, 만경강 상류 지역에는 독자적인 지역 정치체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예컨대, 직구장경평저호의 집중적인 출토와 대형 심발의 지역적 특수성은 모두 이 지역이 뚜렷한 문화적 정체성을 갖춘 독립적 정치 단위였음을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취락군의 집합을 넘어서는, 조직화된 지역 공동체의 실재를 강하게 시사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직구장경평저호는 집중 분포와 기종적 특수성에 근거해 지역 정치체의 상징물로 기능하며, 정치적 영역 추정에도 중요한 단서가 된다. 또한, 초 대형 심발의 집중 분포 역시 해당 지역 정치체의 존재와 영향권을 입증하는 주요 물질문화적 지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문헌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지역 정치체의 실체와 영역을 고고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복원하는데 매우 중요한 학술적 의미를 가진다.

한편, 이 같은 결론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우선, 직구장경평저호와 대형 심발 등 대표 토기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현재 직구장경평저호는 제례용 또는 위세품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용도와 사회적 의미에 대한 심층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토기의 생산지와 유통망에 대한 과학적 분석도 필수적이다. 생산지 추정과 유통 경로 복원을 위해 태토·성분 분석 등 자연과학적 방법론의 적용이 필요하며, 육안 관찰을 넘어서는 정량적 분석과 심층적 해석이 병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접 지역 정치체와의 관계 양상에 대한 연구의 심화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직구장경평저호가 소량 출토된 임실, 익산, 군산 등 주변 지역과의 연계가 단순한 정치적 교류, 경제적 교역, 또는 영향권 확장 중 어떠한 맥락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해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V. 결론

본 연구는 만경강 유역의 최신 발굴 자료를 기반으로 원삼국시대 문화 양상을 검토하고, 두 가지 주요 가설을 검증하였다.

첫째, 기원 전후~기원후 2세기의 ‘문화적 공백기’가 실제로는 문화적 단절이 아니라 고고학적 가시성의 문제였다는 가설은 충분한 개연성을 확인하였다. 전주 여의동 2가 유적 등에서 삼각형점토대토기와 정질무문토기의 출토가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무문토기에서 타날문토기로 이어지는 기술적 연속성을 뒷받침한다. 특히 점토부뚜막의 등장 시기가 기존 편년보다 앞선다는 사실은 이 시기가 문화적 전환기이자 사회적 발전기였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둘째, 만경강 상류에 독자적 지역 정치체가 존재했다는 가설 역시 상당한 증거를 갖추고 있다. 직구장경평저호의 집중 분포, 대형 심발의 지역 특수성 등은 이 지역에 뚜렷한 문화적 정체성을 지닌 조직화된 지역 공동체가 실재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물질문화의 분포 양상은 단순 취락군을 넘어선 정치적 통합체의 존재를 방증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문화 단절론에서 문화 연속성론으로의 관점 전환을 제시하며, 물질문화의 정량적 분석을 통한 지역 정치체 복원을 시도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절대연대 측정 자료의 부족, 고분 자료와의 통합 분석 한계, 인접 지역과의 비교 연구 미비 등 한계를 내포한다.

향후에는 방사성탄소연대 측정을 통한 정밀 편년 구축, 자연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생산지 및 유통망 복원, 한반도 서남부 전체를 대상으로 한 통합 비교연구 등이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4~5세기 마한에서 백제로의 전환 과정—취사시설의 변화, 철기 생산체계의 발전, 위세경제를 통한 권력 집중화 등—에 대한 연구는 별도의 심층적 논의가 필요하며, 이는 향후 과제로 남겨둔다.

만경강 유역에 대한 고고학 연구는 한반도 서남부 지역 고대사의 실상을 밝히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며, 동시에 고대 지역사의 다양성과 문화 변화의 복합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향후 지속적인 발굴과 다각적 연구를 통해 이 지역의 사회문화적 양상이 더욱 명확히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

투고일 2025. 5. 1 | 심사완료일 2025. 9. 18 | 게재확정일 2025. 10. 1

참고문헌

- 국립청주박물관, 2022, 『위대한 지혜 아금』.
- 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 2017, 『김제 반월리·부용리 유적』.
- 김낙중, 2023, 「전북지역 마한문화의 전개 양상」, 『마한문화의 이해』,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 김승욱, 2004, 「全北地域 1~7世紀 聚落의 分布와 性格」, 『韓國上古史學報』 44.
- _____, 2011, 「중서부지역 마한계 분묘의 인식과 시공간적 전개과정」, 『한국상고사학보』 71, 한국상고사학회.
- _____, 2022, 「전북지역 3~6세기 마한 취락의 특징과 변화과정」, 『전북지역 마한 문화 발전기편-주거지』,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 _____, 2023, 「마한고고학의 몇 가지 쟁점과 단상」, 『마한문화의 이해』,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 김양욱, 1976, 「한반도 철기시대토기의 연구」, 『백산학보』 20.
- 김은정, 2017a, 「마한 주거 구조의 지역성: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중앙고고연구』 24, 중앙문화재연구원.
- _____, 2017b, 「湖南地域의 馬韓土器」,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18, 「마한 일상용기의 지역성」, 『호남고고학보』 59, 호남고고학회.
- _____, 2022, 「호남 서부지역 원삼국~삼국시대 수혈주거지의 취사 공간 연구」, 『아외고고학』 44, 한국문화유산협회.
- _____, 2024a, 「호남 서부지역 마한 취락의 성장 배경 검토」, 『호남고고학보』 77, 호남고고학회.
- _____, 2024b, 「만경강 상류 원삼국~삼국시대 주거지 출토 토기의 특징과 지역성」, 『선사와 고대』 75, 한국고대학회.
- 김장석·박지영, 2020, 「호남지역 원삼국시대 편년과 지역성」, 『호남고고학보』 66, 호남고고학회.
- 김준규·홍승연, 2021, 「토기의 소성 온도와 화학성분 조성 검토」,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문』 45, 한국고고학회.
- 노중국, 2018, 「문헌사에서 본 마한 연구동향」, 『마한 고고학개론』, 진인진.
- 노혁진, 2015, 「경질무문토기의 개념과 계통에 대한 一考」, 『백산학보』 102, 백산학회.
- 대한문화재연구원·성림문화재연구원·세종문화재연구원·중앙문화재연구원·동북아시아석묘연구소, 2024, 「전주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 박경신, 2021, 「안성천유역 원삼국~한성백제기 마한 세력의 동향」, 『고고학』 20-3, 중부고고학회.
- 박순발, 1993, 「우리나라 初期鐵器文化의 展開過程에 對한 약간의 考察」, 『考古美術史論』 3,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 _____, 2004, 「요녕 점토대토기문화의 한반도 정착 과정」, 『금강고고』 창간호.
- _____, 2009, 「硬質無文土器의 變遷과 江陵 草堂洞遺蹟의 時間的 位置」, 『강릉 초당동유적』,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 박진일, 2013, 「한반도 점토대토기문화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현주, 2016, 「馬韓土器의 地域性과 그 意味」, 『동북아시아에서 본 마한토기』 마한연구원 총서 4, 학연문화사.
- _____, 2021, 「전북지역 분묘 출토 마한 토기의 변천과 특징」, 『전북지역 마한문화~발전기편_고분』,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 송만영, 2013, 「중도식 주거 문화권의 주거지와 취락」, 『승실사학』 31, 승실사학회.
- _____, 2018, 「중도식 외줄구들 다원기원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중앙고고연구』 26, 중앙문화재연구원.
- 오승환, 2018, 「구들의 기원과 한반도 확산과정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용제·올즈마야르·권오영·이재용·김장석, 2024, 「토기의 지구화학 성분분석과 고고학 ~ 한국청동기시대 무문토기와 원삼국시대 경질무문토기의 pXRF 분석」, 『건지인문학』 41.

- 이영철, 2015, 「영산강유역 고대 취락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재현, 2003, 「江原地域 粘土帶土器文化 研究」, 한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영, 2021, 「榮山江流域 三國時代 土器의 生産과 流通 研究」,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14, 『김제 서정동 II 유적』.
- _____, 2017, 『완주 둔산리 청동유적』.
- _____, 2021, 『부안 궁월리유적』.
- 전북문화재연구원, 2017, 『부안 원천리유적』.
-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8, 『군산 건장산유적』.
- 최병현, 1998, 「원삼국토기의 계통과 성격」, 『한국고고학보』 38, 한국고고학회.
- 최성락, 1988, 「원삼국기 토기의 변천과 문제점」, 『영남고고학』 5, 영남고고학회.
- 해원문화재연구원, 2023, 『군산 지곡동유적』.
- Earle, Timothy. 1987. Chiefdoms in Archaeological and Ethnohistorical Perspective.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16.
- Renfrew, Colin & John F. Cherry (eds.), 1986. *Peer Polity Interaction and Socio-political Chan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ice, Prudence M. 1987. *Pottery Analysis: A Sourcebook*.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himada, Izumi. 1994. *Andean Ceramic Production and Use*.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Cultural Continuity and Regional Polity in the Mangyeong River Basin during the Proto-Three Kingdoms Period

: Based on Recent Settlement Excavation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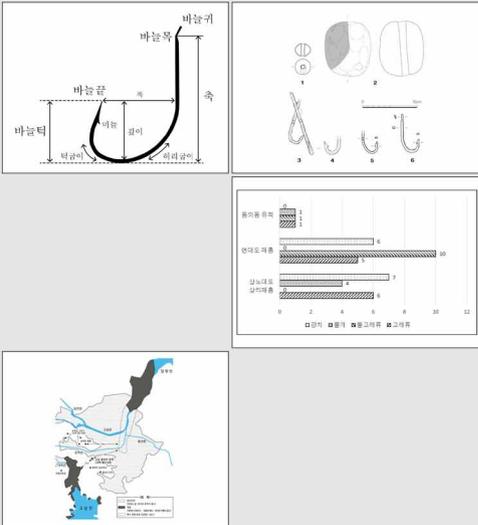
Kim, Eun-Jung (Research Professor, Daehan Institute of Cultural Properties)

The Mangyeong River basin is a key region for understanding the sociocultural dynamics of southwestern Korea during the Proto-Three Kingdoms period. Based on large-scale excavation data accumulated over the past decade, this study empirically tests two hypotheses: ① the so-called "cultural hiatus" from around the turn of the era to the 2nd century CE did not exist, and ② an independent regional polity with distinctive cultural identity existed in the upper Mangyeong River basin.

First, through the increasing discoveries of Triangular Clay-Rimmed Pottery and Hard Plain Pottery, as well as the early appearance of clay stoves, this study confirms cultural continuity in the Mangyeong River basin. Second, based on analysis of the concentrated distribution of Jikgu Jang-gyeong Pyeongjeo-ho (straight-rim long-neck flat-bottom jars) and regional distinctiveness of large-sized bowls, this study identifies the existence of a regional polity with independent cultural identity in the upper Mangyeong River area.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research proposes a paradigm shift from cultural discontinuity theory to cultural continuity theory, and suggests a methodology for reconstructing regional polities through quantitative analysis of material culture distribution.

Key words : Proto-Three Kingdoms Period, Cultural Hiatus, Regional Polity, Settlement, Hard Plain Pottery, Mangyeong River Basin



삼한 · 삼국시대 고성지역의 어로문화

-고성 동외동 유적을 중심으로-

Fishing Culture in the Goseong Region during the Samhan and Three Kingdoms Periods

- Focusing on the Dongoe-dong Site in Goseong -

이수연
기장군청 학예연구사

- I. 머리말
- II. 동외동 유적의 조사 성과
- III. 유적에서 출토된 어로구와 어로대상
- IV. 고성지역 어로집단의 특징과 성격
- V. 맺음말

국문 요약

본 연구는 삼한·삼국시대 고성지역의 어로문화를 고성 동외동 유적을 중심으로 고고학적 자료를 검토하여 분석하였다. 동외동 유적은 일제강점기 이후 수차례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어로 관련 연구는 상대적으로 정체된 실정이었다.

고성지역에서 출토된 어로구는 직구침 형태의 낚싯바늘과 소량의 어망추가 확인되었으며, 패류는 굴·고동류·바지락·홍합 등 조간대·조하대 고정성 종이 주를 이루었다. 어류는 상어·가오리 등의 연골어류와 참돔·농어 등의 경골어류가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고성지역 어로 활동은 주로 내수면 어로 양상을 보였으며, 연안 기수역에서 직구침을 이용한 낚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동외동 유적의 입지는 동시기 남해안 패총과는 다르게 인접한 두 곳의 내만(內灣)이 위치하여 효율적인 어로활동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주요 채취 대상이었던 굴은 나무집게를 이용하여 채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동외동 유적에서 확인된 어패류의 종 다양성은 남해안의 여타 패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나타낸다. 이러한 조건들을 고려할 때, 고성지역 어로집단은 농경을 기반으로 하면서 어로를 병행하는 '겸업 어민'의 형태를 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동외동 유적, 겸업 어민, 고정성 패류, 내수면 어로, 어로

I . 머리말

고성군은 경상남도 남해안에 위치한 도시로, 북쪽으로는 진주시, 동쪽으로 통영시, 서쪽으로 사천시, 남쪽으로는 남해와 접하고 있다. 이러한 고성군의 지정학적 입지는 삼한·삼국시대에 대외 교류의 요충지로 기능하였으며, 특히 소가야(小加耶) 왕도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고대 고성지역을 대상으로 한 문헌연구는 『三國志』 魏書 東夷傳의 고자미동국(古資彌凍國) 및 『三國遺事』에 등장하는 고자국(古自國), 『日本書紀』에 나타나는 포상팔국(浦上八國) 전쟁과 관련된 문헌사료 분석(백승욱 1997, 2018; 허재혁 2005)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아울러 소가야의 정치체(김태식 2000; 이형기 1997)와 연관된 해석도 주요한 연구의 축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고성 동외동 유적과 송학동 고분군에서 출토된 고고학적 자료를 토대로 이 지역의 고대 정치체 형성 시기와 권역 설정, 권력 구조의 변천, 그리고 대외 관계망에서의 소가야 정치체에 관한 실증적 연구(김규운 2018; 권용대 2007; 박승규 2005; 여창현 2023; 하승철 2018)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비록 고고학적 조사가 고성 분지 내 지배 집단의 형성과 전개 과정 및 외래계 유물을 통한 대외 교류 양상에 관한 학술적 의의를 지니고 있으나, 고대 고성지역의 생업과 관련된 미시적 접근, 특히 어로문화를 중심으로 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최근까지 보고된 동외동 유적의 고고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고대 고성지역의 생업 활동 중 어로문화를 복원하고자 한다. 우선, 동외동 유적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에서 조사된 유적을 검토하여 어로구(漁撈具)의 유형과 어획 대상의 특성을 분석할 것이다. 이어 이러한 분석 결과를 근세 지도, 근대 어업보고서, 민속자료 등과 비교함으로써 고성지역 어로집단의 어장의 분포, 어로구 사용 및 집단의 성격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분석 과정을 통해 고대 고성지역에서 이루어진 어로 활동의 구체적인 양상과 문화적 성격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동외동 유적의 조사 성과

고성지역의 지형은 전체적으로 동북에서 서남으로 뺨은 지맥 구조를 보이며, 서북 측이 고도가 높고 동남 측은 남해에 접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지형을 이룬다. 지역 내에는 해발 200m를 넘는 고지대나 대하천은 존재하지 않고 서부 산지에서 발원한 하천들은 고성 분지 중심부를 관통하여 사방으로 흐른다. 하류 일대는 고성 평야를 중심으로 한 해안 평야가 전개되며, 이는 고성지역의 주요 생활 기반이자 농업 공간으로 기능해 왔다.

고성군의 연안은 주로 남쪽에 있지만 동쪽으로 진해만과 접하는 구간도 존재한다. 남쪽 연안에는 해안선이 바다 쪽으로 돌출된 지역과 큰 만이 분포하며, 특히 동외동 유적 인근에는 고성만이 형성되어 있다. 고성만의 수심은 만의 입구에서 수심이 15~21m에 이르며, 육지에 가까워질수록 6~9m의 얕은 수심을 보인다. 이 지역의

[표 1] 동외동 유적 및 주변 유적 현황(그림 1과 연번 동일함)

연번	위치	유적명(조사기관)	조사연도	주요 유구
1	동외리 254번지 일원	고성패총 (국립중앙박물관)	1969~1970	패총
		고성동외동패총 (동아대학교박물관)	1974	옹관묘, 석관묘, 토광묘, 야철지
		고성동외동유적 (국립진주박물관)	1995	의례수혈, 주거지, 패총, 묘역, 야철지
		고성 동외동유적 (삼강문화재연구원)	2021	주거지, 패총, 환호, 수혈
		고성 동외동 유적Ⅱ (삼강문화재연구원)	2022	주거지, 패총, 대지조성층
		고성 동외동 유적 (경상문화재연구원)	2023	패총, 성토구조물
2	성내리 379번지 일대	고성읍성지 (동아대학교박물관)	2003~2004	수혈, 소토유구
3	송학리 309-1번지	송학리 309-1번지 유적 (한겨레문화재연구원)	2010	주거지, 수혈
4		송학리 309-1번지 유적 (해동문화재연구원)	2020	석곽묘, 수혈
5	송학리 309-1 일원	송학동패총	-	패총
6	송학리 470번지 일원	송학동 고분군 (동아대학교박물관)	1999	석곽묘, 석실묘
7	율대리 797-5번지 일원	율대리 고분군 (국립진주박물관)	1989	다곽식봉토분
8	동외리 369-1 일대	동외리 남산토성	-	토성
9	대독리 산101-1 일원	대독리 만림산토성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20	토성

연안은 비교적 먼 거리까지 얹으며 간조 시에는 갯벌이 광범위하게 노출되는 특징을 가진다(농상공부 수산국 2023b).

고성지역의 연구는 동외동 유적 조사를 시작으로 크게 진전되었으며, 그 조사 현황은 [표 1]과 같다. 동외동 유적은 1914년 도리이 류조(鳥居龍藏)에 의해 최초로 확인되었으나, 당시의 조사 경과 및 세부 내용에 관한 기록은 현재 전해지지 않는다.

이후 본격적인 발굴조사는 1969년 국립중앙박물관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이 시기의 구룡 서남사면 조사에서는 패각층과 주거지 등 유구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1974년에는 동아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긴급 발굴조사가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옹관묘·석관묘·토광묘와 함께 야철지가 확인되었다. 아울러 청동검과, 광형동모, 한경, 야요이 토기 등 다수의 외래계 유물이 출토되어, 고성지역이 삼한·삼국시대 대외 교류의 중요한 거점이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확보되었다.

1995년에는 국립진주박물관이 정상부 평탄지와 남동쪽 사면 일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유구들이 공간적으로 분할 배치된 양상이 확인되었으며, 정상부에서는 제사시설로 추정되는 중복 수혈과 함께 조문청동기가 출토되어 주목을 끌었다. 아울러 동사면에서는 주거지, 남서사면에서는 야철지, 패총, 토축 구조물 등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이후 2021년에는 고성군 가야사 복원 사업의 목적으로 정밀 발굴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이 조사에서는 삼한·삼국시대에 해당하는 패총, 주거지, 환호, 수혈, 구상유구, 주혈, 중앙광장 등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유적의 전체적인 구성과 구조를 복원할 수 있는 중요한 학술적 성과를 거두었다.

이어서 2022년 조사에서는 주거지, 고상건물지, 패총 등이 추가로 확인되었고, 1995년 조사 당시 확인된 토축 구조물이 성토로 조성된 사실도 밝혀졌다. 최근 2023년에는 정상부 동남쪽 구역에 대한 발굴이 진행되어 패총과 성토구조물의 일부가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성과는 두 차례의 학술대회를 통해 공유되었으며, 2024년 국가유산청에 의해 동외동 유적은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고성 동외동 유적은 고대 고성지역 정치체 연구에 있어 중요한 문화유산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였다.

한편, 고성지역에서는 동외동 유적 이외에도 주거지, 고분군, 성곽 등 다양한 유적이 다수 발굴되었다. 동외동 유적과 유사한 시기에 축조된 유적으로 고성읍 중심에 있는 고성읍성지 유적(동아대학교박물관 2006)과 동외동 유적에서 북서쪽으로 600m정도 떨어진 송학리 309-1번지(한겨레문화재연구원 2012)가 있으며, 이들 유

적에서는 주거지와 수혈 등의 유구가 조사되었다. 또한 동외동 유적과 유사한 성격의 유적으로는 송학동 패총도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동 시기에 생활 유적이 넓게 분포하는 현상은 단순한 일시적 체류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정주 활동이 이루어진 공간이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유적의 분포는 주변 자연환경과 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반영하며, 공동체 내에서 농경·어로·수렵 등의 다양한 생업 활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동외동 유적의 성격에 대해서는 동시기 남해안에서 확인되는 패총과의 유사성을 근거로 고지성 집락으로 보는 견해와 의례 관련 유구 출토를 근거로 제장(祭場)으로 보는 견해가 최근 제시되고 있다.

고지성집락으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구릉 정상부를 둘러싼 소규모 환호와 주거지, 패총의 결합은 김해·창원·양산 등 남해안 지역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유사점을 보인다는 것이다. 동외동 유적에서 확인되는 환호와 대지 조성층은 이러한 구조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군사적 거점으로 기능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소배경 2022).

반면, 제사와 관련된 기능을 강조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구릉 정상부 중앙광장 북측의 제의 수혈에서 출토된 새 무늬청동기와 이중 환호에서 출토된 화천(大泉五十), 토성 내부에서 출토된 개궁모, 통형기대, 고배 등의 고급 토기들은 해당 유적이 소가야 최고 신분의 왕자 또는 제사장이 거주하며 제례를 수행한 제장(祭場)으로 기능했다는 것이다(이동희 2023).



[그림 1] 고성지역 주요 유적 분포 [출처: 1973년 고성 지형도(국토지리정보원)]

Ⅲ. 유적에서 출토된 어로구와 어로대상

패총 유적은 선사시대와 고대인들의 일상생활에서 형성된 인공유물과 자연유물이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어, 당시의 문화상을 규명하는데 최적의 고고학적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패총에서 출토되는 패류, 어류, 포유류 등의 자연유물은 수렵·채집·어로를 중심으로 하는 생업 경제 활동의 단서를 제공한다.

남해안 일대에서는 삼한·삼국시대의 패총이 다수 조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업에 관한 연구는 주로 농경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물론 농경이 사회 변화를 촉진한 중요한 요인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원화된 생업 구조는 재해에 취약하고 생산 안정성이 낮으며, 사회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농경 이외의 다양한 자원 등을 활용한 복합적인 생업 구조가 병행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생업에 관한 연구 중에서 어로와 관련된 연구는 생업 구조의 다변성과 해양 자원의 이용, 지역 간의 교류와 같은 삼한·삼국시대의 다층적 이해를 위해 필수적이다. 사실 어로문화에 관한 연구는 신석기시대를 중심으로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김건수 1999; 이영덕 2006; 하인수 2006). 반면, 삼한·삼국시대 어로문화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에 들어 가야의 어로문화에 대한 논의(곽종철 2003)를 비롯하여 유적에서 출토된 포획물과 어로구를 대상으로 한 분석(김재홍 2015; 유병일 2012)의 연구가 일부 이루어졌으나, 방대한 고고학 자료와 증가량에 비해 최근 관련 연구는 다소 정체된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서 고성 동외동 유적에서 확인된 어로구(漁撈具)와 어획물은 당시의 어로문화를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고성지역에서는 동외동 유적과 송학동 고분에서 어로와 관련된 유물이 확인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 유적에서 출토된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성격을 고찰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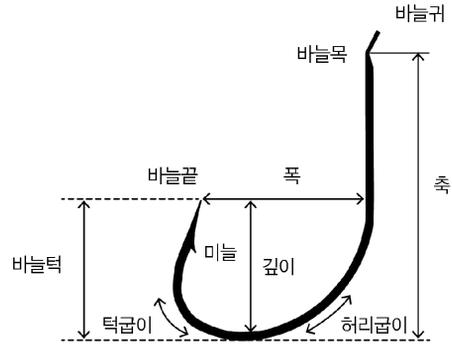
1. 어로구

어로(漁撈, Fish catching)는 수산 동식물을 포획(捕獲, Capturing)하거나 채취(採取, Gathering)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어로에 사용되는 도구를 어로구(漁撈具, Fishing gear)라고 한다. 고성지역에서 출토된 주요 어로구로는 낚시, 어망추가 있으며 각 어로구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낚시와 어망추

낚시는 낚싯줄 한 가닥에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바늘을 낚싯대나 손에 부착하여 직접 대상물을 낚아 올리는 어로구이다.

낚싯바늘의 구조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늘끝(point)과 미늘(barb) 그리고 귀(eye) 부분이다. 물고기를 단번에 효과적으로 꿰기 위해서는 끝이 날카로워야 하며, 물고기가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미늘이 있어야 한다. 또한, 바늘을 낚싯줄에 견고하게 묶기 위해 귀 부분이 필요하다. 낚싯바늘의 형태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턱과 허리 부위의 길이 및 구부러지는 각도가 있으며,



[그림 2] 낚싯바늘의 구조

이들 요소는 모두 대상 어종의 특성을 반영해 제작된다(예조원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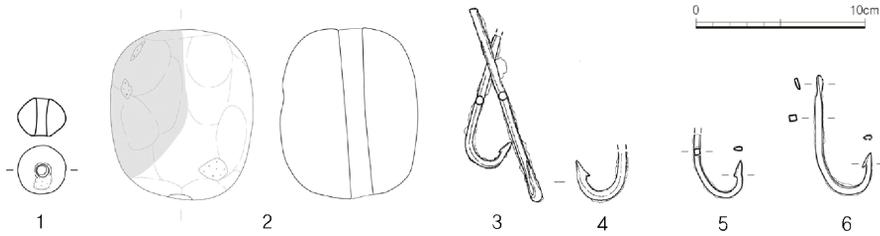
고성지역에서 출토된 낚싯바늘은 모두 4점이다. 낚싯바늘의 바늘귀는 바늘 몸통과 일직선인 직선형 바늘귀가 확인된다. 직선형의 바늘귀는 미끼 꿰기가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숙련도가 높은 경우 외반형 바늘귀보다 매듭 강도가 강하고 안정적인 특징이 있다.

축은 깊이에 비해 길게 제작되어 대상 어종이 바늘을 물었을 때 바늘이 입안에서 수평으로 길게 위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작은 입을 가진 어종도 쉽게 포획할 수 있어 포획 확률을 높일 수 있고 어종이 바늘을 삼켰을 경우 바늘 제거가 쉬우며, 물속 암초에서 자연스럽게 빠져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미늘은 걸려든 대상물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구조이다. 고성지역에서 출토된 낚싯바늘 미늘은 내미늘 형태이다.¹⁾ 일반적으로 내미늘은 외미늘에 비해 포획물이 한번 걸리면 빠져나가기 매우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바늘끝은 바늘 몸체와 일직선으로 뻗어 있는 형태인 직선침을 가진다. 직선침은 관통력이 뛰어나 단단한 입천장도 잘 뚫어 대형 어종에 유리한 바늘 형태이다. 바늘이 물고기 입안에 제대로 박히도록 낚싯대를 빠르게 잡아채는 훅셋(hookset) 낚시에

1) 미늘의 위치에 따라 무미늘낚시, 내미늘낚시, 외미늘낚시, 양미늘낚시로 구분할 수 있다(김건수 1999).



[그림 3] 고성지역 출토 어로구

[1:고성 동외동 유적Ⅱ(삼강), 2: 고성 동외동 유적(경상), 3·4: 송학동 고분(동아대박물관), 5·6:고성 동외동 유적(삼강)]

주로 쓰이며 숙련도가 있어야 하는 낚시바늘이다.

어망추는 총 2점이 출토되었으며, 모두 연질에 구형(球形)으로 소형과 대형 각각 1점씩 확인된다. 먼저 소형의 구형 어망추는 유물의 용도가 명확하지 않아 일부에서는 토주(土珠)로 분류되기도 한다. 그러나 무게와 형태 및 출토 정황을 고려할 때, 이는 낚시용 봉돌의 가능성이 있다. 현대 낚시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봉돌이 사용되는 사례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대체로 소형의 구형 어망추는 원형과 주판알형으로 구분된다. 원형은 바닥에 닿아도 쉽게 굴러 이동할 수 있어 바닥이 거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주판알형은 원형보다 바닥에서 쉽게 굴러가지 않아, 미끼를 바닥에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할 때 적합한 형태이다.

동외동 유적의 어망추는 수량이 매우 적고, 동시기 대부분의 패총에서 확인되는 관상형 어망추는 출토되지 않았다. 이를 종합하면, 동외동 어로집단은 자망을 이용한 어로 활동에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어로대상

패총은 일반적으로 당시 사람들이 섭취 후 폐기한 조개껍데기를 주로 포함하는 유적이지만, 보존이 어려운 동물 뼈 등의 다양한 자연 유물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패총은 당시의 식생활을 이해하고 생업 활동을 복원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유적에서 출토되는 어패류는 종 동정(同定)을 통해 어로 대상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대상물의 잔존 상태와 서식지 등을 고려하여 당시 사람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해당 자원을 획득했는지 유추할 수 있다.

동외동 패총에서 출토된 자연유물은 패각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어류·해양포

유류 뼈 등도 함께 확인되어 당시 어로 활동에 대한 생업의 복원이 가능하다. 이에 개별 유적에서 보고된 자연유물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시 어로 활동으로 포획된 대상물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패류

동외동 유적에서 확인되는 패류는 총 33종으로, 대부분은 해수산 조간대 패류로 구성되어 있다. 패류 구성비를 살펴보면, 이매패강이 17종, 복족강이 16종이며, 담수산 패류도 2종도 포함되어 있다.

출토 수량으로 비교해 보면, 참굴·고동류(점갯고동, 동다리 등)·바지락·피뿔고동·갯우렁이·홍합·가무락조개 등의 순으로 확인된다.²⁾

우선 굴은 밀물과 썰물이 드나드는 조하대 암반에 붙어살지만, 수심 5~40m에도 많이 서식한다(김지민 2024). 유적에서 굴의 출토량이 가장 많다는 것은 굴의 성장 조건이 양호하고 포획지역이 인접해 위치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고동류는 점갯고동, 동다리 등을 묶어 보고하고 있다(삼강문화재연구원 2023). 흔히 유적에서 출토되는 나사 형태의 고동류로는 갯고동, 동다리, 비틀이고동 등이 대표적이다. 이 고동류도 굴과 마찬가지로 암반에 붙어 사는 특징을 보인다. 다만 점갯고동의 경우 해조류나 암반에 붙어 다니면서 서식하는 특징이 있다.

굴과 고동류가 주요 채취 대상이었으면 이외의 패류에서는 출토량이 현저히 떨어진다. 먼저 바지락은 전체 출토량의 5%에 해당한다. 바지락은 조간대 수심이 약 5m 이하의 갯벌과 모래에서 서식하는 가장 흔한 종류의 패류이다. 이동하지 않고 한곳에서 자라는 특성으로 양식이 쉬운 패류로서 산란기를 준비하는 3~5월이 살이 가장 많이 오르며 이때가 가장 맛있다(김지민 2004). 참고로 바지락은 군곡리 패총에서 출토된 종의 성장선 분석을 통해 주요 포획 시기가 늦겨울부터 봄까지 집중되었다는 연구 사례도 있다(김건수 1996).

피뿔고동은 서해 및 남해안 일대에 흔히 나는 대형 패류이다. 바위와 자갈이 섞인 해변가를 비롯해 조간대 수심인 10~20m 저질의 모래나 갯벌, 진흙에 많이 분포한다. 제철은 가을부터 봄이다(김지민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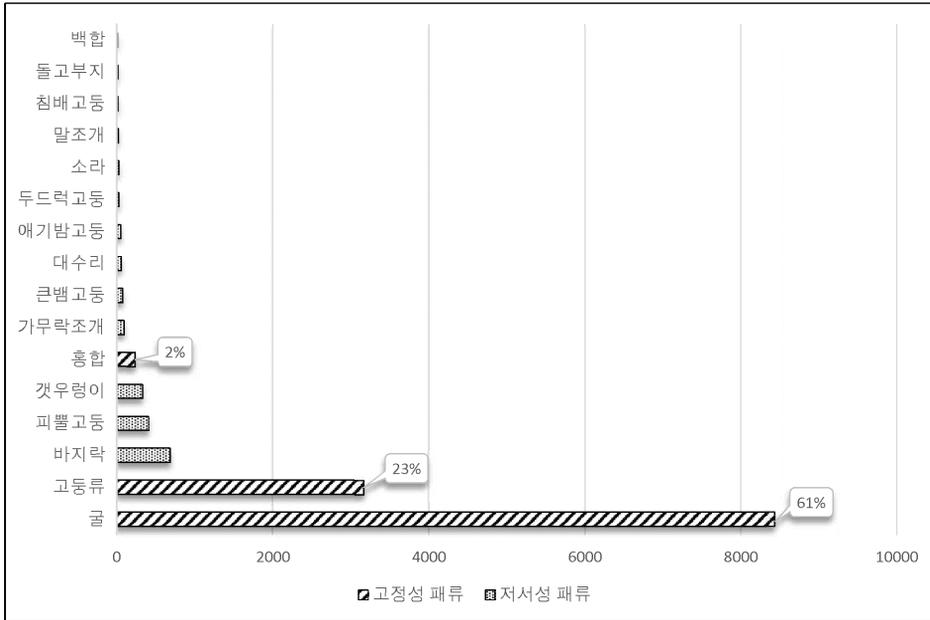
2) 패류의 출토량은 고성 동외동 패총(동아대학교박물관 1984)과 固城 東外洞 遺蹟(삼강문화재연구원 2023)에서 보고된 패류를 합친 수량이다.

[표 2] 동외동 유적 출토 패류 현황

Class	구분	종(Species)		조사기관 ³⁾				
		영문명 ⁴⁾	한글명	동박	진박	삼강*	삼강*	경상
이 매 패 강	해수	<i>Anadara kagoshimensis</i>	새꼬막	○				
		<i>Tegillarca granosa</i>	꼬막			○		
		<i>Mya arenaria</i> Linnaeus	우럭	○				
		<i>Mytilus unguiculatus</i> Valenciennes	홍합			○	○	
		<i>Magallana gigas</i>	굴	○	○	○	○	○
		<i>Magallana nippona</i>	바위굴	○				
		<i>Ostrea denselamellosa</i> Lischke	토굴	○				
		<i>Mizuhopecten yessoensis</i>	큰가리비			○		
		<i>Macra quadrangularis</i> Reeve	동죽	○				
		<i>Spisula sachalinensis</i>	북방대합					
		<i>Tresus Keenae</i>	왕우럭조개	○				
		<i>Neotrapezium liratum</i>	돌고부지			○		
		<i>Cyclina sinensis</i>	가무락조개	○		○		
		<i>Meretrix lusoria</i>	백합	○		○		
		<i>Ruditapes philippinarum</i>	바지락	○		○		○
	<i>Saxidomus purpurata</i>	개조개	○					
	담수	<i>Unio douglasiae</i>	말조개			○		
복 족 강	해수	<i>Bostrycapulus gravispinosus</i>	침배고둥			○		
		<i>Laguncula pulchella</i> Benson	갯우렁이	○				
		<i>Neverita didyma</i>	큰구슬우렁이	○				
		<i>Thylacodes adamsii</i>	큰뺨고둥	○		○		
		<i>Neptunea despecta</i>	갈색띠매물고둥	○				
		<i>Ocenebrellus inornatus</i>	어깨뿔고둥			○		
		<i>Rapana venosa</i>	피뿔고둥	○		○		
		<i>Reishia bronni</i>	두드럭고둥	○		○		
		<i>Reishia clavigera</i>	대수리			○		
		<i>Chlorostoma xanthostigma</i>	명주고둥	○		○		
		<i>Tegula nigerrima</i>	애기밤고둥			○		
		<i>Lunella correensis</i>	눈알고둥			○		
		<i>Turbo cornutus</i>	소라	○	○	○		○
		<i>Balanidae</i>	따개비과	○				
	<i>Gastropoda</i>	고둥류			○			
	담수	<i>Smisulcospira forticosta</i>	주름다슬기	○				

3) 조사기관의 유적은 다음과 같다(동박: 동아대학교박물관 1984, 진박: 國立晉州博物館 2003, 삼강*: 三江文化財研究院 2023, 삼강*: 三江文化財研究院 2024, 경상: 경상문화유산연구원 2025).

4) 종명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2022b) 및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담수생물다양성정보포털(<https://fbp.nmibr.re.kr/portal/>)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그림 4] 고성 동외동 유적 패류의 동정가능표본수(NISP)

홍합은 수심 5~10m 조하대 바위에 붙어 집단으로 서식하는데 산란은 6~8월경에 이뤄지며, 주로 늦가을부터 초봄 사이 소비된다(김지민 2024).

동외동 유적에서 출토된 패류는 종의 동정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분포 양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수량 자료도 함께 보고되었다. 고고학에서 자연유물의 양을 정량적으로 파악할 때 동정가능표본수(NISP, Number of Identified Specimens)와 최소개체수(MNI, Minimum Number of Individuals)가 주요 지표가 활용된다. 동정가능표본수(NISP)는 동정 가능한 유물의 조각 수를 기준으로 하여 비교적 객관적인 수치를 제공하지만, 동일 개체의 중복된 부위가 포함될 수 있어 실제 개체 수보다 과대 추정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반해 최소개체수(MNI)는 중복되지 않는 해부학적 요소를 기준으로 최소한의 개체 수를 산정함으로써, 출토 자연유물의 분포 경향과 양상을 보다 정확히 수치화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정량적 지표는 고대인들이 어떤 종을 주로 포획하였는지, 그리고 그 상대적인 비중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며, 유물 분석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당시 생업 활동과 식생활 양상에 대한 문화적 이해를 심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동외동 유적에서 확인된 패류의 서식 환경은 조간대와 조하대의 인근 연안으로, 육안 관찰과 직접 채취가 가능한 패류라는 것이다. 특히 확인된 패류 중 가장 큰 특징

은 고정성 패류(Sessile mollusks)의 비율이 전체의 86%로, 절대적으로 우세하다는 점이다. 고정성 패류는 바위, 암반, 해조 등 단단한 표면에 붙어 서식하며, 움직이지 않고 한곳에 고정된 특징을 가진다. 대표적인 고정성 패류로는 굴과 고동류,⁵⁾ 홍합이 있다. 대체로 조하대 및 조간대 암초에 서식하며 간조시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큰 노동 행위 없이 채취할 수 있다.

반면, 저서성 패류(Benthic mollusks)는 갯벌, 모래, 진흙 바닥 등에 묻혀 있거나 자유롭게 기어다니며 바닥 위 또는 내부에서 생활하는 이동성이 있는 패류를 의미한다. 유적에서 출토된 갯우렁이, 피빨고동, 가무락조개, 큰뺨고동, 대수리, 애기뺨고동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고정성 패류의 채취는 바위나 암반에서 패류를 떼어내거나 긁어내기 위한 맨손어구가 필요하다. 이에 반해 저서성 패류의 채취는 갯벌이나 모래, 진흙 등을 파내는 방식의 맨손어구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포획된 패류의 계절성은 육질과 맛이 가장 뛰어난 산란기 이전, 즉 11월부터 5월까지가 주요 채취 시기로 판단된다.

2) 어류 및 해양포유류

동외동 유적에서는 총 4종의 해수산 어류가 확인되었다. 출토 어류는 남해안지역의 대표적인 포획 어종인 상어류, 참돔, 농어가 포함되어 있다.

먼저 상어류는 유적에서 척추뼈만 출토되었다. 상어는 식용으로 선사시대부터 활용된 중요한 어류로 평가된다. 내만에서의 상어 포획은 주로 외줄낙시와 연승법을 통해 이루어지며, 멸치 때 등 소형 어류를 쫓아 들어온 상어를 대상으로 한다.

가오리류는 유적에서 꼬리뼈(尾鍼)의 형태로 출토된다. 이는 연골어류가 척추뼈와 꼬리뼈를 제외한 대부분의 골격구조가 연골로 구성되어 있어, 뼈가 유적에 잔존하기는 어려운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꼬리뼈의 출토는 가오리류가 실제로 포획되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고고학적 자료로 평가된다. 가오리 중에서도 노랑가오리는 통영과 고성 앞바다에 다수 서식하는 종으로, 남해안에서는 산란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시작되어 12월부터 3월 사이가 주 어획기로 알려져 있다(김지민 2024). 한편, 가오리류와 유사한 홍어류를 포획하는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주낙(낙시), 각종 그물류, 돌살 등이 사용되었음이 민족지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다(김건수 2008).

5) 고동류 중에 갯고동은 바위나 조개껍데기, 모래 또는 진흙 바닥에 붙어나 서식하는데 고정성보다는 부착성 패류에 가깝다.

참돔은 봄철 산란을 위해 북상하는 계절 회유어로, 우리나라 전 해역에 고루 서식한다. 산란철인 4~6월에는 얕은 바다로 이동하며 그물에 집단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다. 참돔의 체철은 겨울에서 초봄까지로 알려져 있다(김지민 2024).

[표 3] 동외동 유적 출토 어류 및 해양포유류의 동정가능표본수(NISP)

구분	Class	종(Species)		조사기관		
		영문명 ⁶⁾	한글명	동박	삼강*	삼강*
어류	조기강	<i>Pagrus major</i>	참돔			6
		<i>Lateolabrax japonicus</i>	농어		1	
	연골어강	<i>Selachimorpha</i>	상어류		1	
		<i>Batoidea</i>	가오리류		3	
해양 포유류	포유동물강	<i>Callorhinus ursinus</i>	물개	1		
		<i>Odontoceti</i>	대형고래류		3	
		<i>Delphinidae</i>	돌고래류		1	

농어는 전장 1m 정도까지 성장하는 대형 어종이나, 주로 포획되는 개체는 50~80 cm 내외이다. 봄에서 여름까지는 먹이활동을 위해 육지와 가까운 바다로 이동하기 때문에 조업 배에 자주 잡히며, 늦가을부터 겨울에는 산란을 위해 먼바다 심해로 이동하는 계절 회유성 어종이다. 유어기에는 담수를 선호하여 강 하구의 기수역에 많이 서식하며, 이는 담수와 해수가 만나는 지역에 풍부한 먹이가 존재하며 농어의 뛰어난 담수 적응력 때문이다. 또한 멸치가 주요 먹이이므로 멸치 떼가 들어오면 이를 따라 수면에서 떼를 지어 다니기도 한다.

참고로 농어는 여름을 중심으로 어획량이 증가하기에 제철도 여름으로 인식하지만, 이는 지역과 위도, 그리고 세부종에 따라 9월부터 2월까지 매우 폭넓다. 동해 남부를 비롯해 남해안 전역에 서식하는 농어는 주로 12~1월을 전후로 산란한다. 11~12월에 잡힌 농어는 알집이 어느 정도 자란 상태에 살집이 두껍고 지방도 충분히 있어 가장 맛이 좋다(김지민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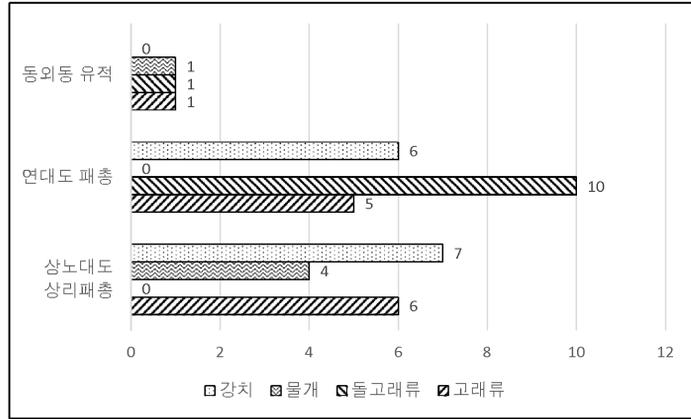
상어류를 제외한 동외동 유적 출토 어류의 공통적인 특징은 얕은 바다 또는 연안 기수역에 서식한다는 점이다. 가오리류는 저질의 바닥을 선호하며, 참돔과 농어는 기수역에서 낚시로 포획이 가능한 어종이다. 상어류는 연안 또는 심해에 서식하지만,

6) 종명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2022a)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연안 가까이로 전갱이 등의 소형 어류가 접근할 시기에 함께 포획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어류의 계절성은 겨울부터 봄이 주요 포획 시기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참돔과 농어의 경우 서해안의 어획 시기가 여름~가을에 집중된 점(김건수 2001; 안덕임 2017)과, 남해안의 어획 시기가 차이를 보이는 것은 회유 시기에 따른 계절적인 차이로 판단된다.

동외동 유적에서는 어류 외에도 물개와 고래류가 확인되었다. 한반도에서는 전통적으로 물개의 대규모 서식지가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동외동 유적에서 확인된 물개는



[그림 5] 고성만과 외해에 위치한 유적의 해양포유류 최소개체수(MNI)

무리에서 이탈한 개체이거나, 외부에서 반입된 포획물일 가능성이 있다.

고래류는 선사시대부터 주요 포획 해양포유류로 알려져 있다. 동외동 유적에서도 고래류의 자연유물이 확인되지만, 그 수량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이에 먼 바다로 나가 직접 수렵하여 포획했을 가능성이 희박하며, 주로 해안에 밀려온 사체를 이용하거나 연안에서 우연히 포획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고은별 2023).

동외동 유적에서 출토된 해양포유류의 동정가능표본수는 고래류 척추골 2점 · 지골 1점, 돌고래류 척추골 1점이 확인되었다. 참고로 고성만과 접해 있는 남해 외해의 신석기시대 패총인 상노대도 상리 패총 및 연대도 패총의 고래 출토량(이충민 2011)과 비교하면, 동외동 유적에서 고래 출토량은 매우 적은 수준이다.

이러한 출토 양상을 고려해 보면, 해양포유류의 내만으로의 회유 가능성은 낮으며, 동외동 유적에서 확인된 고래류는 외부에서 반입되었거나 앞서 언급한 좌초된 개체일 가능성이 높다. 좌초한 고래(Stranding)는 지역 공동체에 있어 큰 구경거리이자 중요한 영양 섭취원의 재료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남종영 2024).

IV. 고성지역 어로집단의 특징과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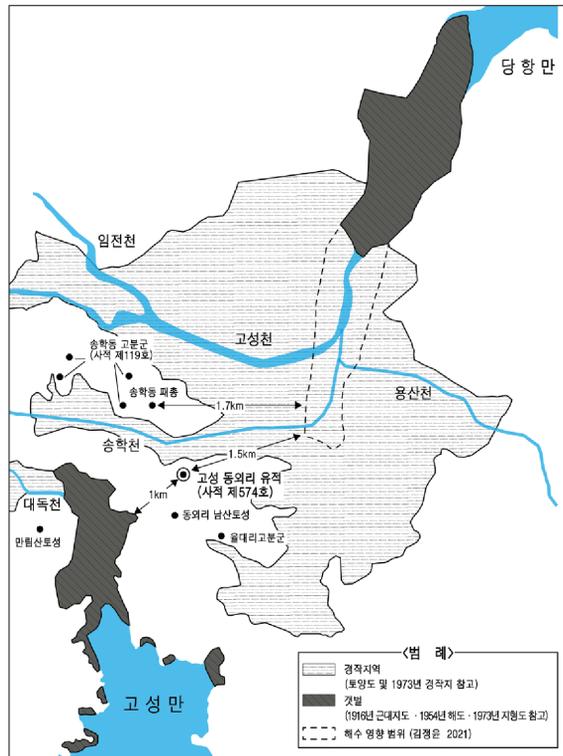
고성지역은 해안과 인접하여 주변 세력과의 교류가 쉬우며, 교역망 확보에서도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동외동 유적이 위치한 고성읍은 해안과의 거리가 가까울 뿐만 아니라, 비교적 넓은 범위의 농경지를 확보하고 있어 고대 정치체를 형성하고 성장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였다.

앞서 고성 동외동 유적에서 출토된 어로구 및 포획 중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낚시와 어망추가 확인되었으며 총 33종의 패류, 4종의 어류, 3종의 해양 포유류가 주요 포획 대상이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어로구 및 포획 중의 분석을 토대로 고성지역 어로집단의 활동 양상과 그 성격을 고찰하고자 한다.

1) 유적 입지와 어로 활동의 관계

유적의 입지 조건은 어로 활동의 범위 설정 및 결정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고대 동외동 유적이 형성될 무렵 고성지역의 경관은 2,300년 전 해퇴로 인하여 고성만 일대는 갯벌이 형성되었고, 당항만 일대는 습지가 형성되었다. 이후 3세기에서 4세기에 이르러 해수면이 다시 상승함에 따라 고성만은 기항이 가능한 내만의 형태가 유지하였으며, 고성천 일대에서는 습지를 활용한 가경지 확보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김정윤 2021; 여창현 2023).

이를 고려할 때, 동외동 어로 집단의 주요 어로 대상지는 고성만과 당항만으로 추정할 수 있다. 고성만은 동외동 유적지



[그림 6] 삼한·삼국시대 고성지역 어로 대상지

로부터 남서쪽 약 1km 지점에 위치하며, 당항만은 북동쪽 약 1.5km 거리에 있다. 두 만이 인접해 위치한 동외동 유적의 입지는 남해안 일대의 동시기 패총과 비교할 때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즉, 하나의 내만(內灣)만을 지닌 동시기 패총과는 달리 인접한 거리에 두 개의 내만이 존재하는 동외동 유적의 입지는 기후 조건과 해류 및 계절적 요인에 따라 유연한 어로 활동을 가능하게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고성만 연안은 비교적 수심이 얇고 간조 시에는 광범위한 갯벌이 드러나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환경은 굴, 고동, 바지락, 피빨고동, 홍합 등 다양한 생물의 풍부한 서식 조건을 제공하였다. 더불어 연안 기수역에서 저서성 어종과 회유성 어종을 대상으로 낚시 등의 어로 활동도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당항만 역시 광범위한 갯벌을 통해 패류 채취의 적합한 환경으로, 외해로의 직접적인 이동에는 제한이 있으나, 인접한 진동만 및 마산만과 연계되어 수운 활동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였다.

동외동 유적은 남해안 일대의 동시기 패총과 비교할 때 어획지로의 이동방식에서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동시기 남해안 대부분의 패총이 어획지까지 주로 하천을 이용한 반면, 동외동 어로집단은 주변에 고성천을 제외하고 인접한 하천이 확인되지 않아 하천을 통한 이동에는 제한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외동 집단이 활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하천의 확인이 필요하다. 동외동 유적과 송학동 고분·패총이 위치한 지역 사이에는 ‘송학천’이라 불리는 소규모 하천이 존재한다. 조선 후기의 『여지도(輿地圖)』(1736~1767년 편찬)와 『지승(地乘)』(1776년 편찬) 등 고지도와 최근 발표된 고환경 자료(김정윤 2021)에서도 송학천의 존재가 확인되지만, 현재는 복개되어 육안으로는 그 흐름을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고성천과 용산천의 합류 지점을 기준으로 하천의 흐름을 복원해 보면, 송학천이 송학동과 동외동 지역을 관통하여 고성천과 합류하는 수계를 이루고 있음이 확인된다.⁷⁾ 즉, 송학천의 존재는 동외동 어로집단이 단순히 도보 이동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하천을 이용한 어로 활동도 병행하였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두 내만 사이에 위치한 동외동 유적의 입지는 풍부한 어장을 통한 어패류 어획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고성만을 통한 해상 교류와 당항만을 통한 내륙 이동에도 적합한 입지였음을 알 수 있다.

7) 송학천의 복개 시작점은 서외리 8-5번지, 복개 종료점은 송학리 260-33번지에 해당한다.

2) 어패류를 통해 본 어로집단의 특징

고성지역의 내만은 모두 반폐쇄성 내만이라는 공통된 특성을 보이며, 유속이 빠르지 않고 외해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만 내부의 수심은 매우 얇고 하천을 통해 공급되는 유기물은 하구에 퇴적되어 조간대 전역에 광범위한 갯벌이 형성되게 하였다. 이러한 지형환경적 특성은 내수면 어로에 적합한 조건을 제공한다.

동외동 어로집단은 내만 조간대와 조하대 패류를 채취하고, 연안의 암초 지대를 중심으로 내수면 어로 활동을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굴과 고둥류 등의 고정성 패류는 이들의 주요 식자원으로 기능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고정성 패류를 대상으로 한 어로 활동은 채취의 편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굴의 경우 바위나 돌에 부착하여 자라므로 눈에 쉽게 띄고 채취가 쉽지만, 저서성 패류는 모래나 진흙 속에 묻혀 있어 효율적인 채취가 어렵다. 또한 굴은 집단 서식 형태를 가지므로 집중적인 채취가 가능하며, 육량과 맛이 보장되어 중요한 식자원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많은 양의 굴을 채취하는 구체적 방법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유적에서는 어로구의 출토량이 현저히 적으며 남해안 일대에서 흔히 출토되는 녹각제도자 병도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은 유적에서 존재하기 어려운 유기물 형태의 도구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 기록에 따르면(농상공부 수산국 2023a) 굴 채취시 목제 집계를 사용했다는 기사가 있다.

그 채수법은 함경도에서는 어선에 2~3인이 승선하여 굴 서식장에 이르면,
먼저 수간으로 어선을 고정시키고
나무로 된 긴 작대기가 달린 갈퀴로 긁어 올리거나
또는 나무로 된 조개집계[木製具狹]로 집어 올리는 것이 보통이라고 한다.

또한 섬진강 유역에 위치한 망덕포구의 강어로와 관련된 구술자료(박종오 2014)에도 집계를 이용한 굴 채취 내용이 확인된다.

나무나 여문나무, 이렇게 생긴 나무를 가지고 깎았어. 손재주 좋은 사람들이.
깎아 가지고 인자 끝부분만 쇠로하고, 이 부분만 쇠로하고, 원리가 연탄집계 원리.
이 부분을, 이거 이 부분은 내가 개조해 놓았으니까. 인자 그게 나무가 인자 저
없고, 우리는 인자 못 만드니까 내가 인자 쇠로 가지고 개조를 한거지.

이 자료는 굴 채취용 나무집게 제작의 어려움으로 인해 쇠로 개조한 사례에 관한 구술이다. 자료의 배경인 망덕포구에서는 추수가 끝나는 11월에서 12월경에 강굴 채취가 시작되어 이듬해 4월까지 굴집게를 이용해 강굴을 채취하였으며, 주로 간조 시에만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전해진다. 이와 같은 기사를 바탕으로 동외동 유적의 어로 집단 역시 굴 채취를 위해 위와 유사한 형태의 목제 도구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추론할 수 있다.

어류 포획에서는 어로집단의 전문성을 뚜렷하게 알 수 있다. 특히 고성지역에서 출토된 직구침 형태의 낚싯바늘은 마산만 일대에서 흔히 발견되는 외구침 형태의 낚싯바늘(동서문화연구원 2012)과는 달리, 특정 어종을 포획할 수 있는 특화된 형태를 보인다. 직구침은 저서성 어류인 가오리류나 상어류를 포획하는데 더 적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7] 해삼·굴 집게(국립수산과학원 2024)

어획된 어패류는 거주지로 이동해 직접 소비되거나 젓갈과 같은 발효식품으로 가공되어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젓갈은 식품의 저장성을 높이기 위한 가공법으로 오래전부터 이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예로 신라 신문왕 3년(683년)의 왕비를 맞이하기 위해 보낸 예물중에도 장(醬)·시(鼓)·포(脯)와 함께 젓갈(醢)이 포함된 사례와 안압지 꼬리표 목간에서 확인되는 가오리(可火魚)와 전복(生鮑) 기록(이용현 2007)은 삼국시대 가오리와 같은 생선 젓갈이 식생활에 이용되었음을 보여준다.⁸⁾

3) 어로대상의 다양성과 집단의 성격

동외동 유적에서 확인되는 패류 및 어류의 다양성은 남해안 내 다른 패총과 달리 수량과 종 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특징을 보인다. 이는 고성지역의 내만이 반폐쇄성 내만 구조로 되어 있어 외해 어종의 유입이 제한적이고, 이에 따라 어종 다양성이 저

8) 참고로 충남 태안 마도 해역에서 발견된 마도 1호선 출수 고려 목간과 죽찰에 기록된 음식물에는 젓갈류인 게젓(蟹醢)과 고등어젓(古道醢)이 있으며, 발굴된 유물에도 게, 갈치, 맨뎡이, 전어, 정어리 등의 젓갈로 추정되는 유물이 확인되었다(김정옥 2010).

하된 환경적 요인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진해만에 있는 마산만은 폐쇄성 내만임에도 불구하고 보다 다양한 어로종이 포획되었으며, 어로구에서도 다량의 어로 자원이 확인됨에 따라, 어로종 다양성의 저하는 단순히 지형 및 환경적 요인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내부적인 요인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동외동 유적에서 확인된 어로종의 낮은 다양성은 동외동 집단이 식량 압박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환경에 있었음을 시사한다. 비록 패류의 체장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패류 크기 선별이 채취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였는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특정 패류의 집중적 채취 양상은 해당 서식 환경이 양호하였고, 어로 강도 역시 높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특히 식자원의 밀도와 낮은 생물종 다양성은 정착 생활과 일정한 관계를 가진다 (제임스 C.스콧 2019). 다시 말해, 동외동 유적에서 확인되는 어로구의 단순성과 어종의 낮은 다양성, 그리고 고정성 패류에 집중된 출토 양상은 일정 수준의 생업 경제에 적응한 정착 집단의 존재를 시사한다. 해당 정착 집단은 어로에만 의존하는 일원화된 생업 방식이 아니라, 주변 환경에서 획득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복합적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수산물은 곡물에 비해 열량 및 저장 측면에서 식량 자원으로서의 효용이 낮은 편이므로 어로 활동만으로 일상적인 식생활을 충족시키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유적에서 출토된 어패류의 계절성이 주로 겨울과 봄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해당 지역의 어로 활동에 계절적 제약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해석된다.

따라서 고성지역의 정착 생활은 해양 생태계를 기반으로 한 취락 구조를 띠고 있지만 어로 위주의 생계유지는 어려우므로 타 생업 활동과의 병행이 필수적이었던 복합 생업 체계를 형성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고성지역의 어로집단은 전업 어민이라기보다는 농경 등 타 생업 활동을 병행한 겸업 어민으로 이해된다. 다시 말해, 생업 활동의 중심은 어로보다는 농경이 주를 이루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어로는 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했을 가능성 크다.

이러한 해석은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예컨대, 동외동 유적에서 탄화미(曹鍾擇 1984)와 울대리 고분에서 확인된 쇠낫, 연당리 고분에 출토된 쇠도끼 및 살포 등 농공구류의 존재는 고성지역 정착민들이 농경 중심의 생업 활동에 기반

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동 수단과 식량 저장 기술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해산물은 곡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낮게 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고정성 패류의 집중적 채취는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한 전략적 행위였을 가능성이 크다. 농경 사회에서는 기후나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농업만으로 식량 수요를 완전히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어패류 등 자연 식량 자원을 병행 활용하는 생계 전략이 일반적으로 채택되었다. 특히 고성지역에서 확인된 어패류의 출토 양상을 살펴볼 때, 어망 등을 이용한 집단적 어로 방식보다는 소규모 개인 단위의 채취 활동이 중심이었음을 시사한다. 즉, 소규모 어로 활동은 불안정한 식량 경제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적 필요에 따른 어로의 형태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패류의 생태적 특성과 채취 가능 시기를 고려할 때, 주요 어로 활동은 11월에서 12월, 그리고 이듬해 4월까지의 시기에 집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실은 주요 패류인 굴·고등류·홍합 등의 채취 시기와 가오리·참돔·농어 등의 어획 시기가 늦가을에서 봄에 해당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농한기에 효율적인 노동력 배분을 통해 여유 인력을 다른 생산 활동에 투입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고성지역 정착집단의 복합적이고 유연한 생계 전략을 반영하는 자료로 평가된다. 이러한 조건들을 고려할 때, 고성지역 어로집단은 농경을 기반으로 하면서 어로를 병행하는 ‘겸업 어민’ 형태를 유지하였음을 이해할 수 있다.

V. 맺음말

앞서 삼한·삼국시대 고성지역의 어로문화를 살펴보았다. 고성 동외동 유적은 일제강점기 이후 수차례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유적이다. 그러나 어로와 관련된 연구 자료는 상대적으로 정제된 실정이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최근까지 보고된 자료를 종합하여 당시 어로문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고성지역에서는 직구침 형태의 낚싯바늘과 소량의 어망추가 확인되었다. 유적에서 출토된 패류는 주로 조간대와 조하대에 서식하는 종들로, 굴·고등류·바지락·홍합 등이 확인되었다. 어류는 연골어류인 상어류 및 가오리류와 경골어류의 참돔과 농어가 확인되었다.

고대 고성지역의 어로 활동은 내수면 어로의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출토된 어로구 및 어종을 통해 살펴보면, 패류는 고정성 패류가 주를 이루며 내만의 갯벌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패류 채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어류 포획은 전문성이 강조된 직구침 형태의 낚시바늘을 통해 연안과 기수역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동외동 유적의 입지는 동시기 남해안 패총의 입지와는 차이를 보인다. 대다수 남해안 패총은 하나의 내만에 위치하는 반면, 동외동 유적은 고성만과 당항만이라는 두 개의 내만에 인접하여 어로 활동을 영위하였다. 또한 어획지로의 이동에는 도보와 송학천을 통한 하천 이동이 병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포획 대상인 굴은 근대 어업 보고서의 기록을 바탕으로 나무집게를 이용해 채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어획된 어패류는 거주지까지 운반되어 소비되거나 젓갈 등의 발효식품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어로 양상을 종합해 볼 때, 고성지역의 어로집단은 농업을 병행하는 겸업 어민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어로활동과 농업을 효율적으로 병행하며 생산적인 생계 방식을 유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으로 삼한·삼국시기 고성지역의 어로문화를 밝히기 위해 유적 출토 자료와 관련 기사 및 보고서 등을 비교·검토하였다. 다만, 검토 과정에서 일부 세부 사항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타 유적과의 체계적인 비교·분석이 미흡한 점도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를 통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투고일 2025. 8. 26 | 심사완료일 2025. 9. 17 | 게재확정일 2025. 10. 10

참고문헌

『삼국사기』.

경상문화유산연구원, 2025, 『고성 동외동 유적』.

고은별, 2023, 「고성 동외동유적 출토 동물유존체」, 『固城 東外洞 遺蹟』, 三江文化財研究院.

곽종철, 2003, 「가야의 생업」, 『가야고고학의 새로운 소명』,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국립수산과학원, 2024, 『한국어구도집』.

국립중앙박물관, 1992, 『固城貝塚 發掘調査報告書』.

國立晉州博物館, 2003, 『固城東外洞遺蹟』.

국립해양생물자원관, 2022a, 「Ⅰ. 해양척추동물」, 『2022 국가 해양수산생물종 목록집』.

_____, 2022b, 「Ⅱ. 해양무척추동물」, 『2022 국가 해양수산생물종 목록집』.

권용태, 2007, 「소가야지역 분구묘의 형성과정 연구」, 『아의고고학』2, 한국매장문화재협회.

김건수, 1996, 「郡谷里貝塚出土 반지락의 季節性 檢討」, 『한국상고사학보』23권.

_____, 1999, 『한국 원시·고대의 어로문화』, 학연문화사.

_____, 2001, 「가도패총출토 자연유물 보고」, 『가도패총』, 충남대학교 박물관·한국토지공사.

_____, 2008, 「선사·고대 유적 출토 홍어류 고찰」, 『도서문화』제24집.

김규운, 2018, 「고고자료로 본 소가야의 권역과 변천」, 『한국고대사연구』92.

金在弘, 2015, 「三國時代 漁具의 地域性과 階層性」, 『武器·武器와 農工具·漁具』韓日交涉의 考古學-三國時代·古墳時代-第2回 共同研究會.

김정옥, 2010, 「마도 1호선 발굴 유물과 고려시대의 식생활」, 『태안마도1호선, 수증발굴보고서3』,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김정운, 2021, 「송학동고분군 일대 해수면 변동과 지형발달과정」, 『고성 松鶴洞古墳群에 대한 比較考古學』, 고성군·(재)삼강문화재연구원.

김지민, 2024, 『생선바이블』, 북커스.

김태식, 2000, 「역사적으로 본 소가야의 정치체」, 『묘제와 출토유물로 본 소가야』,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남종영, 2024, 『다정한 거인: 평화를 부르는 고래의 생태·사회사』, 곰출판.

농상공부 수산국(이근우·서경순 역), 2023a, 『한국 수산지 I-1』, 산지니.

_____, 2023b, 『한국 수산지 II-2』, 산지니.

동서문물연구원, 2012, 『마산 현동유적 I』.

동아대학교박물관, 1984, 「고성 동외동 패총」, 『上老大島』.

_____, 2005, 『固城松鶴洞古墳群』.

_____, 2006, 『固城邑城址』.

박승규, 2005, 「小伽耶圈의 토기변동과 대외교섭」, 『加耶의 海上勢力』, 김해시.

박종오, 2014, 「섬진강유역 강어로(江漁撈)의 문화적 의미-강굴채취 어로방식과 의례의 변화를 대상으로」, 『남도민속연구』제29집.

백승옥, 1997, 「古城 古自國의 형성과 변천」, 『韓國 古代社會의 地方支配』, 신서원.

_____, 2018, 「가야지역국가 '古自國'의 재검토」, 『소가야의 고분문화와 대외교류』,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三江文化財研究院, 2023, 『固城 東外洞 遺蹟』.

_____, 2024, 『固城 東外洞 遺蹟 II』.

- 소배경. 2022. 「남해안의 高地性集落と 環壕」, 『貝塚. 環壕 그리고 防禦』.
- 안덕임. 2017. 「참돔 비늘의 성장성 분석을 이용한 고남리 패총의 어로 및 점유 계절성 연구」, 『한국상고사학보』95, 한국상고사학회.
- 여창현. 2023. 「고고자료로 본 3~6세기 고성지역 정치체의 성장과 변천」, 『영남고고학』제96호.
- 예소원. 2019. 『바다낚시 첫걸음(上)』.
- 유병일. 2012. 「어류와 해서포유류의 포획방법에 대한 연구-영남지역 삼한·삼국시대 패총자료를 중심으로-」, 『야외고고학』제15호, 한국메장문화재협회.
- 이동희. 2023. 「제장(祭場)으로 본 동외동유적」, 『영남고고학』제97호.
- 이영덕. 2006. 「서·남해안 신석기시대 어로구와 어로방법」, 『신석기시대의 어로문화』, 동삼동패총전시관.
- 이용현. 2007. 「안압지 목간과 동궁(東宮) 주변」, 『역사와 현실』65호, 한국역사연구회.
- 이충민. 2011.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포유동물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형기. 1997. 「小加那聯盟體의 成立과 그 推移」, 『民族文化論叢』17.
- 제임스 C.스콧. 2019. 『농경의 배신』, 책과함께.
- 曹鍾擇. 1984. 「炭化米의 稻型 鑑別」, 『上老大島』.
- 하승철. 2018. 「고성 송학동고분군과 고자국」, 『문물연구』34.
- 하인수. 2006. 「동남해안지역의 신석기시대 어로구」, 『신석기시대의 어로문화』, 동삼동패총전시관.
- 한겨레문화재연구원. 2012. 『固城 松鶴里 309-1番地 遺蹟-고성도서관 신축부지 내 유적-』.
- 해동문화재연구원. 2022. 『고성 송학리 309-1번지 유적』.
- 허재혁. 2005. 「포상팔국의 원인과 성격-김해지역 정치세력의 성쇠와 교역-」, 『加那의 海上勢力』, 김해시.

[인터넷자료]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담수생물다양성정보포털(<https://fbp.nmibr.re.kr/portal/>)

Fishing Culture in the Goseong Region during the Samhan and Three Kingdoms Periods

- Focusing on the Dongoe-dong Site in Goseong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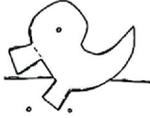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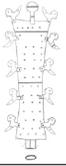
Lee, Su-Yeon (Curator, Gijang-gun)

This study analyzes the fishing culture of the Goseong region during the Samhan and Three Kingdoms periods by examining archaeological data centered on the Dongoe-dong site in Goseong. Although multiple excavations have been conducted at the Dongoe-dong site since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research specifically focusing on fishing-related aspects has remained relatively stagnant.

Fishing tools unearthed in the Goseong area include straight-shank fishhooks and a small number of net weights. The shellfish assemblage predominantly consists of sessile intertidal and subtidal species such as oysters, turban shells, clams, and mussels. Fish remains include cartilaginous fish such as sharks and rays, as well as bony fish including sea bream and sea bass. Through this, it can be inferred that fishing activities in the Goseong area primarily exhibited characteristics of inland water fishing, with line fishing using straight-shank hooks conducted in coastal brackish waters.

Unlike contemporaneous shell midden sites along the southern coast, the Dongoe-dong site is located adjacent to two inland bays, which likely facilitated efficient fishing activities. The main target species, oysters, are presumed to have been harvested using wooden tongs. The species diversity of shellfish and fish identified at the Dongoe-dong site tends to be relatively lower compared to other shell midden sites along the southern coast. Considering these conditions, it can be understood that the fishing community in the Goseong area maintained a form of 'mixed-livelihood fishermen' combining agriculture-based livelihoods with fishing.

Key words : Dongoe-dong site, Mixed-livelihood fishermen, Sessile mollusks, Inland water fishing, Fishing



구분	구분명	수량	비고
1	철판	1점	경주지역 출토
2	철판	1점	경주지역 출토
3	철판	1점	경주지역 출토
4	철판	1점	경주지역 출토
5	철판	1점	경주지역 출토
6	철판	1점	경주지역 출토
7	철판	1점	경주지역 출토
8	철판	1점	경주지역 출토
9	철판	1점	경주지역 출토
10	철판	1점	경주지역 출토

咸安地域 鳥形裝 鐵板儀器 研究

The Study on Iron-plate Ritual Utensil with Bird Decorations in Haman region

배효원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학예연구사

- I. 序言
- II. 研究史
- III. 鳥形裝 鐵板儀器的 分類와 編年
- IV. 鳥形裝 鐵板儀器的 用途와 副葬 意味
- V. 結語

국문 요약

함안과 합천지역의 유자이기는 영남지역 전역에서 출토되는 유자이기와는 형태가 확연히 구분되므로 다수의 연구자에 의해 異形有刺利器로 분류되어 왔다. 최근 함안과 합천지역 출토 유자이기의 명칭을 둘러싼 논의가 지속되었으며 특히 조형 장식에 주목하여 조형장식 유자이기, 조형장 철판의기 등의 명칭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본고에서는 조형장식이 부착된 함안지역의 유자이기를 분석하여 鳥形裝 鐵板儀器로 명명하고 용도와 부장 의미에 대해 검토하였다.

함안지역의 조형장 철판의기는 말이산 고분군에서만 출토된다. 이는 당시 함안지역의 중심 고분군이 말이산 고분군이었음을 뜻한다. 또한, 중심고분군 중에서도 최고 위계의 무덤에만 부장된 점은 신분을 나타내는 위세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함안지역 중심 고총고분군의 위세품인 조형장 철판의기의 분석을 통해 아라가야 위세품의 기원과 용도, 부장 양상과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영남지역 전역의 유자이기가 3세기대에 출현하여 6세기 말까지 존속하였던 것과는 달리 함안 말이산 고분군의 조형장 철판의기는 5세기에 출현하여 6세기 2/4분기에 완전히 소멸한다. 조형장 철판의기의 소재는 鐵鈹으로, 5세기 1/4분기부터 대형 철정이 매납되기 시작하며 5세기 중~후반에 대량으로 매납되다가 조형장 철판의기의 철판 형태가 세장방향으로 변화하는 6세기대에 철정이 매납되지 않는 양상을 통해 조형장 철판의기의 제작소재가 철정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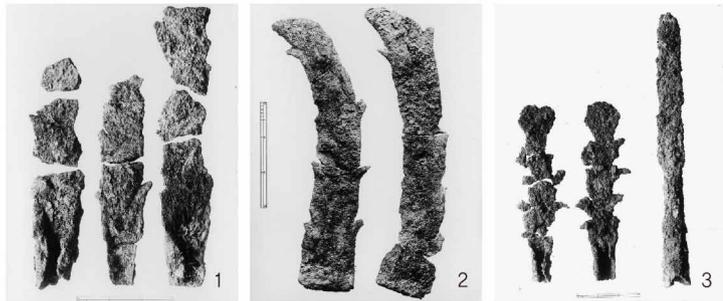
조형장 철판의기는 세모양 장식을 통해 사후세계에 대한 관념을 반영하고 방울 등을 달아 소리를 냈던 장승의례나 巫俗에 사용된 기물이었다. 5세기에 대형철정과 함께 대형분에 매납되며 6세기 2/4분기에 소멸한 양상은 고총고분문화의 흥망성쇠와 궤를 함께한 의례·종교적 위세품, 즉 아라가야의 상징물임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함안, 말이산 고분군, 조형장 철판의기, 유자이기, 새 장식

I. 序言

영남지역 고분에는 다양한 鐵器가 부장되는데, 그 중 신라와 가야의 고분에서만 보이는 독특한 철판형태의 철기를 有刺利器라고 한다. 유자이기는 넓은 철판 한쪽에 투겁(投斧)을 만들어 자루에 끼워 쓸 수 있도록 만든 板狀鐵器로 가장자리에 가시가 돋쳐있어 ‘미늘쇠’라고도 한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15). 板狀의 身部 양옆에 刺가 부착되어 있는데 가시의 형태 외에도 蕨手文,¹⁾ 鳥形裝飾 등이 부착된 모든 형태의 철기를 통칭하여 유자이기라 한다.

유자이기에 대한 가장 이른 기록은 1924년에 발굴조사된 금령총 발굴조사보고서에서 확인된다. 보고 당시, 측면의 棘을 특징으로 하여 본



[사진 1] 1924년 발굴조사된 유자이기(1·2: 금령총, 3: 식리총) 국립중앙박물관 유리건판 사진

체가 鎌의 형태를 띠는 것을 鐵製有棘鎌形利器, 본체에 鑿部가 있는 것을 鐵製有棘袋穗利器라고 명명한 것(朝鮮總督府 1931, 1932)이 최초의 기록이다. 조사 당시에는 꺾수문 장식이 부착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고 날카로운 刺가 부착된 개체가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무기적 성격을 고려한 명칭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발굴조사 자료가 축적되면서 날카로운 刺를 이용해 상대를 찌르거나 말 위의 병사를 갈고리로 끌어내리는 등 무기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박진욱 1963; 李殷昌 1972; 金基雄 1976)되었고 이는 유자이기의 무기적 성격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다.

이후, 꺾수문 장식이 부착된 유자이기의 자료가 점차 보고되면서 이를 단순한 무기보다는 儀器(東潮 1998; 류창환 2012; 金榮珉 2008; 徐焄男 2013)로 해석하는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특히 조형장식이 더해져 장식성이 극대화 된 유자이기와 가

1) 蕨手文, 雲氣文, 螺旋文, 渦文, 소용돌이문, 同心圓文 등 선사·고대부터 모두 같은 형태의 문양을 지칭하는 용어로 유자이기에 부착된 입체적인 형태의 문양을 꺾수문으로 지칭한다(李在賢 2012).

시형 刺나 鍔수형 장식
식이 부착된 유자이
기를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명칭을 제안
(金訓熙 2011)하거
나, 아예 다른 성격의
유물로 구분하여 별
도의 용어를 사용할
것을 주장하는 연구
(趙榮濟 2011; 류창
환 2012) 또한 계속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사진 2] 영남지역 고분 출토 유자이기
(1: 부산 동래북천동11·10호분, 2: 경주 구정동 145-1, 3: 함안 말이산13호분)

이에 필자는 함안과 함천지역에서 출토되는 유자이기의 형태가 기존의 鍔수형·
가시형 刺가 부착된 유자이기와는 뚜렷이 구별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有刺
利器’라는 용어 자체에 ‘무기’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 영남지역 전역에 출토되는 유
자이기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조형장식이 부착된
유자이기는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고에서
는 함안지역에서 출토된 조형장식이 부착된 유자이기를 중심으로 기존 용어를 대체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조형장식 鍔판의기의 용도와 부장 양상, 부장 의미 등을 중
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研究史

유자이기는 1924년 금령총 발굴조사에서 측면의 棘을 특징으로 하여 본체가 鍔
의 형태를 띠는 것을 鐵製有棘鍔形利器, 본체에 鍔部가 있는 것을 鐵製有棘袋穗利器
로 보고(朝鮮總督府 1931, 1932)되었다. 조사 당시에는 날카로운 刺가 부착된 개체
만 확인되었기 때문에 무기로 인식하여 유자이기라 보고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후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발굴조사 자료가 증가하면서 날카로운 刺를 이용하여 상대
를 찌르거나 말 위의 병사를 갈고리로 끌어내리는 무기(박진욱 1963; 李殷昌 1972;

金基雄 1976)로 인식되었다.

영남지역의 발굴조사 자료가 축적되면서 유자이기에 대한 정의와 성격 규정도 새롭게 이루어졌다. 金東鎬(1971)는 鐵鋌의 한쪽 끝을 좌우로 筒처럼 말아서 자루를 꽃도록 하고 다른 한쪽의 양 변을 도려내서 가지처럼 만든 것으로 보아 철정과의 관련성을 제시하였다. 東潮(1978)는 長方形의 철판을 성형해서 棘狀突起·穗袋部·銚先部를 만든 것으로 정의하고 그 기원을 北燕馮素弗墓의 鐵旗座에서 찾았다. 그는 유자이기를 무기가 아닌 新羅 貴族의 매장의례용 기물로 파악하였으며, 경주를 중심으로 한 낙동강 동안지역의 특징적인 儀器로 보았다.

徐始男·李賢珠(1997)는 영남지역에 출토되는 유자이기를 전수조사하여 소재와 부장시기, 용도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3세기에 출현하여 6세기 후반에 소멸하며 철정을 소재로 제작하였다고 보았으며 개인의 신분을 상징하는 정치·경제적 위 제품으로 보았다. 金榮珉(2000)은 鐵矛, 鐵劍, 鐵鎌, 鐵斧, 刀子, 異形鐵器 등에 蕨手形, 刺形 또는 鳥形의 장식이 있는 鐵製品을 통칭한다고 有刺利器를 정의하였다. 金訓熙(2011)는 형식학적으로 꺾수형 장식이 유자이기의 원형임을 지적하며 有刺라는 표현 대신 蕨手附儀器나 裝飾附儀器라는 명칭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²⁾ 趙榮濟(2011)는 함안 말이산 고분군과 합천 옥전 고분군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는 새모양 장식이 부착되거나 刺가 아예 없거나 퇴화된 형태의 異形有刺利器를 전형적인 유자이기와는 분리하는 의미에서 鳥形裝 鐵板儀器로 명명하였다.

유자이기의 기원에 대한 연구는 北燕馮素弗墓의 鐵旗座에서 찾는 견해(東潮 1978)가 있으나 板狀鐵斧에서 공부가 생겨 착장이 가능한 형태로 발전했다는 견해(李賢珠 1990; 金訓熙 2011; 金志勳 2014)가 주를 이루고 있다.

소재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제시되었다. 첫째, 형태에 착안하여 장방형의 철판으로 제작하였다는 견해(東潮 1978), 둘째, 교환·화폐의 가치를 가진 철소재인 板狀鐵斧로 제작하였다는 견해(東潮 1978; 宋桂鉉 1995), 셋째, 철정으로 제작하였다는 견해(金東鎬 1971; 朴東百·秋淵植 1987; 宋桂鉉 1995; 徐始男·李賢珠

2) 金訓熙는 형식학적으로 같은 계열의 선형 유물과 함께 본다면 가지모양을 지칭하는 有刺라는 용어보다는 그 형태의 시원이라고 볼 수 있는 蕨手型 장식이 있는 의기로 보는 것이 설득력을 가진다고 판단된다. 때문에 유자이기라는 용어보다 현재의 연구 성과에 맞는 명칭인 蕨手附儀器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보이는 자의 형태 중에 蕨手型 외에도 鳥形도 있으므로 裝飾附儀器가 더 포괄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용어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기존 학계에서 통용되는 유자이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라고 유자이기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를 언급하고 있다.

1997)이다. 최근에는 발굴 자료의 분석을 통해 초현기의 유자이기는 판상철부로 제작하고 이후에는 철정으로 제작하였다는 견해(李賢珠 1990; 金訓熙 2011; 金志勳 2014)가 받아들여지고 있는 듯 하다.

유자이기의 편년 연구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3세기대에 출현하여 6세기 후반에 소멸한다고 보았다(李賢珠 1990; 徐始男·李賢珠 1997; 東潮 1998; 金訓熙 2011; 金志勳 2014).

용도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무기로 해석되었으나 자료가 축적됨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초기에는 제한적인 자료를 통해 무기로 보는 견해가 주를 이루었다. 이후 깃봉(宋桂鉉 2001), 행차용 장엄구(조원창 2017)와 같이 실용기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장송의례용 의기(東潮 1998; 류창환 2012; 金榮珉 2008; 徐始男 2013), 개인의 신분을 상징하는 위세품(徐始男·李賢珠 1997; 金榮珉 2008; 趙榮濟 2011; 徐始男 2013; 金志勳 2014; 金訓熙 2011, 2018) 등 상징적·의례적 성격을 강조하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또한, 巫的 성격이 강한 제사장이나 왕자와 같은 특수한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물(林孝澤·郭東哲 2000)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최근에는 함안 말이산 고분군과 합천 옥전 고분군에서 출토된 조형 장식이 부착된 유자이기를 가시가 퇴화되거나 아예 없는 형태 또는 새모양 장식이 부착되어 함안·합천의 지역성이 강한 유자이기로 異形有刺利器(趙榮濟 1988; 李賢珠 1990; 徐始男·李賢珠 1997; 宋桂鉉 2003; 金榮珉 2008; 金訓熙 2018)로 파악하거나 鳥形裝飾有刺利器(金訓熙 2018), 鳥形裝鐵板儀器(趙榮濟 2011; 류창환 2012) 등으로 명명하기도 하였다. 화려한 새 장식은 내세와 관련되거나(徐始男·李賢珠 1997; 金榮珉 2008), 함안지역 정치체를 대표하는 위세품이자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징물로 해석되었다(宋桂鉉 2003; 趙榮濟 2011; 金訓熙 2018).

이와 같이 유자이기에 대한 용어가 적절치 않음은 끊임없이 지적되었으며 함안과 합천지역의 유자이기를 鳥形裝鐵板儀器로 명명하거나(趙榮濟 2011) 함안과 합천지역의 유자이기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의미의 裝飾附儀器로 명명(金訓熙 2011)하기도 하였다.

정리하면, 유자이기는 판상철부에서 철정을 소재로 제작하였으며 판상의 신부 좌우에 꺾수형·가시형·조형 장식의 刺가 부착된 철기로 3세기대~6세기대에 깃봉이나 행차용 장엄구 등 실용기로 사용되거나 매장 의례에 사용된 儀器로 개인이나 집단의 정치·경제적 권력을 상징하는 위세품 또는 신분을 나타내는 의미로 부장된 철기

정도로 파악할 수 있을 듯 하다. 최근 연구에서는 용어의 명칭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며 ‘蕨手附儀器’, ‘裝飾附儀器’ 등 모든 출토품을 포괄할 수 있는 용어를 제안하거나 함안과 함천지역의 출토품을 ‘異形有刺利器’, ‘鳥形裝飾 有刺利器’, ‘鳥形裝 鐵板儀器’ 등으로 구분하여 부르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필자도 유자이기라는 사전적 명칭에 무기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명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형태를 포괄한 裝飾附儀器 등의 용어 사용이 적절할 수도 있겠으나 유자이기라는 용어의 상징성으로 인해 다른 용어가 통용되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되어 추후의 과제로 남겨두고, 본고에서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異形有刺利器’로 구분하는 함안과 함천지역의 유자이기 중 함안지역 출토품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우선 조형장식과 대형철판으로 구성된 함안지역 유자이기의 형식학적 분석을 통해 조형 장식의 의미를 살펴보고 기존의 용어 대신 ‘鳥形裝 鐵板儀器’로 명명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을 한정하면 조형 장식이 부착된 함안지역 鳥形裝 鐵板儀器的 명칭과 용도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조형장 철판의 시기와 양상, 부장 의미 등 다양한 연구를 통해 연구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

Ⅲ. 鳥形裝 鐵板儀器的 分類와 編年

함안지역 무덤에서 출토된 조형장 철판의기는 모두 함안 말이산 고분군에서 확인된다. 함안 말이산 고분군은 1,000여기³⁾ 이상의 중·소형 분묘가 밀집 분포한 대규모 묘역으로 아라가야(안라국)의 중심 고분군이다. 1963년 함안도항리고분군과 함안말산리고분군으로 각각 지정·관리되다 2011년 ‘함안 말이산 고분군’으로 통합 지정되어 국가사적으로 보존·관리되고 있다. 2023년 9월에는 가야고분군 7개 중 하나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함안 말이산 고분군은 일제강점기부터 학술 조사가 이루어졌다. 1910년 세키노 다

3)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에서 2014년에 실시한 정밀지표조사 결과에 따르면 봉분 127기와 봉분이 없는 고분 299기를 확인하였으며 2014년 이후 시·발굴조사 자료가 축적됨에 따라 봉분 2기와 봉분이 없는 고분 50여기 이상이 추가로 조사되어 500여기가 확인되었으며 1,000여기 이상이 분포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시(關野貞)가 최초로 지표조사를 실시하였고, 1914년 도리이 류조(鳥居龍藏)가 39호분(現1호분)을 발굴조사하였다. 이어 1917년 이마니시 류(今西龍)가 5·34호분(現25·現4호분)의 발굴조사와 함께 봉토분에 대한 일련번호를 부여하였고, 1918년에는 야쓰이 세이이치(谷井濟一)가 1·2호분(現13·現12호분)을 조사하였다(裴孝元 2022).

해방 이후에는 국립문화유산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학술조사가 이루어졌다. 1981년 가야문화권 학술조사의 일환으로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現 가야문화유산연구소)의 학술발굴조사가 진행되었으며⁴⁾ 2014년에는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에서 실시한 정밀지표조사를 통해 봉토분 127기를 확인하였다(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 2014). 이 외에도 여러 기관에서 [도면 1]과 같이 지속적으로 발굴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함안 말이산 고분군은 4세기부터 6세기대까지 아라가야의 중심지로서 함안양식의 토기문화를 꽃피웠다. 4세기에는 철제 무기류와 농공구류, 마구류가 부장되었으며, 5세기대에는 철제 갑주와 무기, 마구, 의기, 농공구 등 가야고분에서 확인되는 모든 종류의 철기류가 부장된다(柳昌煥 2012). 현재까지 발굴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할 때, 유자이기로 보고되었던 조형장 철판의기는 모두 54점으로 목곽묘 12기에서 16점, 석곽묘 28기에서 38점이 출토되었다.⁵⁾ 본 장에서는 함안 말이산 고분군 출토 조형장 철판의기의 속성을 분석하여 형식을 설정하고 시기별 특징을 검토하고자 한다.

1. 型式分類

조형장 철판의기는 길이 40cm 내외, 두께 0.1~0.2cm의 얇은 철판으로 제작된다. 철판에는 조형 장식을 오려 단접하거나 리벳으로 고정하여 부착함으로써 장식성을 극대화하였다. 이로 인해 조형장 철판의기는 다른 철기유물에 비해 원형으로 출토되는 경우가 드물다. 또한 함안 말이산 고분군의 무덤은 도굴이나 교란으로 훼손된 경

4) 國立昌原文化財研究所, 1996, 『咸安 岩刻畫古墳』.

國立昌原文化財研究所, 1997·1999·2000·2001·2004, 『咸安 道項里古墳群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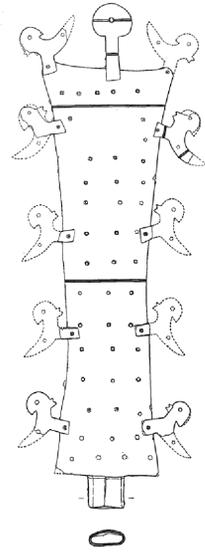
國立昌原文化財研究所, 2001, 『咸安 馬甲塚』.

5) 현재까지 발굴조사보고서에 보고된 유물을 기준으로 하였다.

우가 많아 파편만 남아 불명철기로 보고되는 등 확인이 어렵거나 조형 장식이 남아있더라도 세부적인 속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원형이 아니어도 전체적인 형태를 유추할 수 있고, 길이나 너비 측정(추정)이 가능한 경우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조형 장식 또한 한 개체에는 같은 모양의 조형 장식만 부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형태의 추정이 가능한 조형 장식이 확인 될 경우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그 결과, 현재 보고된 54점 중 분석이 불가능한 10개체를 제외한 목곽묘 12기 16점, 석곽묘 18기 28점, 총 44점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이 불가능한 개체도 10점 또한 분석 가능한 속성은 참고자료로 활용하였으며 부장 위치나 부장 양상 등도 함께 검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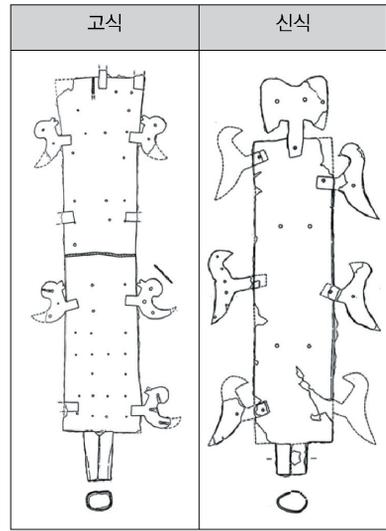
[도면 2] 조형장 철편의기(고13)

1) 屬性 分析

조형장 철편의기는 영남지역 중에서도 함안지역에서만 확인되므로 지역과 공간에 대한 특성보다는 시간성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조형장 철편의기의 선행연구(趙榮濟 2011; 金訓熙 2018)를 검토하여 문제점은 보완하고 유의미한 속성은 반영하여 본고의 분석에 적용하였다.

趙榮濟(2011)는 함안 말이산 고분군에 철편이 다량 매납되는 점을 근거로 조형장 철편의기의 제작 소재를 철정으로 파악하였다. 신부 양면에 돌기상의 刺가 형성되지 않고 반드시 조형 장식품이 부착되며, 선단부에 몸체의 일부를 재단하거나 특이한 형태의 철편을 별도로 부착한 것으로 보았다. 조형 장식은 새의 부리가 긴 것과 짧은 것, 주둥이가 벌어진 것과 꼭 다문 것, 부리를 형상화한 것으로 나누었고 조형 장식이 형상화·추상화된 것이 비교적 늦은 시기인 5세기 4/4분기 이후에 출현하는 것으로 보았다. 새의 꼬리는 끝부분이 약간 말린 것, 수직으로 솟은 것, 비스듬하게 올라간 것, 수평을 이룬 것으로 분류하였으며 다양한 형태의 것이 비슷한 시기에 출현하였으나 말린 것에서 수직을 이룬 것, 그리고 비스듬한 것이나 수평을 이룬 것의 순서로 소멸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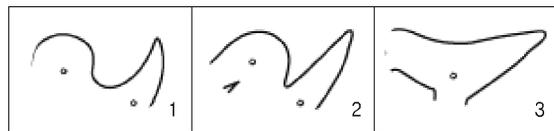
金訓熙(2018)는 조형 장식의 형태를 기준으로 고식과 신식으로 구분하였다. 고식은 조형 장식의 전체적인 형태가 'U'자상으로 휘어져 있으며, 부리의 형태가 다변화하는 반면 신식은 전체적인 형태가 고식보다는 수평적으로 완만하게 휘어지며 부리의 모양이 단순한 것을 특징으로 보았다. 또한 고식에서 신식으로의 변화가 계기적 변화 없이 단절된 양상을 보이는 점으로 보아 고식 18점, 신식 6점을 다른 기종으로 보고 따로 분석한 결과 고식은 5형식, 신식은 3형식으로 설정하고 시간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⁶⁾ 고식과 신식을 합하여 24점을 8개의 형식으로 세분한 결과 고2형식과 신1형식은 1점밖에 확인



[도면 3] 고식과 신식 조형장 철판의기 (金訓熙 2018 轉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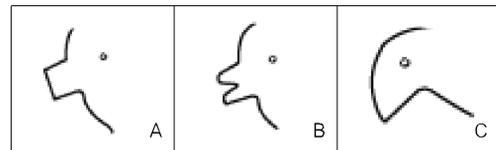
되지 않았고, 고1형식이 초현하고, 2기에서는 고1형식과 함께 고2·3·4형식이 공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4기에서도 고5형식과 신1·2형식이 함께 출현하여 공반되는 양상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선행연구의 검토 결과 철판의 형태가 확연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변화인지 계통의 변화인지 밝히는 것에 초점을 두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조



[도면 4] 꼬리형태 속성

형 장식의 속성을 통해 시간성을 간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철기유물의 부속 장식인 점을 감안하여 너무 세분하게 되면 형식만 난립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형태적으로 확연히 구분되는 꼬리 형태와 부리 형태의 분석을 통해 시간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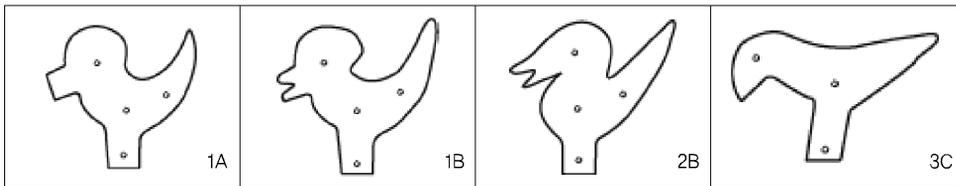


[도면 5] 부리형태 속성

6) 金訓熙(2018)는 말이산 고분군에서 출토된 조형장식 유자이기라는 점에서 크기는 같은 기종으로 볼 수 있지만, 명확히 구분되는 고식과 신식을 아기종으로서 구분하지 않고 혼합하여 크게 보이는 기종으로 분류한다면 속성 분석에서 방향성을 간취할 수 없기 때문에 고식과 신식이라는 명칭을 부여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조형 장식 중 꼬리 형태(도면 4)는 머리에서 꼬리까지 'U'자와 같이 곡선적으로 이어지며 꼬리는 안으로 약간 말린 형태(1)⁷⁾와 머리에서 꼬리까지 'V'자와 같이 꺾여서 직선적으로 뺀 형태(2), 머리에서 꼬리까지 수평 혹은 와 비스듬하게 뺀 형태(3)로 나누었다. 부리 형태(도면 5)는 다물어진 형태(A)⁸⁾와 벌어진 형태(B), 부리가 형상화되어 머리와 부리가 구분이 안되는 형태(C)로 분류하였다.

조형 장식의 꼬리 형태와 부리 형태의 속성을 조합하면 [도면 6]과 같이 4가지로 조합된다. 1A식은 꼬리 형태 1과 부리 형태 A의 조합으로 부리를 다물고 둥근(혹은 뒷통수가 각진) 머리의 형태와 곡선적으로 뺀 꼬리의 형태로 18점이 확인된다. 1B 식은 꼬리 형태 1과 부리 형태 B의 조합으로 1A의 형태와 비슷하나 부리가 벌어진 형태이며 8점이 확인된다. 2B식은 꼬리 형태 2와 부리 형태 B의 조합으로 부리가 길쭉하게 벌어진 형태이며 머리에서 꼬리까지 'V'자로 꺾여서 직선적으로 뺀 꼬리의 형태이며 7점 확인된다. 3C식은 꼬리 형태 3과 부리 형태 C의 조합으로 전체적으로 새가 형상화된 형태로 11점이 확인된다. 각 형식 간에는 뚜렷하진 않으나 시간성이 간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도면 6] 조형 장식의 속성 조합

그 외에도 철관 선단부의 장식, 철관 내부의 투공, 조형 장식의 머리-꼬리의 형태와 결합방법·개수, 공부의 형태 등의 속성을 검토하였다. 특히 조형 장식 머리-꼬리의 형태는 [도면 6]의 1A의 둥글게 곡선으로 이어진 형태, 1B의 뒷통수 90° 이상 꺾인 후 꼬리까지 곡선으로 이어진 형태, 2B의 뒷통수와 꼬리가 급격히 꺾여 올라간 형태로 분류(金訓熙 2018)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고파괴분, 문마석1호, 두45호분, 문44호 등 조형 장식의 잔존양상이 불명확하여 실측 도면에만 의존해야하는 점과 분류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점 등으로 인해 본고의 분석에서는 제외하였으나 같은 형식 내에서는 뒷통수가 둥근 형태가 뒷통수가 90° 이상 꺾인 형태보다 선행하는

7) 약간 안으로 말린 형태가 대부분이나 직선적으로 뺀 형태도 같은 범주에 포함하였다.

8) 부리가 길쭉하게 뺀 형태도 확인되어 같은 범주에 포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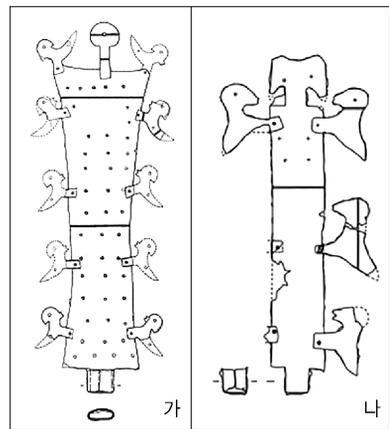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철판 선단부의 장식은 양 끝단에 조형 장식 2개를 부착(3점)하거나 원형의 장식을 선단부 중앙부에 부착(3점)한다. 조형 장식 2개와 원형의 장식을 함께 부착하는 경우(8점)가 더 많으며 조형 장식의 꼬리를 등에 맞댄 듯한 형상의 장식(8점)도 확인된다.

철판 내부의 투공은 신부의 형태는 상단이나 하단이 중앙부보다 넓은 형태(가)에 3열(주로 3열로 배치되나 2열 또는 4열 이상으로 뚫린 것도 확인된다.)로 배치되며 길쭉한 세장방형의 철판(나)에는 2열로 배치된다. 조형 장식의 결합방법은 리벳으로 고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단접하거나 일체형으로 제작되는 경우도 확인된다. 조형 장식의 개수는 철판 (가)에는 한 쪽 면에 3~5개가 부착되었으며, 철판 (나)에는 한 쪽 면에 3개씩 부착된다. 공부의 형태는 착장하기 위해 길게 제작된 것이 대부분이나 공부의 형태만 남은 것도 확인된다.

부장 양상을 간단히 살펴보면 목곽묘와 석곽묘 모두 주로 대형분에서 출토되며 석곽묘의 출현기에 해당하는 5세기 전반대의 유구 중에는 중형분에도 부장되는 양상이 확인되는 점은 참고할 만하다. 부장위치 또한 피장자의 측면이나 머리 쪽 혹은 발치 쪽에 주로 부장되는 것이 확인된다.

신부의 형태는 상단이나 하단이 중앙부보다 넓은 형태(가)와 길쭉한 철판의 세장방형(나)으로 구분된다. (가)의 경우 신부 안쪽에 3열⁹⁾로 투공이 뚫려 있으며 선단부에 원형 장식이 부착되거나, 선단부의 양 끝단에 조형 장식 2개를 부착하기도 한다. (나)의 경우 신부 안쪽에 2열로 투공이 뚫려 있고 선단부에 조형 장식의 꼬리를 등에 맞댄 듯한 형상의 장식이 부착되어 있다.



[도면기 신부 형태 속성

조형 장식과 신부 형태의 속성을 조합해 보면 신부 형태 (가)가 조형 장식 I~III형식과 조합되고, 신부 형태 (나)는 조형 장식 IV형식과 조합된다. 따라서 신부 형태도 시간성이 확인되는 것을 알 수 있다.

9) 주로 3열로 배치되어 있으나 4~5열로 배치되어 있는 것도 확인되어 3열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표 1] 조형장 철판의기 일람표

형식	함안 말이산 고분군					수량	계측치		부장 위치	손장	새수	꼬리			부리			신부		선단부
	유구	묘제	묘광	곽	규모		길이	너비				I	II	III	A	B	C	가	나	
I	문36	목곽	670*285	455*165	대형	1	29.5	7.7	두부		3+	●			●			●		새2
	문44	목곽	385*150	330*90	중형	1	30.1	9.7	두부		3+	●			●			●		
	문3	목곽	620*270	520*190	대형	1	35.9	10.2	발치		3+	●			●			●		원+새2
	경목14	목곽	388*131	301*86	중형	1					3+	●			●			●		새2
	문48	목곽	760*430	540*200	대형	1	34.8	12.0	피장자		3+	●			●			●		
	문9	목곽	590*235	410*130	중형	1			수습		3?+	●			●			○		
	문마석1	석곽	(680)*(240)	520*100	대형	1	45.6	10.0	두부?		4+	●			●			●		원+새2
	두목1	목곽	844*426	614*248	대형	3			두부		3+	●			●			●		
	문39	석곽	870*400	650*160	대형	1			피장자		4+	●			●			○		
	고파	석곽	파손		초대형	2			장벽		3+	●			○			●		원+새2
	문38	석곽	1120*320	640*140	대형	1					4+	●			●			○		
	경57	석곽	890*380	600*140	대형	2	45.4	12.1	피장자	2	3+	●			●			●		원형
	경석1	석곽	670*250	530*110	대형	2	41.5	8.7		1	4/3+	●			●			●		원+새2
	경목13	목곽	423*157	352*89	중형	1	36.7	6.6	장벽		4+	●			●			●		원+새2
II	문10	목곽	710*330	480*180	대형	2	51.7	15.4	두부		4+	●			●		●		원+새2	
	두45	목곽	970*453	636*249	대형	1			두부		3+	●			●		●			
	문43	목곽	700*320	530*170	대형	1	29.9	9.7	피장자		3+	●			●		●			
	고13	목곽	650*250	520*150	대형	2	58.5	15	발치		4+	●			○		●		원+새2	
	경석18	석곽	664*228	476*104	중형	1					?+	●			●		○		원+새2	
III	우527-석2	석곽	790*282	612*147	대형	2	(41.5)	9.5	두부		4+	●			●		●		원형	
	HM8	석곽	1300*300	1100*185	초대형	2			두부		4+	●			●		●		새2	
	HM22	석곽	1400*450	900*180	초대형	1	41.0	9.8	수습		3+	●			●		●		원형?	
	HM15	석곽	1120*330	910*185	초대형	1	41.7	9.5	발치	4	4+	●			●		○			
	HM6	석곽	1400*470	980*170	초대형	1	44.1	14.9	곽상부	5	3+	●			●		○		조형	
IV	HM6	석곽	1400*470	980*170	초대형	1	40.5	15.3	곽상부	5	3+			●		●	○		조형	
	HM8	석곽	1300*300	1100*185	초대형	2					3			●		●	●		원형	
	HM6-1	석곽	900*270	700*170	대형	1	51.0	10.0	곽상부		3			●		●	●		조형	
	HM6-2	석곽	830*270	600*160	대형	1		7.5			3			○		○	●		조형	
	역451-1	석곽	1070*290	870*170	초대형	2			수습		3			●		●	●		조형	
	HM10	석곽	1030*380	880*164	초대형	1	45.0	7.5	손장자	2	3			●		○	●		조형	
	창14-2	석곽	750*210	675*125	대형	1	26.8	7.3	발치		3			●		●	●		조형	
	HM26	석곽	1320*370	1010*160	초대형	2	-	8.0			4	3			●		●	●		조형

(문: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고:경남고고학연구소, 경:경상문화재연구원, 창:창원대학교박물관, 역:경남연구원 역사문화센터, 동: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현:현재지정번호, HM: 현재지정동분 번호)

앞서 살펴본 속성 검토 결과를 [표 1]로 나타내었다. 표를 살펴보면 III형식의 신부 형태 (가) 중 원의 절반만 검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은 공부의 형태가 짧아서 착장보다는 형태만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하여 따로 표시하였다.

2) 型式分類

조형장 철판의기의 속성 중 시간성을 반영하는 조형 장식의 꼬리 형태와 부리 형태, 신부의 형태를 통해 형식을 설정하였다. I형식은 조형 장식 1A와 신부 형태 (가)의 조합으로 19점이 출토되었다. 4세기부터 이어진 대형의 목곽묘에 부장되며 5세기에 등장하는 석곽묘 중 대형분에 주로 부장된다. 목곽묘 중에서는 길이 3m대의 중형분에 3점 부장되나 주로 5m 이상의 대형분에 부장되는 양상을 보인다. 무덤마다 1점씩 부장되나 석곽묘인 고파괴분과 경57호분, 경석1호묘에서 2점씩 부장된 예도 있으며 두목1호묘에서는 3점이 출토되기도 하였다. 철판의 선단부에는 조형 장식 2개를 양끝단에 배치하거나, 중앙에 원형의 장식과 조형 장식 2개가 함께 부착되기도 하며 주로 피장자의 머리 부분이나 발치부분 쪽에 피장자와 함께 매납하였다.

II형식은 조형 장식 1B와 신부 형태 (가)의 조합으로 7점이 출토되었다. 대형의 목곽묘에 1점 혹은 2점씩 부장되었으며 중형의 석곽묘에도 부장된다. 철판의 선단부에는 중앙에 원형의 장식과 조형 장식 2개를 함께 부착하였으며 주로 피장자의 머리

[표 2] 목곽과 석곽의 위계에 따른 조형장 철판의기 출토 양상(上: 목곽, 下: 석곽, 金訓熙 2018 轉載)

묘의 규모	유자이기 부장 유물	유자이기○			유자이기×		
		갑주○ 마구○	갑주× 마구○	갑주× 마구×	갑주○ 마구○	갑주× 마구○	갑주× 마구×
대형		4	2	1	1	-	1
중형		-	-	3	-	-	20
소형		-	-	-	-	-	19

〈위계〉  : 상위,  : 중위,  : 하위

묘의 규모	유자이기 부장 유물	유자이기○			유자이기×		
		갑주○ 마구○	갑주× 마구○	갑주× 마구×	갑주○ 마구○	갑주× 마구○	갑주× 마구×
초대형		6	5	-	2	-	-
대형		1	4	1	3	3	2
중형		-	3	4	-	-	9
소형		-	-	-	-	-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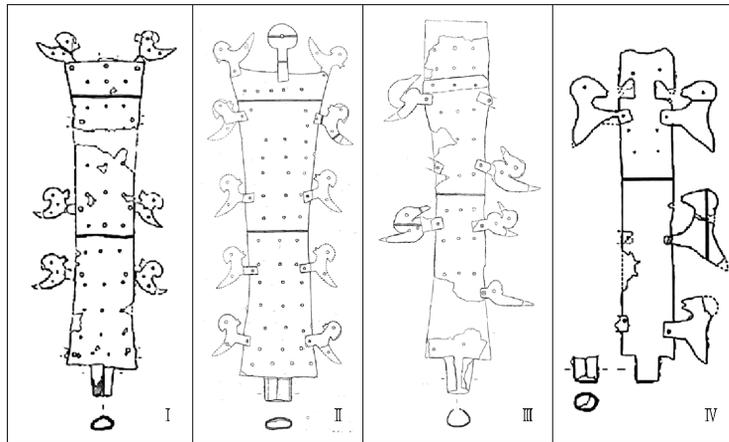
〈위계〉  : 최상위,  : 상위,  : 중위,  : 하위

나 발치부분 쪽에 피장자와 함께 매납하였다.

Ⅲ형식은 조형 장식 2B와 신부 형태 (가)의 조합으로 7점이 출토되었다. 목곽묘가 소멸한 시점으로 대형급 이상의 석곽묘에만 부장된다. 고총고분이 축조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초대형묘를 중심으로 부장되는 양상 또한 확인된다. 철관의 선단부에는 중앙에 원형의 장식 또는 양끝단에 조형 장식 2개를 부착하기도 하며, 조형 장식 2개를 등을 맞대고 붙여놓은 모습을 형상화한 장식을 가운데 배치하기도 한다. 주로 피장자의 머리나 발치부분 쪽에 피장자와 함께 매납하였다.

Ⅳ형식은 조형 장식 3C와 신부 형태 (나)의 조합으로 11점 출토되었다. 초대형의 석곽묘에만 부장되며 두부나 피장자의 옆에 부장되기도 하나 순장 공간 등에 부장되기도 한다. 철관의 형태는 폭이 좁은 세장한 형태로 변화하며 철관의 양측에는 조형 장식이 형상화된 것이 부착된다. 철관의 선단부에는 조형 장식 2개를 등을 맞대고 붙여놓은 모습을 형상화한 장식이 모든 조형장 철관의기에 부착되며 공부도 짧아지는 것이 특징이다.

I 형식에서
IV 형식은 등장
시점의 선후관계
는 확인할 수 있
었으나 계기적인
변화상이 명확하
게 확인되지는
않았다. 이를 감
안하여도 시간성
에 민감하게 반
응하지 않는 철



[도면 8] 조형장 철관의기의 형식

기 유물의 유의미한 변화상을 간취한 결과를 [도면 8]의 조형장 철관의기의 각 형식별 도면으로 제시하였다.

2. 編年

함안지역의 편년연구는 말이산 고분군을 중심으로 토기·철기·묘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본 절에서는 토기 연구 성과(金正完 1994, 2000; 李柱憲 2000;

禹枝南 2000; 朴升圭 2010)와 묘제 등 고분문화 전반(朴天秀 2003, 2010; 洪潛植 2014)을 중심으로 한 연구, 마구(柳昌煥 2007, 2012), 조형장 철판의기(趙榮濟 2011; 金訓熙 2018) 등 철기유물의 편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편년표에 제시된 않았으나 묘제를 통해 아라가야의 고총체계의 성립과 전개 양상을 밝힌 崔景圭 (2023a, 2023b)의 연구를 참고하여 조형장 철판의기의 편년을 살펴보았다.

말이산 고분군의 편년연구를 검토한 결과, 상대연대는 대동소이하며 절대연대에 서 일부 차이가 확인된다. 우선 趙榮濟(2011)는 HM6호분 조형장 철판의기를 6세기 1/4분기로 편년하고 있으나 裴孝元(2018)의 낙동강 하구역을 중심으로 한 신석도질 토기의 연구를 중 기대+장경호의 세트 조합과 대호의 발치부장 양상이 5세기 말까지 이어지고 6세기대에는 확인되지 않는 점, 崔景圭(2023b)의 함안 말이산 고분군 고총 축조 체계 등을 참고하여 HM6호분 조형장 철판의기를 5세기 4/4분기로 조정하였다. 하지만 HM6호분에 III형식과 VI형식이 공존하는 점, 金斗喆(2011)의 검능형행엽의 연대를 고려하면 5세기 4/4분기에서 6세기 1/4분기까지 연대 비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각 연구자별 편년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가 [표 3]이며 이를 바탕으로 [표 4]에 제시된 조형장 철판의기의 형식별 존속기간을 검토하였다.

[표 3] 연구자별 함안 말이산 고분군 편년

	김정완 1994 2000	이주헌 2000	우지남 2000	박승규 2010	박천수 2003 2010	류창환 2007 2012	홍보식 2014	조영제 2012	김훈희 2018
5C1/4	문48	문3,36,48	문6,17,33,36 문44,45 경15,32,10	문1,3,6,36 문44,48	문36	문3,36,43,48	문6,36	문44,36,3 경14	문3,36, 44,48 경14
5C2/4	마갑총 문10	문10 경13	문3,10,마 경13,1	문마,10,20 경13	경13	문10,마 경13 고13	문3,10, 문마,48 경13	문10,9,48 고13 경13	문9,10,43 문마석1 고13
					현8				
5C3/4	현4 문39	현4 문39	문14,38,39 현4 경11,16 고파	현4 문14,38,40 경16 마석1,2	현15	현4 문38,39 고파	현4 문14	문39 고파	문38,39 경18 고파 현4
5C4/4	현25 창14-1	문38,54 현5,15 창14-1	문20,54 창14-1 경61	현8,15 문51,54 창14-1	문51	현5,8,15,22 문54 동6 창14-1	문38,54 현5,8 동6	마석1 현8,15 문38 경2,18	현15,22,8 동6,6-1,6-2 우527-2 경2,7,12,19
					현35(암)				
6C1/4	창14-2 현35(암)	창14-2 현35(암) 문4,5	창14-2 현35(암) 경3,5	현35(암각) 현22 문52 경3	문5,8,47	현35(암각) 창14-2	현22,15 창14-1	현22 역451-1 경10,12,19 동6,6-1,6-2	역101,451-1 현26,25 창14-2 우527-6
6C2/4	문4,5,8,47	문8,47	문4,5,8,13,47 경31	문4,8,47 경31		문1,4,47 역451-1,5	문47		

(문: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고:경남고고학연구소, 경:경상문화재연구원, 창:창원대학교박물관, 역:경남연구원 역사문화센터, 동:동아시아문화재연구원, 현: 현재지정번호, HM: 현재지정분류 번호)

5세기 1/4분기에는 조형장 철판의기의 초현하는 시기로 I 형식이 출현한다. 전대에 이어 조영되는 최상위 혹은 차상위의 위계에 속하는 대형급 목곽묘에 부장되며 피장자 주변에 1점씩 매납된다. 공반유물 중 토기류는 화염형 투창고배가 초현하며 호+기대 세트와 대호의 부장이 확인된다. 철기류는 대형 철정이다

[표 4] 형식별 존속기간

시기	형식			
	I	II	III	IV
5C1/4	■			
5C2/4	■	■		
5C3/4		■		
5C4/4			■	
6C1/4				■

량 매납되는 양상이 확인되며 문36, 48호분 등의 출토예와 같이 대도·철모·철촉으로 구성되는 기본 무기 세트가 갖추어진다. 마구·갑주류도 기본적으로 갖추지며 철부·도자·철검 등 농공구류도 부장된다.

5세기 2/4분기에는 조형장 철판의기 II 형식이 출현하여 I 형식과 공존한다. 대형 목곽묘와 석곽묘에 1~2점씩, 피장자의 주변에 매납된다. 전시기와 마찬가지로 토기류와 철기류의 부장양상도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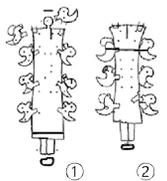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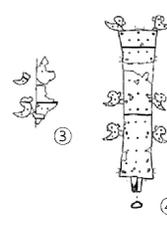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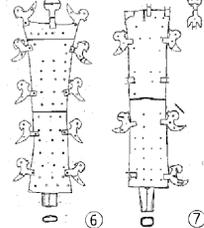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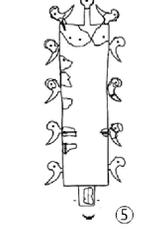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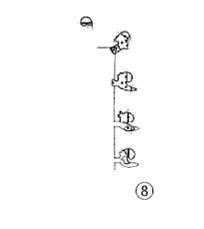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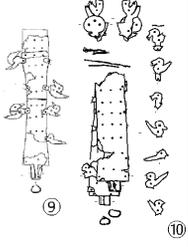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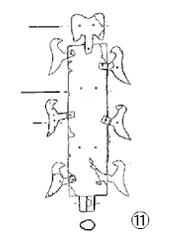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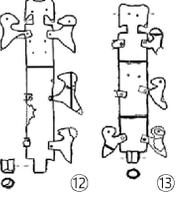
5세기 3/4분기에는 I 형식과 II 형식이 공존한다. 목곽묘에는 조형장 철판의기가 더 이상 부장되지 않으며 초대형의 고총고분을 비롯한 대형의 석곽묘에 1~2점씩, 피장자의 주변에 매납된다.

5세기 4/4분기에는 I 형식과 II 형식이 소멸하며 III 형식과 IV형식이 출현한다. 주로 대형의 고총고분에 1~2점씩 매납되는 양상은 이어지나 곽상부에 매납되는 등 부장 양상의 변화가 일어난다. HM6호분과 HM8호분에는 III 형식과 IV형식이 함께 출토되는데 HM6호분에는 III 형식과 함께 철판이 철정의 형태에 조형 장식이 형상화되는 III 형식과 IV형식 사이의 과도기적 양상이 확인되며 2점 모두 곽상부에 매납되고, HM8호분에는 III 형식이 피장자의 머리 부분에 2점, IV형식은 곽상부에 2점씩 매납된 것으로 추정되는 등 5세기 3/4분기와는 다른 매납양상이 간취된다.

6세기 1/4분기에는 III 형식이 소멸하고 IV형식만 존속한다. 대형의 고총고분에 1~2점씩 매납되는 양상은 이어지나 피장자 근처가 아닌 부장공간이나 순장자공간 등에 매납된다. 이후 함안 말이산 고분군에 횡혈식 석실묘가 조영되기 시작한다. 유물의 부장양상 또한 변화하는데 조형장 철판의기가 더 이상 매납되지 않고 소멸하며, 화염형 투창고배와 함께 호+기대의 세트조합, 대호의 매납 등 토기류의 부장양상이 이 시기까지 존속하며 더 이상 부장되지 않는다. 철기류도 꾸준히 부장되는 장식마구를 제외한 무기·무구류도 부장량이 줄어들며, 철정도 더 이상 부장되지 않는다. 이

[표 5] 조형장 철판의기 출토유구 일람표

시기	형식	함안 말이산 고분군				토기						농공구			무기			마구		장신구				
		유구	묘제	규모	수량	부장 위치	화염 고배	장경 호	발형 기대	통형 기대	상형 토기	대 호	철 정	철 부	공 구	함 두	도 모	물 미	철 촉		주 갑	마 구	마 갑	
5C 1/4	I	문36	목곽	대형	1	두부		●	●	●		●	●	●	●	●	●	●	●	●				
	I	문44	목곽	중형	1	두부									●								이식	
	I	문3	목곽	대형	1	발치	○	●	●							●	●				●			
	I	경목14	목곽	중형	1								●			●	●							
	I	문48	목곽	대형	1	피장자							●	●	망치	●	●	●	●	●	●	●	●	이식 경식
5C 2/4	I	문9	목곽	중형	1	수습	●											●						
	I	문마석1	석곽	대형	1	두부?	●		●									●			●			
	I	두목1	목곽	대형	3	두부	●	●	●	●		●	●	●									경식	
	II	경목13	목곽	중형	1	장벽																		
	II	문10	목곽	대형	2	두부		●		●		●	●	●				●				●		
	II	두45	목곽	대형	1	두부	●	●	●	●	●	●	●			●		●	●	●	●	●	●	금동관 경식
	II	문43	목곽	대형	1	피장자							●			●	●	●	●	●	●	●		
	II	고13	목곽	대형	2	발치	●	●	●	●		●	●			●	●	●	●	●	●	●		
5C 3/4	I	문39	석곽	대형	1	피장자		●		●								●		●	●		경식	
	I	고파	석곽	초대형	2	두부	●				●		●	살포	●	●		●			●		경식	
	I	문38	석곽	대형	1	두부	●	●			●		●			●					●			
	I	경57	석곽	대형	2	피장자		●		●			●	●		●	●	●	●				이식	
	I	경석1	석곽	대형	2	발치							●			●	●							
	II	경석18	석곽	중형	1					●	●			●		●						●		
5C 4/4	III	우527-석2	석곽	대형	2	두부	●						●	●		●	●	●						
	III	HM8	석곽	초대형	2	두부		●	●				●	●	●	●	●	●	●	●	●	●	●	이식 경식 대금구
	III	HM22	석곽	초대형	1	수습	●		●			●	●	●		●	●		●		●			
	III	HM15	석곽	초대형	1	발치	●		●			●	●			●	●	●				●		
	III	HM6	석곽	초대형	1	곽상부	●	●	●			●	●			●	●	●	●	●	●	●	●	경식
	IV	HM6	석곽	초대형	1	곽상부	●	●	●			●	●			●	●	●	●	●	●	●	●	경식
	IV	HM8	석곽	초대형	2	곽상부?		●	●			●	●	●		●	●	●	●	●	●	●	●	이식 경식 대금구
	IV	HM6-1	석곽	대형	1	곽상부	●	●	●				●		●		●							
	IV	HM6-2	석곽	대형	1								●			●							경식	
	6C 1/4	IV	역451-1	석곽	초대형	2	수습	●	●	●						●	●					●		
IV		HM101	석곽	초대형	1	손장자	●	●	●	●		●		●	살포	●	●				●		경식 이식	
IV		창14-2	석곽	대형	1	부장공간									●	●	●				●			
IV		HM26	석곽	초대형	2	곽상부?	●	●	●			●	●		●	●	●	●	●	●	●	●		

	I	II	III	IV
5C1/4				
5C2/4				
5C3/4				
5C4/4				
6C1/4	 ①문3, ②문44 ③문9, ④문마1, ⑤고파 ⑥고13, ⑦문10, ⑧경13, ⑨HM8, ⑩우527-2 ⑪HM6-1, ⑫HM101, ⑬역451-1			

[도면 9] 함안 말이산 고분군 출토 조형장 철판의기의 각 형식

러한 변화 양상은 함안지역의 고총고분문화가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에 전성기를 맞이했다가 6세기 2/4분기에 이르면서 세력이 약화되어 함안양식의 토기문화와 위세품, 무기·무구류 부장량의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IV. 鳥形裝 鐵板儀器의 用途와 副葬 意味

본 장에서는 조형장 철판의기의 용도와 부장 양상, 그리고 부장 의미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1. 鳥形裝 鐵板儀器의 起源과 用途

1) 素材

조형장 철판의기의 독특한 특징은 얇고 길쭉한 철판에 조형 장식을 부착한 형태에 있다. 철판의 형태는 삼한시대에 교환·화폐의 가치를 지닌 철 소재인 板狀鐵斧를 가공하여 제작한 3세기대의 유자이기로 거슬러 올라간다(東潮 1978; 宋桂鉉 1995). 삼국시대에는 板狀鐵斧의 기능과 역할이 鐵鋌으로 대체되며 유자이기의 소재 또한 철정으로 제작되기 시작하였다(李賢珠 1990; 金訓熙 2011; 金志勳 2014).

[표 6] 철정 일람표

(류창환 2012 改變)

유구	묘제	규모	매수	길이	너비	부장위치	평면형태	조형장 철판의기
문36	목곽	대형	40매	18.0~20.4	3.4~6.2	목관 아래 관대	좌우 호상, 양단부 내만	○
문43	목곽	대형	2매	14.6	2.5	수습	좌우 호상, 양단부 내만	○
문48	목곽	대형	77매	34~42(7) 17~22(70)		목관 아래 관대	좌우 호상, 양단부 내만	○
문10	목곽	대형	10매	46.8~50.2		피장자 두부	좌우 호상, 양단부 내만	○
문27	목곽	대형	8매	21.1~23.5		피장자 두부?	좌우 호상, 양단부 내만	×
HM8	석곽	초대형	32편	18.0~20.5	2.0~3.0	피장자 발치	좌우 호상, 양단부 내만·직선·반원	○
HM15	석곽	초대형	17편	10.0 내외	2.0 내외	피장자 발치	좌우 호상, 양단부 내만·직선·반원	○
HM22	석곽	초대형	27편	14.0 내외	3.5 내외	피장자 발치?	좌우 호상, 양단부 내만·직선·반원	○
경54	석곽	대형	14편	12.5 내외	2.3 내외	피장자 발치	좌우 호상, 양단부 내만·직선·반원	×
HM6	석곽	초대형	53편	18.0 내외	2~3	피장자 두부	소형 철정, 형태 다양	○

이러한 양상은 5세기대 함안 말이산 고분군에서도 확인된다. 함안 말이산 고분군에서는 문48호분과 문10호분 등에서 조형장 철판의기와 함께 대형 철정이 다량으로 매납되었으며 그 외에도 [표 6]과 같이 HM15·HM22·HM6호분, 문36·43·4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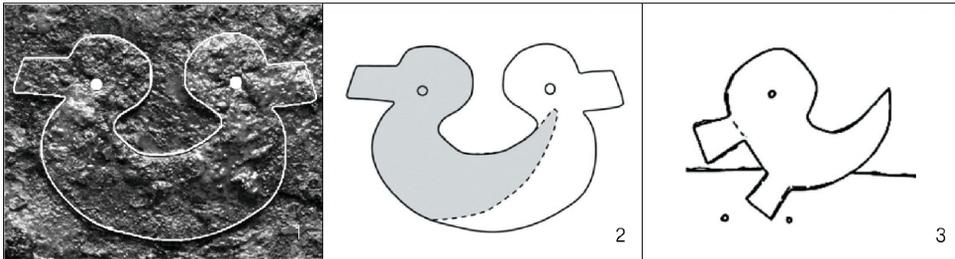
분 등에서 조형장 철판의기와 다량의 대형 철정이 함께 매납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즉, 4세기대에는 철정이 매납되지 않다가 5세기 1/4분기에 조형장 철판의기의 출현과 함께 대형 철정이 매납되는 양상을 통해 조형장 철판의기도 영남지역의 유자이기와 같이 鐵鋌을 이용하여 제작하였을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

6세기대에 접어들면 조형장 철판의기의 철판 형태가 철정의 형태가 아닌 세장방형 철판의 형태로 변화하는데, 이는 철정이 부장되지 않는 상황과 연동한다. 柳昌煥(2012)은 아라가야의 고분에 부장된 철정은 수장 또는 지배자들이 지역 내 철과 철기의 생산·유통을 장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권역과 인민을 지배했음을 상징하는 자료로 보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함안 말이산 고분군 조영 집단은 철정의 대량 매납이 확인되지 않는 6세기대에 철과 철기의 생산·유통을 장악하지 못하고 위세가 약화된 상황에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2) 起源

조형장 철판의기의 조형 장식은 유물의 명칭으로 사용될 만큼 특징적이기 때문에 그 기원과 계통을 파악하기 위해 조형 장식의 祖形을 검토하고자 한다. 조형장 철판의기 출현 이전의 조형 장식은 [도면 10]과 같이 삼한~삼국시대의 鴨形土器와 板甲의 장식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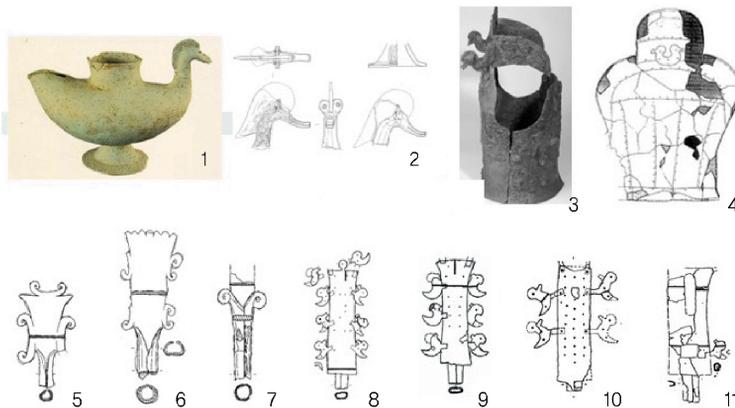
새모양토기는 울산 하대 46호분, 김해 대성동 24호분, 부산 동래 복천동 38호분을 비롯해 함안 말이산 34호분 등에 출토된다. 새모양토기의 부장은 『三國志』 魏書 東夷傳 弁辰傳의 ‘以大鳥羽送死, 其意欲使死者飛揚’ 기사와 연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기사는 큰 새의 깃털을 사용하여 장사지내는데, 그것은 죽은 사람이 새처럼 날아다니기를 바라는 것으로 해석(國史編纂委員會 1986)되거나 당시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새처럼 하늘을 날아다니도록 바라고, 새가 죽은 사람의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도면 10] 김해 대성동 고분군과 함안 말이산 고분군의 조형 장식 비교(金訓熙 2018 轉載)
 (1. 대성동 2호 출토품 2. 대성동 2호 출토품 꼬리 수정 3. 말이산고분군 문3호 출토품)

‘영혼의 전달자’ 역할을 한다(國立金海博物館 2004)고 해석되기도 한다. 즉, 당시 사람들은 새가 死者의 영혼을 인도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피장자와 함께 무덤에 부장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물질자료와 문헌 기사를 근거로 柳昌煥(2012)은 변진의 신앙이 가야·신라로 이어지고 그러한 상징물로 조형 장식이 부착된 의기가 고분에 부장되었다고 보았다.

그 외에도 조형 장식은 낙동강하구역의 김해 대성동 2호분과 부산 동래 복천동 86호분에서 출토되는 중장판갑에 부착된 장식에서도 확인된다. 金訓熙(2018)는 복천동 86호분 측경관의 조형 장식이 와질토기 단계의 압형토기와 유사하며, 대성동 2호분 판갑 후면의 조형 장식은 말이산 고분군의 초현기 조형장 철판의기의 조형 장식과 형태가 유사하다는 점에서 함안 말이산 고분군 조형장 철판의기가 부산·김해지역 조형 장식 문양 요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았다.



[도면 11] 조형 장식의 원류와 함안 말이산 고분군 조형장 철판의기

(1. 김해 대성동 24호 2. 부산 복천동 38호 3. 부산 복천동 86호 4. 김해 대성동 2호 5. 예안리 104호 6. 예안리 150호 7·8. 문3호 9. 문44호 10. 문36호 11. 문48호)

趙榮濟(2011)는 김해 예안리 150호분, 양동리 275호분, 포항 옥성리 가-55호분에서 출토된 유자이기의 선단부가 톱니 모양으로 처리된 것이 함천 옥전 11·41·76·35호분 등에서 발견된 조형장 철판의기와 유사하며, 4세기 중엽으로 비정되는 김해 예안리 104·150호분 유자이기의 선단부에 장식이 부착된 점 등을 근거로 함안 말이산 고분군 출토 조형장 철판의기의 원류가 4세기대 김해지역에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5세기 1/4분기에 초현하는 문3호분의 조형장 철판의기와 함께 궐수문이 부착된 유자이기가 공반되는 점을 통해서도 김해지역의 유자이기가

조형장 철판의기의 모델이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형 장식은 『三國志』 魏書 東夷傳 弁辰傳의 ‘以大鳥羽送死, 其意欲使死者飛揚’ 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 매장관념이나 사후세계와 연관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새모양토기, 새장식문양, 새장식 등의 요소와 더불어 조형장 철판의기의 조형 장식 또한 사후세계에 대한 인식, 매장관념과 의례에 사용된 기물에 부착된 장식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새모양토기, 판갑의 조형 장식, 초현기 조형장 철판의기와 꺾수문이 부착된 유자이기가 공반하는 점 등이 영남전역의 고분군 중 함안 말이산 고분군에만 유독 조형장 철판의기가 부장되는 이유를 설명하기엔 역부족이다. 또한, 원류로 본 부산·김해지역에 조형장 철판의기와 조금이라도 유사한 철제 의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또한 직접적인 원류로 보기 힘든 이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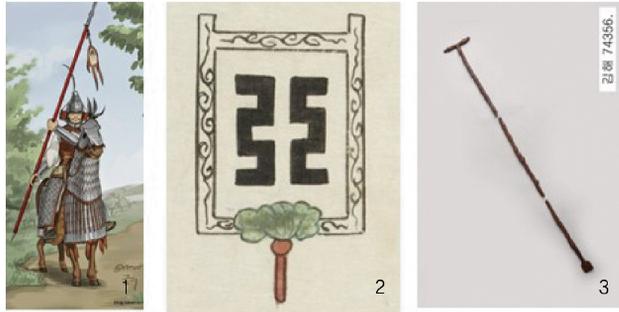
하지만 4세기대부터 이어진 부산·김해지역의 대형 철정 매납 양상이 5세기대의 함안지역에 나타나는 점 또한 조형장 철판의기의 모티브가 부산·김해지역과 관계 없다고 보기 힘든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조형장 철판의기는 4세기대에 영남지역 전역에서 제작·생산되어 부장되었던 꺾수형 유자이기를 모티브로 하여 5세기대에 함안 말이산 고분군에 제작·매납된다. 출현 단계부터 기존의 유자이기와는 확연히 다른 완성된 형태로 출현하며 조형 장식의 모티브는 부산·김해지역의 새모양토기와 판갑에 부착된 조형 장식 등 종교적 의례와 관련된 새 관련 기물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用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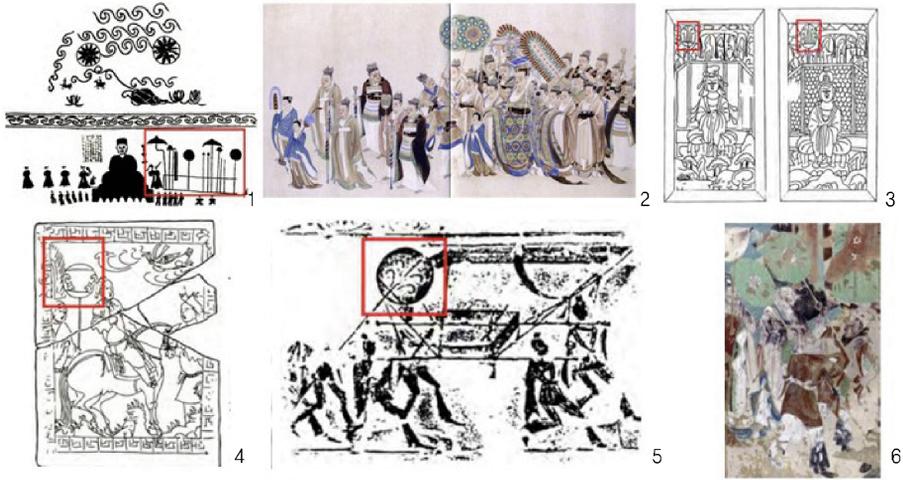
조형장 철판의기의 용도는 무기로 보기도 하는 유자이기와는 달리 철판의 형태와 조형 장식이 부착된 점을 근거로 무기나 실용이 아닌 의례용 기물, 위세품, 신분 상징물, 종교 매개체 등으로 본다.

유자이기는 형태와 벽화 등을 근거로 실용기로 써 깃봉(宋桂鉉 2001)이나 행차용 장엄구(조원창



[도면 12] 형태에 의한 용도 추정

- (1. 깃봉(금수 네이버블로그) 2. 깃봉(국립중앙박물관 외규장각의례)
3. 살포(국립김해박물관)



[도면 13] 형태에 의한 용도 추정(행차용 장엄구, 조원창 2017 改變)

(1. 소통곽승사묘 북벽 화상 2. 돈황석굴 제94굴 3. 낙양석관상 묘주화상 4. 동한학장묘 보연화상전 5. 청주전기화상석 제5석 6. 돈황석굴 제220굴)

2017) 등으로 보기도 한다. 특히 행차용 장엄구로 추정된 연구에 제시된 돈황석굴 등의 벽화에는 각종 형태의 장엄구가 그려져 있어 주목된다. 물론 권수형·가시형 刺가 부착된 유자이기와 형태가 같은 것은 찾을 수 없다. 하지만 유자이기의 형태가 한 지역, 동일 시기, 같은 형식의 무덤에서도 차이를 보이는 점, 유자이기가 출토되는 무덤 또한 전체 고분군 중에서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사상이나 의례를 바탕으로 한 상징물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정형화되지 않고 매우 다양한 형태가 확인되는 점 등은 오히려 주인공의 취향에 따라 개별적으로 선택하였던 행차용 장엄구로 보기도 하였다(조원창 2017).

하지만 행차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귀족 이상의 지배층이라는 전제를 해야 할 것이다. 고려·조선시대에도 의례·의전에 대해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규정과 법도에 따라 행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삼국시대에 행차 등의 의전에 개인의 취향이 반영되긴 힘들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집단의 의전에 사용된 행차용 장엄구로써의 용도는 상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형장 철관의기를 소유한 피장자의 개별적 취향보다는 그 집단의 사상이나 의례 등에 사용된 매개체로써의 기능에 주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볼 때, 유자이기와는 달리 조형장 철관의기의 철판에 3열 이상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뚫린 투공이 주목된다. 투공에 고리를 걸어 방울 등을 매

달아 소리를 내는 기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조형장 첩판의기는 장식식이 극대화된 상징물이자 방울을 달아 소리를 내는 장송의례나 巫俗에 사용된 宗教器物, 즉 함안 말이산 고분군 조영 집단의 사상이나 의례를 바탕으로 한 상징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金貞培(1978)에 따르면 蘇塗는 귀신을 섬겼고 대목을 세워 방울과 북을 걸어 기도의 대상으로 삼았던 곳으로 이러한 의례 행위는 巫儀를 연상하게 한다. 방울은 巫에서 사용했던 도구이며, 天君에 이르기까지 전승되었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즉, 방울은 巫儀를 연상시키는 매개체로써 삼한시대의 소도와도 연결하고 있다. 金杜珍(1985)은 북과 방울은 거울과 함께 모두 巫儀에 쓰이는 神物로 보았고, 나희라(2003)는 『三國志』倭人傳 卑彌呼 관련 기사를 근거로 卑彌呼를 巫的인 성격의 인물로 보기도 하였다. 즉 방울은 巫儀이나 제사 등 의례를 상징하며 새와 연결지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오영(1999)도 고대에서 새는 곡령, 조령, 영혼 운반자 등으로 다양하였기 때문에 농경의례, 태양에 대한 숭배, 장송의례에 있어서 중요한 관념으로 사용되었다고 한 점을 들어 조형 장식과 방울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청동기~초기철기시대부터 영남지역에 청동방울과 한경, 새모양토기 등이 출토되는 양상을 보아도 조형장 첩판의기를 巫俗信仰과 관련된 宗教器物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조형 장식의 모티브로 추정되는 김해지역의 피장자 人骨에 偏頭¹⁰⁾가 행해졌던 것 또한 巫儀이나 제사 등 의례를 주관하던 특수신분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자료로 추정된다.



[사진 3] 체험교육교재로 활용되는 조형장 첩판의기의 모습

10) 襄孝元(2019)에 의하면 4세기대의 예안리 고분군 출토 인골 중 이천 없이 확실하게 편두가 행해진 인골은 총 4개체였으며 4개체의 부장유물상을 검토한 결과 특수신분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두개변형이 이루어진 인골까지 포함하면 총 10개체에 해당되며, 삼한~삼국시대 전반에 걸쳐 편두가 행해진 인골의 성격을 검토한다면 특수신분의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기존의 견해를 수정하고자 한다.

2. 鳥形裝 鐵板儀器 副葬의 意味

조형장 철판의기는 함안 말이산 고분군의 최고 위계 무덤에 매납된다. 중대형의 무덤이라도 위계가 높은 무덤에 매납되며, 중소형의 무덤에는 출토되지 않는 양상이 뚜렷하다. 그러나 모든 수장급이나 지배자의 무덤에 조형장 철판의기가 빠짐없이 부장되지는 않는다. 이에 대해 조원창(2017)은 합천 옥전 23호분이나 경주 황남대총 북분, 천마총 등에는 유자이기가 부장되지 않는 반면, 황남대총 남분과 금령총, 식리총 등에서는 출토된다는 점을 근거로 유자이기를 집단의 장례나 상징체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기가 아닌 피장자의 취향에 의한 선택적 기물의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한 집단의 모든 대형분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대형분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매장과 장례 등 국가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의례는 정해진 절차와 규칙에 의해 이루어졌음은 부장유물의 패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무기류의 구비, 농공구류, 갑주·마구의 완비, 장신구의 소유 등을 통해서도 각 집단이나 정치체만의 일정한 규칙성을 확인할 수 있다. 토기양식 또한 궤를 같이하며 특정 기종의 점유와 부장 공간의 구획 등은 그 집단만의 정해진 규칙에 의해 행해졌던 것은 선행의 연구성과를 통해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즉, 조형장 철판의기를 소유한 주인공이 특수 신분으로서 국가적 의례를 주관하였다고 상정하더라도 말이산 34호분과 같은 초대형분에 조형장 철판의기가 부장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부장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무덤의 주인공이 생전에 소유하지 않았다고 단언하기도 힘들다. 즉, 조형장 철판의기를 장례나 상징체계와 관련된 의기로 보더라도 모든 초대형분에 부장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황남대총 남분에 금관이 출토되지 않았으나 최고 지배자의 무덤으로 해석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조형장 철판의기의 부장 의미에 대해 趙榮濟(2011)는 함안 말이산 고분군의 의기는 안라국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표지적 의기로 제작과 소유에는 지배집단의 의지가 강력하게 작용했다고 보았으며, 柳昌煥(2012)은 아라가야의 장송의례 또는 내세관을 상징하는 자료이자 피장자의 신분과 관련된 상징물로 보았다. 徐姪男(2013)은 유자이기를 가야·신라문화권의 상장예속 유물로 『禮記』의 신과 연결시켜주는 매개자 鬻의 기능을 하였던 의기로 파악하기도 하였다.

선행연구의 결과도 대체로 집단을 상징하는 의례에 사용된 기물로 보며 의기의 제작과 소유에 지배집단의 의지가 강력하게 작용했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바이다. 이

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조형장 철판의기는 함안 말이산 고분군 조영 집단의 사상이나 의례를 바탕으로 한 상징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조형장 철판의기는 의기로써 방울 등을 달아 소리가 나게 하여 고대인의 사후세계에 대한 관념을 반영하는 장송의례나 巫俗에 사용된 宗教器物로, 지배집단의 의례에 사용된 상징물로 볼 수 있다.

삼국시대 전체의 시·공간적 범위를 대상으로 보아도 특징적이고 특이한 형태의 철판의기는 조형장 철판의기가 유일하기 때문에 조형장 철판의기가 부장된 무덤의 피장자는 제사를 주관하는 특수신분 혹은 최고 위계의 신분으로 제사를 주관하였을 것이다. 즉, 삼한시대부터 이어져 온 무속신앙과 상장의례를 주관하였던 신분의 주인공이 조형장 철판의기를 소유할 수 있었으며 사후에도 피장자 옆에 함께 매납되었던 것이다. 조형장 철판의기가 매납된 HM13호분 천문개석의 존재 또한 이를 방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세기에 출현하여 고총고분의 전성기인 5세기 중·후반대에 조형장 철판의기는 최고 위계의 위세품으로 무덤에 매납되었다. 출현과 함께 대형급의 무덤에 피장자와 함께 1~2점씩 매납되었다. 또한 조형장 철판의기가 매납된 무덤에는 대형의 철판정도 다량 매납되며, 함안양식토기 기종의 완비, 무기류 세트와 갑주·마구류의 완비 등 위세품으로서의 위치가 확고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5세기 말, 전성기가 지나 위세가 약화되면서 조형장 철판의기도 위세품으로써의 의미가 약해진다. 즉 대형 철판으로 제작되던 것에서 세장한 철판으로 소재가 바뀌게 되고, 조형 장식도 장식이 극대화되고 화려하던 것에서 형상화되어 3개씩 부착되고 선단부에는 형상화된 장식물만 부착되는 등 장식적인 요소가 약화된다. 이러한 양상은 6세기 1/4분기까지 이어지며 6세기 2/4분기에는 더 이상 부장되지 않고 완전히 소멸한다.

즉, 조형장 철판의기는 함안 말이산 고분군에 부장된 신분을 상징하는 위세품으로, 5세기에 출현하여 아라가야의 전성기에 국가적 의례를 주관하던 최고 위계의 신분에 부장되다가 고총고분의 쇠퇴와 함께 소멸한 아라가야의 위세품이자 종교기물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V. 結語

함안과 합천지역의 유자이기는 영남지역 전역에서 출토되는 유자이기와는 형태가 확연히 구분되므로 다수의 연구자에 의해 異形有刺利器로 분류되어 왔다. 최근 함안과 합천지역 출토 유자이기의 명칭을 둘러싼 논의가 지속되었으며 특히 조형 장식에 주목하여 조형장식 유자이기, 조형장 철판의기 등의 명칭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본고에서는 조형장식이 부착된 함안지역의 유자이기를 분석하여 조형장 철판의기로 명명하고 용도와 부장 의미에 대해 검토하였다.

함안지역의 조형장 철판의기는 함안 말이산 고분군에만 출토되어 함안 말이산 고분군이 아라가야의 중심 고분군으로써의 위상을 지녔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중심 고분군 중에서도 최고 위계의 무덤에만 부장된 점은 신분을 나타내는 위세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형장 철판의기는 새모양 장식을 통해 사후세계에 대한 관념을 반영하고 방울 등을 달아 소리를 냈던 장송의례나 巫俗에 사용된 기물이었다. 5세기에 대형철판과 함께 대형분에 매납되며 6세기 2/4분기에 소멸한 양상은 고총고분문화의 흥망성쇠와 궤를 함께한 의례·종교적 위세품임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인근 합천지역에서 출토되는 조형장 철판의기와의 관련성과 의미에 대한 종합적 검토는 향후 과제로 남기며, 후기 가야의 위세품에 대한 연구를 이어가고자 한다.

투고일 2025. 4. 25 | 심사완료일 2025. 9. 16 | 게재확정일 2025. 9. 23

참고문헌

- 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 2014, 『함안 말이산고분군 정밀 지표조사 학술용역』.
國立金海博物館, 2004, 『영혼의 전달자』, 2004 국립김해박물관 특별기획전 도록.
國立文化財研究所, 2001, 『韓國考古學事典』, 학연문화사.
_____, 2015, 『韓國考古學專門事典:古墳遺物篇』.
國史編纂委員會, 1986, 『국역 中國正史 朝鮮傳』.
권오영, 1999, 「한국 고대의 새(鳥)관념과 제의(祭儀)」, 『역사와 현실』32, 한국역사연구회.
金基雄, 1976, 「三國時代의 武器小考-考古學資料를 中心으로-」, 『韓國學報』5.
_____, 2004, 「고대의 관상철부에 대한 검토-영남지역 분묘출토품을 중심으로」, 『韓國考古學報』53, 韓國考古學會.
金東鎬, 1971, 『東萊福泉洞第1號古墳發掘調查報告』, 東亞大學校博物館.
金杜珍, 1985, 「三韓 別邑社會의 蘇塗信仰」, 『韓國古代의 國家와 社會』, 一潮閣.
金斗喆, 2011, 「加耶·新羅 古墳의 年代觀」, 『考古廣場』9, 釜山考古學研究會.
_____, 2013, 「연산동고분군과 복천동 고분군」, 『연산동고분군의 의의와 평가』, 부산대학교박물관.
金榮珉, 1996, 「嶺南地域 三韓後期文化의 特徵과 地域性」, 釜山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_____, 1997, 「蔚山下堡 수습철기의 검토」, 『伽耶考古學論叢』2, 伽耶文化研究所.
_____, 2000, 「有刺利器로 본 4-5세기의 福泉洞古墳群」, 『韓國古代史와 考古學』, 학연문화사.
_____, 2006, 「儀器性 遺物로 본 福泉洞古墳群의 地域性」, 『古代의 南東海岸 國家形成』, 제8회 학술세미나, 福泉博物館.
_____, 2007, 「加耶地域 有刺利器의 性格과 意味」, 『加耶의 情神世界』, 제13회 가야사학술회의.
_____, 2008, 「金官加耶의 考古學의 研究」, 釜山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_____, 2012, 「금관가야와 양동리고분군-통형동기 부장을 중심으로-」, 『김해 양동고분군과 고대 동아세아』, 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金貞培, 1978, 「蘇塗의 政治史的 意味」, 『歷史學報』79, 歷史學會.
金正完, 1994, 「咸安地域 陶質土器의 編年과 分布 變化」, 慶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_____, 2000, 「咸安圈域 陶質土器의 編年과 分布變化」, 『伽耶考古學論叢』3, 伽耶文化研究所.
金志勳, 2014, 「嶺南地域 新羅墳墓 出土 有刺利器에 대한 研究」, 慶州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金訓熙, 2011, 「蘇手形 有刺利器의 變遷과 意味」, 『韓國考古學報』81, 韓國考古學會.
_____, 2018, 「함안 말이산 고분군 출토 유자이기의 변천과 의미」, 『嶺南考古學』82, 嶺南考古學會.
나희라, 2003, 『신라의 국가제사』, 지식산업사.
_____, 2019, 「진·변한의 신앙과 의례」, 『삼한의 신앙과 의례』, 2019 가야학술제전, 국립김해박물관.
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2021, 『함안 말이산 고분군 13호분과 주변 고분 상·하본문·고찰·부록』.
류위남, 2009, 「삼한시대 영남 출토 주조철부와 관상철부 연구」, 『嶺南考古學』51, 嶺南考古學會.
柳昌煥, 2007, 「加耶馬具의 研究」, 東義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_____, 2012, 「부장철기로 본 아라가야의 수장들」, 『중앙고고연구』제11호, 중앙문화재단연구원.
문장로, 2019, 「삼한의 신앙과 의례」 연구의 동향과 과제」, 『삼한의 신앙과 의례』 2019 가야학술제전, 국립김해박물관.
朴東百·秋淵植, 1987, 「Ⅳ. 고찰」, 『昌原 道溪洞 古墳群』Ⅰ, 昌原大學校博物館.
朴升圭, 2010, 『加耶土器 樣式 研究』, 東義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박진욱, 1963, 「신라의 가시가 돌친 무기에 대한 약간의 고찰」, 『고고민속』4,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

- 박진일, 2012, 「김해 양동리 유적 2011년도 발굴성과」, 『김해 양동고분군과 고대 동아시아』, 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 朴天秀, 2003, 「地域間 並行關係로 본 伽耶古墳의 編年」, 『가야고고학의 새로운 조명』,釜山大學校 韓國民族文化研究所.
- 朴天秀, 2010, 「新羅 伽耶古墳의 曆年代」, 『韓國上古史學報』69, 韓國上古史學會.
- 裴孝元, 2018, 「釜山地域 墳墓出土 新式陶質土器 研究」, 釜山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_____, 2019, 「禮安里遺蹟 偏頭 人骨 出土 古墳의 性格 檢討」, 『가야사람 풍습연구 - 편두』, 2019 가야학술제전, 국립김해박물관.
- _____, 2022, 「일제강점기 가야고분 조사 자료 공개사업의 성과와 활용」, 『고고학지』28, 국립중앙박물관.
- 徐始男, 2013, 「儀器性 鐵器로 본 삼한·삼국시대 울산지역 철기문화의 상징성」, 『蔚山鐵文化』, 울산박물관.
- 徐始男·李賢珠, 1997, 「三韓·三國時代 鐵器의 儀器的 性格에 대한 일고찰 -鐵矛와 有刺利器를 中心으로-」, 『伽耶考古學論叢』2, 伽耶文化研究所.
- 宋桂鉉, 1995, 「洛東江下流域의 古代 鐵生産」, 『伽耶諸國의 鐵』, 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 _____, 2001, 「전쟁의 양상과 사회의 변화」, 『고대의 전쟁과 무기』, 제5회 부산북천박물관 학술발표대회요지, 북천박물관.
- _____, 2003, 「철기의 부장양상으로 본 아라가야의 발전」, 『伽耶文化』16, 伽耶文化研究院.
- 申敬徹, 1995, 「三韓·三國時代의 東萊」, 『東萊區誌』, 동래구지편찬위원회.
- _____, 2000, 「金官伽耶 土器의 編年」, 『伽耶考古學論叢』3, 伽耶文化研究所.
- 申東昭, 2007, 「嶺南地方 原三國時代 鐵斧와 鐵矛의 分布定型 研究」, 慶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禹炳喆·金玟澈, 2009, 「필수형철기를 통해 본 진·변한 정치체의 상호작용 -대동 정치체 상호작용 모델(Oeer polity interaction model)의 적용」, 『韓國上古史學報』65, 韓國上古史學會.
- 禹枝南, 2000, 「咸安地域 出土 陶質土器」, 『道項里·末山里 遺蹟』, 경남고고학연구소.
- 尹亨準, 2009, 「목관묘문화의 전개와 삼한 전기사회」, 釜山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李健茂, 1992, 「韓國 青銅儀器的 研究 -異形銅器를 中心으로」, 『韓國考古學報』28, 韓國考古學會.
- 李殷昌, 1972, 「武器」, 『韓國의 考古學』.
- 李在永, 1989, 「有刺利器에 對한 一研究」, 『考古研究』, 嶺南青年考古學研究會.
- 李在賢, 2006, 「영남지역 출토 삼한시기 倣製鏡의 文樣과 의미」, 『韓國考古學報』53, 韓國考古學會.
- _____, 2012, 「양동리고분군 출토 권수문 철기의 상징적 의미와 출현 배경」, 『김해 양동고분군과 고대 동아시아』, 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 _____, 2017, 「신라의 편두습속과 그 의미」, 『신라문화유산연구』창간호,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 李柱憲, 2000, 「阿羅伽耶에 대한 考古學的 檢討」, 『가야 각국사의 재구성』, 부산대학교한국민족문화연구소.
- _____, 2018, 「아라가야에 대한 연구 동향과 향후 전망」, 『지역과 역사』42, 부경역사연구소.
- 李賢珠, 1990, 「Ⅲ. 考察, 2) 有刺利器에 대하여」, 『東萊福泉洞古墳群Ⅱ』, 釜山大學校博物館.
- 林孝澤·郭東哲, 2000, 『金海良洞里古墳文化』, 東義大學校博物館.
- 朝鮮總督府, 1931, 『大正十三年度古蹟調査報告 第一冊 圖板 -慶州金鈴塚飾履塚發掘調査報告』.
- _____, 1932, 『大正十三年度古蹟調査報告 第一冊 本文 -慶州金鈴塚飾履塚發掘調査報告』.
- 趙榮濟, 1988, 『陝川 玉田古墳群Ⅰ』, 慶尙大學校博物館.
- _____, 2011, 「鳥形裝 鐵板儀器考」, 『考古廣場』9, 釜山考古學研究會.
- 조원장, 2017, 「中國 魏晉南北朝時代 莊嚴具를 통해 본 5~6世紀代 有刺利器의 性格 再檢討」, 『白山學報』第

107號, 白山學會.

崔景圭, 2023a, 「아라가야 중심과 주변의 구조」, 『韓國考古學報』128, 韓國考古學會.

_____, 2023b, 「아라가야의 高塚과 그 體系」, 『嶺南考古學』96, 嶺南考古學會.

洪潛植, 2001, 「농기구와 부장유형 -영남지역의 2세기 후반~4세기대 분묘부장품을 대상으로-」, 『韓國考古學報』44, 韓國考古學會.

_____, 2014, 「신라·가야 고분 교차편년」, 『嶺南考古學』70, 嶺南考古學會.

東潮, 1978, 「古新羅 有棘利器考」, 『古代學研究』89.

_____, 1995, 「弁辰과 加耶의 鐵」, 『加耶諸國의 鐵』.

_____, 1998, 『古代東아시아의 鐵と倭』.

※ 發掘調査報告書 省略

The Study on Iron-plate Ritual Utensil with Bird Decorations in Haman region

Bae, Hyo-Won(Curator, Busan Metropolitan City Marine Natural History Museum)

The bird-shaped thorn(有刺利器) artifacts from the Haman and Hapcheon regions are morphologically distinct from those unearthed throughout the broader Yeongnam area, and have therefore long been classified by many scholars as variant spiked implement bird-shaped thorn(異形有刺利器). In recent years, debates concerning the terminology for The bird-shaped thorn excavated in Haman and Hapcheon have continued. In particular, focusing on their decorative features, alternative designations such as decoratively crafted The bird-shaped thorn or decorated iron-plate implements have been proposed.

This study analyzes The bird-shaped thorn with attached decorative elements from Haman and designates them as the Iron-plate ritual utensil with Bird decorations(鳥形裝 鐵板儀器), further examining their function and the meaning of their inclusion as grave goods.

The Iron-plate ritual utensil with Bird decorations from Haman have been found exclusively in the Ancient Tombs in Marisan Mountain cluster, indicating that this cluster functioned as the central burial grounds of the Haman region. Moreover, their deposition only in the highest-ranking tombs within the central tumuli strongly suggests that they served as prestige goods symbolizing social status. Through the analysis of these prestige goods The Iron-plate ritual utensil

with Bird decorations of the central elite tombs in Haman, this study seeks to clarify the origins, functions, modes of deposition, and symbolic significance of Ara Gaya prestige artifacts.

Unlike The bird-shaped thorn distributed across the Yeongnam region, which appeared in the 3rd century and persisted until the late 6th century, the Iron-plate ritual utensil with Bird decorations of the Ancient Tombs in Marisan Mountain cluster emerged in the 5th century and completely disappeared by the second quarter of the 6th century. Their material was iron-plates(鐵鋌). Beginning in the first quarter of the 5th century, large iron-plates were deposited in tombs, a practice that increased in scale during the mid to late 5th century. By the 6th century, however, as the form of the Iron-plate ritual utensil with Bird decorations shifted into elongated rectangular shapes, iron-plates ceased to be interred. This pattern suggests that iron ingots served as the raw material for producing the aIron-plate ritual utensil with Bird decorations.

The aIron-plate ritual utensil with Bird decorations reflect conceptions of the afterlife, while the attachment of bells or similar devices to produce sound indicates their use in funerary rituals or shamanistic practices. Their association with large iron-plates and deposition in grand tombs during the 5th century, followed by their disappearance in the second quarter of the 6th century, parallels the rise and decline of the monumental tomb culture. Accordingly, these ritual-religious prestige goods can be regarded as symbols of Ara Gaya itself.

Key words : Haman, Ancient Tombs in Marisan Mountain, Iron-plate ritual utensil with Bird decorations, iron-plates, bird-shaped thorn



나말여초 토기가마의 구조와 운영에 관한 연구

Structure and Operation of Earthenware Kilns in the Late Silla–Early Goryeo Period

윤여헌
충남대학교 박물관 조교

태영림
충남대학교 박물관 연구원

- I. 머리말
- II. 나말여초 토기가마 조사 및 연구현황
- III. 토기가마의 구조적 특징과 양상 검토
- IV. 토기가마의 운영방식과 생산체계
- V. 맺음말

국문 요약

본 연구는 나말여초(羅末麗初) 시기 토기가마의 구조와 운영방식을 고찰하여, 기존 연구에서 통설적으로 제시되어 온 “지하식 → 반지하식 → 지상식”이라는 선형적 발전 도식을 재검토하고자 한다. 나말여초 시기의 토기가마는 기존 인식과 달리 새로운 양식이 출현한 시점이기보다, 원삼국 및 삼국시대부터 이미 확립된 축조 기술을 계승·변용한 결과물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주요 유적의 고고학적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토기가마의 기본 구조와 세부 속성을 제정의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시흥 방산동 도기요지, 화성 청계리유적, 보령 진죽리유적, 영암 구림리요장, 평택 지산동2유적, 안성 조일리유적 등 나말여초 시기를 대표하는 표지유물(주름무늬병, 편구병, 편병 등)이 출토된 주요 유적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지하식과 반지하식의 구분 기준을 가마 천정 조영 방식(생토 활용 여부와 점토 축조 여부)에 두고 제정립하였다. 분석 결과, 반지하식 가마는 단순 굴착식이 아니라 이치형 천정을 형성하기 위해 지주목·대나무 골재·점토 보강재 등을 적극 활용한 고도의 축조 기술이 적용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요전부와 연소부 주변에서는 배수로 및 압거 시설이 수반된 사례가 확인되어, 습도 제거와 열 효율성을 고려한 설계 의도가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소성부 바닥의 기물기와 단(段) 조성은 화염 유동과 소성품 적치를 모두 고려한 구조였으며, 오벽(奧壁)에서는 수직 연통과 수평 연통이 공존하는 흔적도 확인되어 다양한 배연 방식이 병행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나말여초 토기가마의 구조적 차이는 기술 발달 단계에 따른 시간적 변동이라기보다 제작 집단의 환경 적응과 생산 요구에 따른 선택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토기가마의 운영방식과 생산체계에서도, 중앙 통제의 약화 속에서 각 지역의 호족 세력과 수요층을 중심으로 한 자율적 생산과 분산적 유통 구조가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나말여초 토기 생산체계가 단절적 변화가 아닌 누적적·복합적 기술 전통 위에서 전개되었음을 시사하며, 고려 초기 자기 가마 구조 및 생산체계와의 연계성을 해석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로 기능할 것이다.

주제어 : 토기가마, 나말여초, 지하식, 반지하식, 가마구조, 호족

I . 머리말

일반적으로 ‘나말여초(羅末麗初)’는 통일신라 말기 중앙정부의 지방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여러 농민반란과 지방 호족들이 난립하는 시점부터 고려왕조가 개창되고 왕권이 안정화된 고려 성종대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를 가리킨다. 즉, 신라라는 국가체제가 붕괴하고 새롭게 등장한 고려가 안정화되는 시기까지를 뜻한다. 이 시기는 삼국 시대에서 통일신라시대로 전환되는 과정과는 달리 정치적 중심체제의 교체만 이루어졌을 뿐, 물질문화적 측면에서는 생각보다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이유로 나말여초 시기의 고고학적 연구는 이전 시기를 다룬 연구들과 비교하여 물질문화의 변화상을 통해 명확한 시기 구분을 설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기존 선행연구들이 시기별, 지역별 또는 특정 주제에 따라 세부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데 반해, 나말여초의 고고학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이는 연구자들의 관심부족 외에도, 분묘의 박장(薄葬) 경향, 신라 말기 선종(禪宗)의 유행과 화장(火葬)의 확산 등 복합적인 사회적·종교적 변화로 인해, 폐기 동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규모 분묘유적의 수가 이전 시기보다 현저히 감소한 데에도 기인한다. 따라서 이 시기 생활유적과 생산유적에서 출토된 고고학 자료의 중요성은 다른 시기에 비해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분묘유적과 달리 오랜기간 존속되는 생활유적 및 생산유적 등에서 출토된 유물로 정확한 시기 편년안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생활유적의 경우 통일신라에서 고려로의 정치적 변화가 당시 사람들의 생활권역에 대한 공간적 변화나 이동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 공간의 지속적이고 중복적인 사용은 유물편년에 있어 더욱 시기 구분이 어렵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반면, 생산유적에서 출토된 자료 중 특히 토기류는 해당 유적 내에서 직접 생산된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편년 과정에서 지역성에 따른 혼란을 배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가마 운영 시기에 사용된 목탄 등의 절대연대 측정이 가능한 시료가 함께 수습되는 경우가 많아, 방사성탄소연대측정 등 자연과학적 분석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기존의 상대편년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리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까지 조사된 나말여초기의 토기가마 유적을 대상으로 삼

왔다. 다만, 출토유물의 편년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본고에서는 나말여초 시기 토기가마의 양상과 구조적 특징을 우선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기초로 토기가마의 운영방식과 생산체계의 일면을 고찰함으로써, 나말여초 시기 생산유적 연구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Ⅱ . 나말여초 토기가마 조사 및 연구현황

1. 연구현황

토기가마에 대한 선행연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삼국시대 가마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이 시기의 가마는 고고학적으로 풍부한 자료가 확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조적 특징과 그 변천양상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집중적인 조명을 받아왔다. 또한 단순한 구조 검토를 넘어서 토기 제작기술의 복원과 검증은 목적으로 한 실험고고학적 접근, 자연과학적 분석기법을 활용한 연구, 그리고 생산 체계와 생산품의 유통을 통한 당대 사회의 이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이지영 2023). 이처럼 삼국시대 토기가마 연구는 구조적 특성과 기술적 요소에 대한 분석을 넘어, 사회·경제적 맥락까지 포괄하는 심층적인 연구로 확장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나말여초 시기에 해당하는 토기가마에 대한 연구는 다수의 선행 연구자들에 의해 주목되어 왔지만(강경숙 2005; 류기정 2005; 김여진 2007; 한혜선 2019; 구본영 2022), 이 시기 자체의 모호한 시간적 정의와 중간 과도기적 성격으로 인해 연구의 깊이와 폭에서 삼국시대 가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대부분의 경우, 나말여초 시기 토기가마는 고려시대 생산체계의 기원 혹은 전사로 간주되어 연구되거나, 특정지역 내 유적의 맥락에서 일부분으로만 다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이 시기의 가마에 대한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구조 분석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마구조 그 자체를 검토한 몇몇 중요한 연구가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류기정(2005)의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 그는 나말여초에서 고려시대로 이행하는 시기의 토기가마들을 대상으로 굴착방식, 장단비, 평면형태, 화구구조, 연료 장입 방식, 불턱의 유무, 窯床의 조성방식 등 가마 구조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각 구조 요소의 시기별 변화 양상을 고찰하였다. 이는 해당 시기 가마의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있어 기초적인 토대를 제공하는 연구로 평가된다. 또한 한혜선(2019)의 경우 고려도기의 전반적인 양상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고려도기가마의 구조에 대한 분석을 병행함으로써 고려도기가마 연구의 범위를 넓히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들 또한 특정 주제나 시대에 초점을 맞춘 논의의 일환으로 가마구조를 제한적으로 다루었거나, 가마 유적의 연대편년과 관련된 자료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도 있어, 심층적이고 일관된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특히, 나말여초 시기는 정치·사회적으로나 물질문화적으로나 전환기의 특징을 갖는 시기인 만큼, 이 시기의 토기가마 구조를 집중적으로 고찰하는 연구는 당시의 생산체제와 그 변동양상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간적으로는 다소 모호하고 과도기적인 시기로 인식되는 나말여초기를 중심으로 토기가마의 구조적 특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2. 시기 인식과 연구대상 설정

나말여초 시기는 앞서 언급했듯이 정치적으로 과도기적인 국면에 해당하며, 그 시기 구분은 다소 모호하게 인식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문헌사에서는 통일신라에서 고려로의 이행기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며, 세부적인 견해 차이는 존재하지만 통일신라 말기 사회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8세기 후반 혜공왕(재위 765~780)대 대공(大恭)의 난을 기점으로 귀족세력 간의 반란이 시작되었고, 약 150년 동안 20여 명의 왕이 교체되는 등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혼란은 초기에는 귀족 간 권력 투쟁의 양상으로 전개되었으나, 9세기 말 진성여왕(재위 887~897)대에 이르러 원종과 애노의 난을 필두로 한 농민 봉기와 지방 호족 세력의 성장으로 이어지며 더욱 심화되었다. 이후 양길, 궁예, 견훤, 적고적 등 각지의 유력 호족들이 자립적인 세력으로 등장하였고, 이 가운데 궁예의 후고구려 건국과 견훤의 후백제 성립 등으로 이어지며 통일신라 체제는 급속히 해체되었다. 이러한 변동의 시대를 종결짓는 것이 고려의 등장이며, 고려왕조가 성립된 이후에도 체제 정비는 일정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고려의 중앙집권 체제가 본격적으로 안착하는 시점은 성종(재위 981~997)대 이후로 평가된다(한영우 2017).

이처럼 나말여초는 통일신라의 몰락과 고려의 성립 및 국가체제의 정비에 이르는 일련의 전환기를 가리키며, 문헌기록에 따라 설정되는 연대는 대체로 8세기 말에서 10세기 말까지를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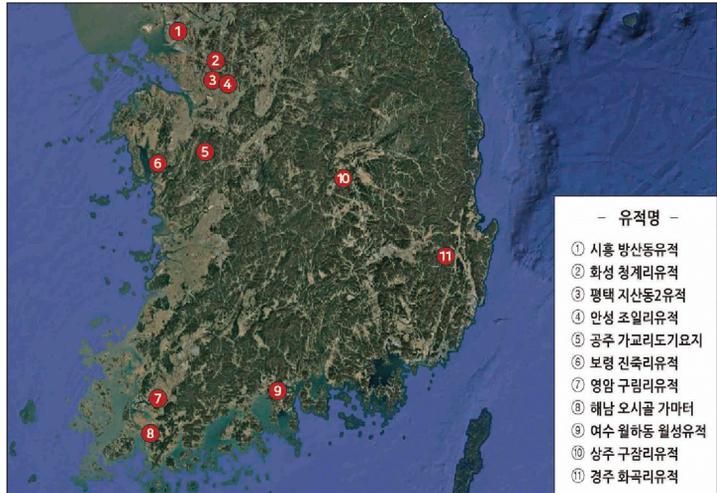
이와 같은 격변의 시기는 물질문화 변화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고고학 및 도자사적 관점에서 이 시기를 조망해 보면, 나말여초는 정치적 변화와 병행하여 물질문화에서도 뚜렷한 변동이 나타난 시기로, 동일한 시공간 내에서 다양한 문화요소가 병존하고 충돌하며 새로운 양상을 형성한 복합적인 문화단위로 인식되어 왔다. 중앙정치체 교체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새로운 형식이나 기능을 반영하는 유물도 존재하는 반면, 기존의 물질문화적 요소가 오랜 관성을 유지하며 변화에 저항하거나 점진적으로 수용되는 사례도 병존하였다. 토기의 양상 역시 이러한 변화와 연속의 경계에 위치한다. 통일신라토기의 전형적인 특징인 인화문 기종이 점차 쇠퇴하는 시점에, 주름무늬 병, 편구병, 편병 등 기존과는 차이가 있는 신기종들이 새롭게 등장하게 된다. 이들 기종은 단지 형태적인 차이를 넘어서, 생산방식과 유통양상, 소비계층의 변화 등 다양한 사회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으며, 고고학적으로는 나말여초기를 대표하는 표지유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이들 기종이 동일한 유적 또는 동일한 층위 내에서 반복적으로 공반되는 양상을 보임으로써, 하나의 시기적·문화적 단위를 설정하는 기준으로 부합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주름무늬 병, 편구병, 편병 등은 해당 시기를 대표하는 핵심 기종으로 인정(최맹식 1991; 한혜선 2019; 이경희 2022)받아 왔으며, 이는 선행 연구자들의 공통된 인식으로 정착되어 있다. 필자 역시 이러한 인식에 동의하며, 해당 기종들이 출토된 토기가마 유적 통해 구조적 특징과 함께 당시 물질문화의 변동양상을 일면을 살피고자 한다.

3. 주요 유적 검토

토기가마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는 1960년대 인천 경서동 녹청자요지와 경주 망성리 가마터의 발굴을 시작으로 본격화되었다. 이후 1970년대에는 서울 사당동요지를 비롯한 주요 유적의 조사로 연구의 기초가 마련되었으며, 1980년대 후반에는 진천 산수리·삼룡리 가마와 같은 대규모 가마군이 조사되면서, 가마구조 분석뿐만 아니라 토기편년 연구에도 실질적인 성과가 이루어졌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발굴조사 건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토기가마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었다. 특히 삼국시대 가마를 중심으로 구조적 특징과 변화 양상에 대한 분석이 심화되었고, 실험



[도면 1] 나말여초 가마유적 분포현황

고고학 및 자연과학적 기법을 활용한 토기 제작기술의 복원, 생산체제와 유통구조를 통해 사회상을 복원하려는 시도 등 다방면에서 성과가 축적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수백여 기에 달하는 삼국시대 가마 유적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통일신라 이후, 특히 나말여초 시기에 조영된 토기가마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나말여초기 토기가마의 구조적 특징을 분석하기에 앞서, 분석대상 유적간의 공시성을 확보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주름무늬 병, 편구병, 편병 등 나말여초기의 표지유물이 확인된 유적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다.

물론 후술할 유적 외에도 나말여초 시기로 상정된 가마 조사사례는 다수 존재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주름무늬 병, 편구병, 편병 등이 출토된 유적을 분석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이는 나말여초기의 표지유물로 설정한 일정한 기준에 따른 것으로, 인화문이 쇠퇴한 이후 출토되는 모든 경질토기를 곧바로 나말여초기로 간주하거나, 이 시기의 시간개념이 지나치게 확대·혼용되는 경향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반영한 결과다. 이러한 기준에서 제외된 유적에 대한 검토는 추후 별도의 연구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한편, 본고에서 다룬 유적들은 나말여초라는 공통된 시간적 배경을 공유함과 동시에, 가마의 구조적 특징과 운영양상에서 상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상호 비교를 통한 분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이들 유적을 중심으로 토기가마의 구조적 속성과

그 변화양상을 고찰하고자 하며 분석대상 유적은 유물이 가마 내부에서 직접 출토된 사례에 국한하지 않고, 동일 유적 내에서 토기생산과 관련된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공방지, 폐기장, 회구부 등 부속시설에서 해당 기종이 확인된 경우도 포함하였다. 이는 토기생산 유적이 단일 가마의 존재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폐기·유통의 여러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복합구조로 운영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1) 시흥 방산동 도기요지

시흥 방산동 도기요지유적에서는 토기가마(도기가마) 1기가 조사되었다. 가마구조는 지하식 단실요로 판단되며, 요전부에서 구가 확인되었다. 보고자는 청자가마와의 층위관계에 근거하여 연대를 추정하였는데, 토기가마(도기가마)가 청자가마 바로 하층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에 토기가마의 운영시기 하한을 대체로 10세기 전반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출토유물로는 파상문이 시문된 대웅(광견호)를 비롯하여 편병, 편구병, 주름무늬병(줄무늬 병) 등이 확인되었으며, 청자가마조사(1·2차 조사)에서는 중형개 등의 기종이 수습된 바 있다. 이를 통해 방산동 유적은 도기에서 청자로 이행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2) 화성 청계리유적

화성 청계리유적에서는 총 12기의 토기가마가 확인되었으며, 이 중 구조가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 있는 것은 7기 정도이다. 가마 외에도 공방지, 건조장, 폐기장 등 생산과 관련된 부속시설이 함께 조사되어 당시의 토기생산체계의 일면을 보여준다.

토기가마의 구조는 반지하식과 지하식이 혼재하여 확인되었으며, 이는 유적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마가 존재했음을 시사한다. 조사자는 출토유물의 양상과 인근 유적과의 비교, AMS 분석결과 등을 참고하여 해당유적의 취락을 포함한 전체적인 연대를 8세기 중반에서 10세기 중반으로 판단하였으며, 가마의 중심조업 시기는 9세기에서 10세기 무렵으로 추정하였다.

3) 평택 지산동2유적

평택 지산동2유적에서는 총 8기의 토기가마가 조사되었으며, 다른 유적과 달리

모두 반지하식 구조로 확인되었으며, 특징은 가마 아궁이 대부분이 화구적석식으로 축조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가마 내부에서는 완류가 다수 출토되었으며, 특히 완의 출토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점이 주목된다. 이 외에도 대부완, 대옹, 양이부호 등이 함께 출토되어, 출토 유물의 구성은 다른 동시기 유적들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조사자는 주요 출토유물인 완의 형식적 특징을 바탕으로 가마 조업의 상한을 8세기 후반으로 추정하였으며, 다른 출토유물과 AMS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가마의 중심운영 시기를 9세기에서 10세기 전반 무렵으로 판단하였다.

4) 안성 조일리유적

안성 조일리유적에서는 총 13기의 토기가마가 확인되었으며, 가마 외에도 주변 수혈 등 가마운영과 관련된 유구들이 함께 조사되었다.

가마구조는 반지하식과 지하식이 모두 확인되었고, 크기 또한 일정하지 않아 다양한 규모의 가마가 공존했음을 보여준다. 이 유적의 특징 중 하나는 요전부에서 외부로 연결되는 구가 확인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으로, 조사자는 시흥 방산동요지, 화성 청계리유적, 공주 가교리 도기요지와 비교하여 배수와 관련된 시설로 해석하였다. 조사자는 토기가마뿐만 아니라 유적 내에서 함께 조사된 주거지 및 수혈유구 사이에 시차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출토유물과 AMS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유적의 조성시기를 9세기 전반에서 10세기 전반으로 추정하였다.

5) 공주 가교리 도기요지

공주 가교리 도기요지에서는 토기가마 1기와 폐기장이 조사되었다. 가마는 지하식 구조로 확인되었으며, 가마 및 폐기장에서 출토된 장경호, 병형 기종, 뚜껑 등은 형태적으로 통일신라 시기의 특징을 보인다. 또한 일부 병형 기종에서는 고려시대 토기병과 유사한 양상이 관찰되어, 조사자는 이러한 출토유물을 근거로 가마의 조성시기를 9세기 후반으로 상정하였다.

6) 보령 진죽리유적

보령 진죽리유적에서는 총 9기의 토기가마가 조사되었다. 가마의 구조는 반지하식과 지하식이 모두 확인되었으며, 조사자는 구조적 양상과 가마의 조영방향에 따라

두 양상으로 구분하였다.

가마 내부에서는 중형개와 주름무늬 병이 출토되었으며, 가마 생산품의 폐기장으로 추정되는 수혈에서는 인화문토기를 비롯하여, 주름무늬 병, 편구병, 중형개, 편병, 대용, 양이부호 등이 다량으로 수습되었다. 보고자는 방사성탄소연대측정 분석결과를 근거로, 해당 가마의 중심운영 시기를 9세기에서 10세기 사이로 상정하였다.

7) 영암 구림리요장

영암 구림리요장에서는 1975년 도로포장 공사과정에서 총 17기의 토기가마 존재가 확인되었으나, 이후 네 차례에 걸친 발굴조사를 통해 실제 조사된 가마는 8기이다. 가마구조는 반지하식과 지하식이 모두 확인되었으며, 일부 가마에서는 주목할 만한 구조적 특징이 관찰된다. 서7구요에서는 소성부 천장에서 불구멍이 확인되었고, 서4구요의 경우 가마의 전반부(아궁이 방향)는 반지하식, 후반부(소성부 방향)는 지하식으로 축조된 사례가 확인되어 이례적인 양상으로 주목된다.

주요 출토유물로는 주름무늬 병, 편구병, 편병 등이 있으며, 조사자는 이들 유물의 조합 양상이 보령 진죽리유적 및 시흥 방산동 도기요지 출토품과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가마 운영시기를 9세기에서 10세기 전반으로 비정하였다(민족문화유산연구원 2019).

8) 해남 백야리·오시골 요지

해남 오시골요지에서는 총 2기의 토기가마가 조사되었으며, 보고자는 모두 반지하식 구조를 가진 가마로 판단하였다. 주요 출토유물로는 호, 반구병, 병 뚜껑 등이 있으며, 가마 전면부에 해당하는 회구부 출토 유물 가운데 종장점열문이 시문되지 않았고, 높은 대각을 가진 고배가 확인된 점 등에 근거하여, 조사자는 해당 가마를 9세기 통일신라 말기에 조업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9) 여수 월하동 월성유적

여수 월하동 월성유적에서는 총 3기의 토기가마와 1기의 기와가마가 조사되었다. 가마구조는 지하식과 반지하식이 모두 확인되었으며, 가마 외에도 공방지 및 폐기장으로 판단되는 수혈 등 토기생산과 관련된 다양한 유구가 함께 확인되었다.

가마, 폐기장, 공방지 수혈 등에서 출토된 유물로는 완류를 비롯하여 덧띠무늬 병,

편구병, 장경병, 편병, 호류, 동이, 시루 등 다양한 기종이 포함되어 있으며, 다양한 유물양상이 확인된다. 출토유물의 특징으로는 인화문토기에서 새와 같은 동물이나 식물 문양을 형상화한 구상문(具象文)이 확인된다는 점, 병이나 호 등에서 금속기 양식을 모방한 토기류가 나타난다는 점 등이 주목된다. 보고자는 월성유적에서 출토된 토기류가 청해진유적의 주름무늬 병보다 이른 시기의 양상을 보인다고 판단하였으며, 보령 진죽리유적 출토품과의 유사성을 근거로 가마의 중심 운영시기를 8세기 중·후반 무렵으로 상정하였다.

10) 상주 구잠리 토기요지(2013)

상주 구잠리 토기요지에서는 총 3기의 토기가마와 폐기장, 수혈 등이 조사되었다. 이 중 진존 상태가 양호한 2호와 3호 가마는 모두 반지하식 구조로 확인되었으며, 유적 내에서는 화구 적석시설과 암거식 배수로가 함께 확인되어 주목된다. 특히 3호 가마(선)와 2호 가마(후)는 층위적으로 중복 관계를 이루고 있어, 상호 간의 선후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 해당 유적에서는 고지자기 연대측정이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3호 가마의 하한이 8세기 전반으로 상정되었고, 2호 가마는 8세기 전반에서 중반에 걸쳐 조업되었을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폐기장에서 출토된 유물 또한 두 시기로 구분되는데, 1단계는 연속마제형문(連續馬蹄形文), 화문(花文), 능형문(菱形文), 수적형문(水滴形文) 등이 시문된 단계이며, 2단계는 파선문이 시문되고, 하단에는 점열문 또는 지그재그형 점열문, 그리고 능형문, 수적형문 등이 함께 나타나는 양상을 보인다.

11) 경주 화곡리유적

경주 화곡리유적에서는 총 8기의 토기가마가 조사되었다. 이 유적에서는 가마 외에도 자연수로 2개소, 화구 4기, 화구시설 4기, 공방지 및 폐기장, 녹로축혈, 태토 저장시설, 수비시설 등 토기생산과 관련된 다양한 유구가 함께 확인되어, 당대의 생산체계 전반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보고자는 가마의 상부 구조는 후대 교란 등으로 인해 대부분 유실되었으나, 내부 조사 결과에 근거해 모두 반지하식 구조를 가진 것으로 판단하였다. 층위양상에 근거하여 8기 중 1·2호가 조성시기가 이른 편이며, 3~8호는 상대적으로 후순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가마구조에도 일부 차이가 존재하지만, 보고자는 이를 뚜렷한 시기차

로 보기보다는 소성기물의 차이에 따른 양상으로 이해하였다. 또한가마의 조업시기는 유적 내 공방지와 자연수로1 A·B구역의 V·VI층에서 출토된 유물연대를 기준으로, 대체로 9세기 전후로 상정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유적 내 18호 수혈에서 수습된 고배의 양상에 근거하여, 이 일대에 5세기대 가마가 잔존하고 있을 가능성도 함께 제시하였다.

각 유적의 세부 속성은 아래 [표 1]에 정리하였다.

[표 1] 나말여초 토기가마 주요 유적 목록

연번	지역	유적명	기수	축조방식 ¹⁾	운영연대 (중심연대)	주요 출토유물
1	경기	시흥 방산동 도기요지	1	지하식	10세기 전반 (하한)	대응·편병·편구병· 주름무늬 병
2		화성 청계리유적	12	반지하식 · 지하식	8세기 중반 ~ 10세기	완·반·병·호·동이
3		평택 지산동2유적	8	반지하식	9세기 전반 ~ 10세기 전반	대부완·대응· 양이부호
4		안성 조일리유적	13	반지하식 · 지하식	9세기 전반 ~ 10세기 전반	주름무늬 병· 편구병·편병 등
5	호서	공주 가교리 도기요지	1	지하식	9세기 후반	장경호·병·뚜껑
6		보령 진죽리유적	9	반지하식 · 지하식	9세기 ~ 10세기	중형뚜껑·주름무늬 병·편구병 등
7	호남	영암 구림리요장	17 (조사 8)	반지하식 (훈족) · 지하식	9세기 ~ 10세기 전반	주름무늬 병· 편구병·편병 등
8		해남 오시골가마터	2	반지하식	9세기 후반	덧띠무늬 병·편구병· 장경병·편병·호
9		여수 월하동 월성유적	3	반지하식 · 지하식	8세기 중·후반	인화문토기
10	영남	상주 구잠리유적	3	반지하식	8세기 전·중반	인화문토기
11		경주 화곡리유적	8	반지하식	9세기(하한)	주름무늬 병· 편구병·편병 등

1) 조사기관 및 보고자의 분류에 근거.

Ⅲ. 토기가마의 구조적 특징과 양상 검토

1. 축조방식의 구분과 특징

토기가마의 구조는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 되어왔으며, 일반적으로는 가마의 경사 유무에 따라 등요(登窯)와 평요(平窯)로 구분된다. 이에 가마의 규모, 평면 형태, 연소부 및 소성부의 구조, 화염의 유동 방식 등 복합적인 요소들을 기준으로 세분화된 분류가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분류 과정에서 연구자 간 용어 사용의 차이로 인해 동일한 구조물을 지칭하면서도 상이한 명칭을 사용하는 사례가 관찰된다. 대표적인 예로 ‘실(室)’과 ‘부(部)’의 용례가 있으며, 연소부-연소실, 소성부-소성실과 같은 표현이 혼용된다(김진영 2015; 충남대학교박물관 2024). 이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공간을 지칭함에도 불구하고, 용어의 선택에 따라 해석에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연구대상이 되는 토기가마들이 가마 내부에 격벽 등 물리적으로 공간을 명확히 구획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능적 부분을 지칭하는 ‘부(部)’를 사용하고자 한다.

아울러 ‘아궁이’, ‘화구’, ‘연소부’ 등의 용어는 추상적 사용을 지양하고, 구체적인 구조적 특징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연료가 장입되고 소성 대상 토기가 출입하는 가마의 입구는 ‘아궁이’, 연료가 투입되어 실제 연소가 이루어지는 공간은 ‘연소부’로 명명한다. 또한, 아궁이 외부에 접하여 연료 장입과 가마 운용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가마의 전면 공간은 편의상 ‘요전부(窯前部)’라 지칭하고자 한다.

또한 가마 구조 분석에서 가장 큰 혼선을 야기하는 속성 가운데 하나는 지하식과 반지하식의 구분이다. 이는 가마 구조를 파악하는 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분류 기준으로 활용되면서도, 동시에 조사자와 연구자들 사이에서 해석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속성이기도 하다. 통상적으로는 소성부의 위치를 기준으로 지하식과 반지하식을 구분하나, 일부 연구자는 가마 천장이나 벽체의 위치에 중점을 두어 해석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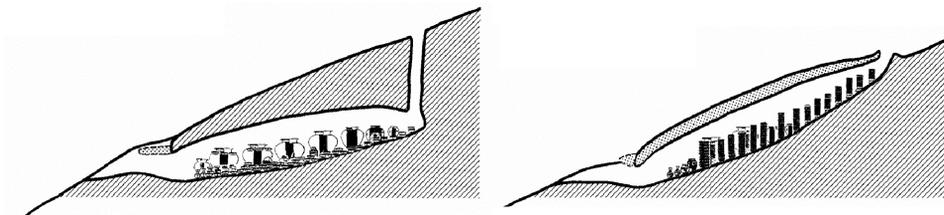
이와 같은 혼선은 현존하는 가마 유구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즉, 대부분의 가마는 천정부까지 온전히 잔존하는 사례가 드물고, 대체로 저부만이 남아 있어 정확한 구분이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완전한 가마 구조가 아

닌 바닥면이나 일부 잔존 유구의 양상만을 바탕으로 분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여건이 혼선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식과 반지하식의 구분은 가마 구조 분류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불가피한 기준 가운데 하나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조사자와 연구자들이 가마를 분석할 때, 우선적으로 이를 지하식 혹은 반지하식으로 분류하는 것은 불가피한 절차로 이해된다.

필자는 이 구분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생토를 천정으로 활용했는가의 여부에 있다고 본다.²⁾ 즉, 지하식 가마는 소성부가 지표에 노출되지 않고 천정부까지 전부 지하에 위치하며, 사면을 터널식으로 굴착하여 그 내부를 가마로 조성한 형태를 가리킨다. 반면, 반지하식 가마는 지상에서 트렌치(trench)와 유사한 형태 및 방식으로 굴착한 뒤, 천정부와 벽체를 점토로 보강·조영한 구조를 의미한다. 따라서 지하식 가마는 사면을 횡방향으로 굴착하여 축조되었기에 천정부 상면에 안정적인 생토(기반층)가 존재하는 반면, 반지하식 가마는 점토로 천정부와 벽체가 구성된다는 점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 역시 상술하였듯, 가마 천정부가 온전히 잔존하지 않는 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실제 발굴조사에서 확인되는 가마 유구의 대부분 천정부와 벽체가 소실되고 바닥면 일부만 남아 있어, 지하식과 반지하식의 구분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당 시기를 전면적으로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천정부가 일부라도 잔존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도면 2]와 같이 양자를 구분할 수 있었다.



[도면 2] 지하식 가마 모식도(좌), 반지하식 가마 모식도(우)(北野博司 2007 수정후 재인용)

2) 류기정(2005)은 지하식은 생토층을 완전히 굴착하여 생토를 천장으로 활용한 지하굴식과 생토층을 수직으로 굴착확대하여 천장 일부를 점토로 구축한 지하수혈식으로 구분하였으며, 반지하식은 천장만 점토로 제작한 천장점토식과 가마벽까지 점토로 제작한 요벽점토식으로 구분한 바 있다.

한편, 두 축조 방식은 제작 과정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지하식 가마가 사면을 굴착하는 굴식(掘式) 축조법을 기반으로 하지만, 반지하식 가마는 지상에서 파내려가 천정부와 벽체를 점토로 조영하는 방식을 택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서로 다른 계통의 기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선행 연구자들 가운데 일부는 축조 방식의 차이를 곧 시기적 차이로 직결하여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대구 옥수동·경산 옥산동 가마의 조사자(영남문화재연구원 2003)는 분포 양상에 근거하여 가마의 변화를 지하식 → 반지하식 → 지상식의 순서로 이해하였다. 강경숙(2005) 또한 동일한 발전 단계를 제시하였으며, 반지하식 가마를 지하식에서 발전된 형태로, 지상식 가마를 고려시대 이후의 자기 가마 구조로 파악하였다. 반면에 최병현(2006)은 산수리·삼용리 출토 유물을 근거로, 해당 산수리·삼용리 가마군 내에서 반지하식에서 지하식으로 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종민(2001)은 청자 발생기 이전에 확인되는 가마들 가운데 반지하식으로 규정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두 축조 방식이 전혀 다른 구조적 성격을 지니며, 특히 반지하식 가마의 경우 돛형식의 천정부를 새로 조영해야 하므로 상당한 기술적 축적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반지하식 가마는 지상 노출식 자기 가마 구조인 전축요(塼築窯)와 같은 청자 가마 형식을 응용하여 등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였다. 이에 따라 그는 반지하식 가마가 청자 발생 이전에 나타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는 시기까지의 가마는 구체적 양상을 확인하기 어렵더라도 기본적으로 지하 굴식 구조로 이해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상기 견해들은 비록 동일한 시기와 동일한 유적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삼국시대에서 나말여초에 이르는 토기가마에 축조방식에 대한 연구자들의 인식이 생각보다 다양함을 보여준다. 필자 역시 두 양식의 축조 방식이 전혀 다른 계통의 제작 방식에 해당하며, 시기적 차이가 존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러한 차이가 단순히 기술적 발달 단계의 차이로만 이해될 수 있는지는 신중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원삼국시대에서 삼국시대에 이르기까지 이미 반지하식 가마의 축조 기술, 즉 천정을 아치형태로 조영할 수 있는 기술은 충분히 존재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토기 소성 실험 과정에서 가마 천정을 복원하려는 시도를 통해 그 일면이 추정된 바 있다(조성원·홍진근 2010).



[도면 3] 반지하식 가마 천정 복원안(조성원 · 흥진근 2010)
 (1. 가마 천정 복원안 천장틀 제작법(1호 실험가마) 천장틀 제작법(3호 실험가마))

토기 소성 실험을 통해 가마의 천정 구조에 대한 다양한 복원안이 제시되었으나, 공통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천정을 조영하든 굴식 축조법이 아닌 인위적으로 천정을 형성하는 반지하식 가마에서는 아치형태의 점토 천정을 지탱하기 위한 지주목의 존재가 필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지주목의 흔적은 드물지만 실제 유적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사례가 있다[도면 4].

상기 사례들은 가마 천정을 축조하기 위해 사용된 지주목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대구 신당동 유적 3호 가마와 진천 송두리 유적 5-4지점 4호 가마는 축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이다. 그 근거로는 가마 요전부의 회구부가 형성되지 않은 점, 가마 내부에서 조업 과정에 수반되는 유리 질화나 소결로 인한 경화층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로 인해 해당 가마에서는 바닥면과 벽체 내부에 경화면이 형성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가마 축조 당시의 지주목 흔적이 비교적 뚜렷하게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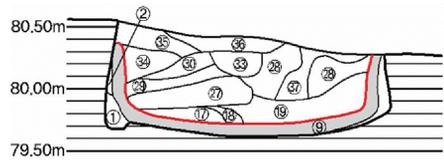


[도면 4] 1. 대구 신당동유적 3호 토기가마(영남문화재연구원 2005) 2·3. 진천 송두리유적 5-4지점 4호 가마, 1호 가마(중앙문화재연구원 2020) 4. 남현동 백제요지 근린공원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1호 가마(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25)

대구 신당동 유적 3호 토기가마(도면 4-1)는 5세기 초 영남지역의 사례로, 가마 내부 바닥면에서 다량의 지주목(버팀목)이 확인되었다. 이들의 간격은 다소 불규칙하나, 가마 중심부에는 지름 10~20cm의 굵은 수직 지주목 설치되고, 벽체에 인접한 부분에는 지름 3~5cm의 비교적 가는 목재가 비스듬히 배치된 양상이 관찰된다.

진천 송두리 유적 5-4지점은 4세기 초·중반 호서지역의 사례로, 4호 가마(도면 4-2)에서는 가마의 장축 방향과 동일하게 중심선을 따라 약 2m 간격으로 세 개의 수직 지주목 흔적이 확인되었다. 주혈의 지름은 약 30~40cm, 깊이는 약 40cm였으며, 보조 기둥은 확인되지 않았다.

동일 유적의 1호 가마(도면 4-3)에서는 이와 달리 사선 방향의 목주 흔적이 확인되었다. 상술한 사례와 달리 여러 차례 조업이 이루어지면서 가마 내부에는 두터운 경화층이 형성되었고, 경화층의 하층에서 기반층을 굴광한 지주목 흔적이 드러나 가마 개축 과정에서 설치된 것으로 판단된다[도면 5]. 주혈은 총 6기가 확인되었으며, 지름은 약 22~32cm로, 약 70cm 간격을 두고 대칭으로 배치되었다. 특히 이 목주들은 수직이 아니라, 가마 바닥에서 벽체가 곡선을 이루며 꺾이는 지점에 사선으로 배치된 점이 특징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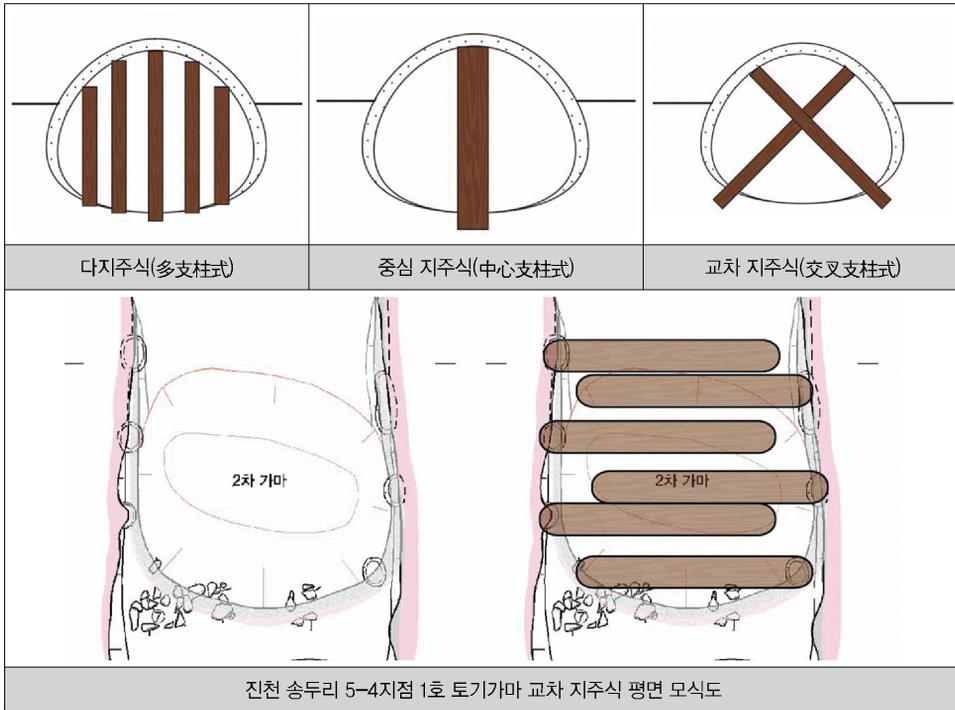


2

[도면 5] 진천 송두리유적 5-4지점 1호 가마(중앙문화재연구원 2020) (1. 내부 토층 2.내부 토층도)

서울 남현동 백제요지 근린공원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은 아직 발굴조사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아 구체적인 양상을 알 수는 없으나, 출토 유물에 근거할 때 8세기 말에서 9세기 초 무렵 운영된 가마군으로 추정된다(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25). 해당 유적 1호 가마(도면 4-4)에서는 송두리 4호 가마와 유사하게, 가마 내부 중심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된 지주목 흔적의 주혈이 확인되었다.

비록 상술한 사례들은 지역과 시기에 차이가 있으나, 모두 토기가마라는 공통점에서 지주목 흔적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는 가마 천정의 축조 과정에서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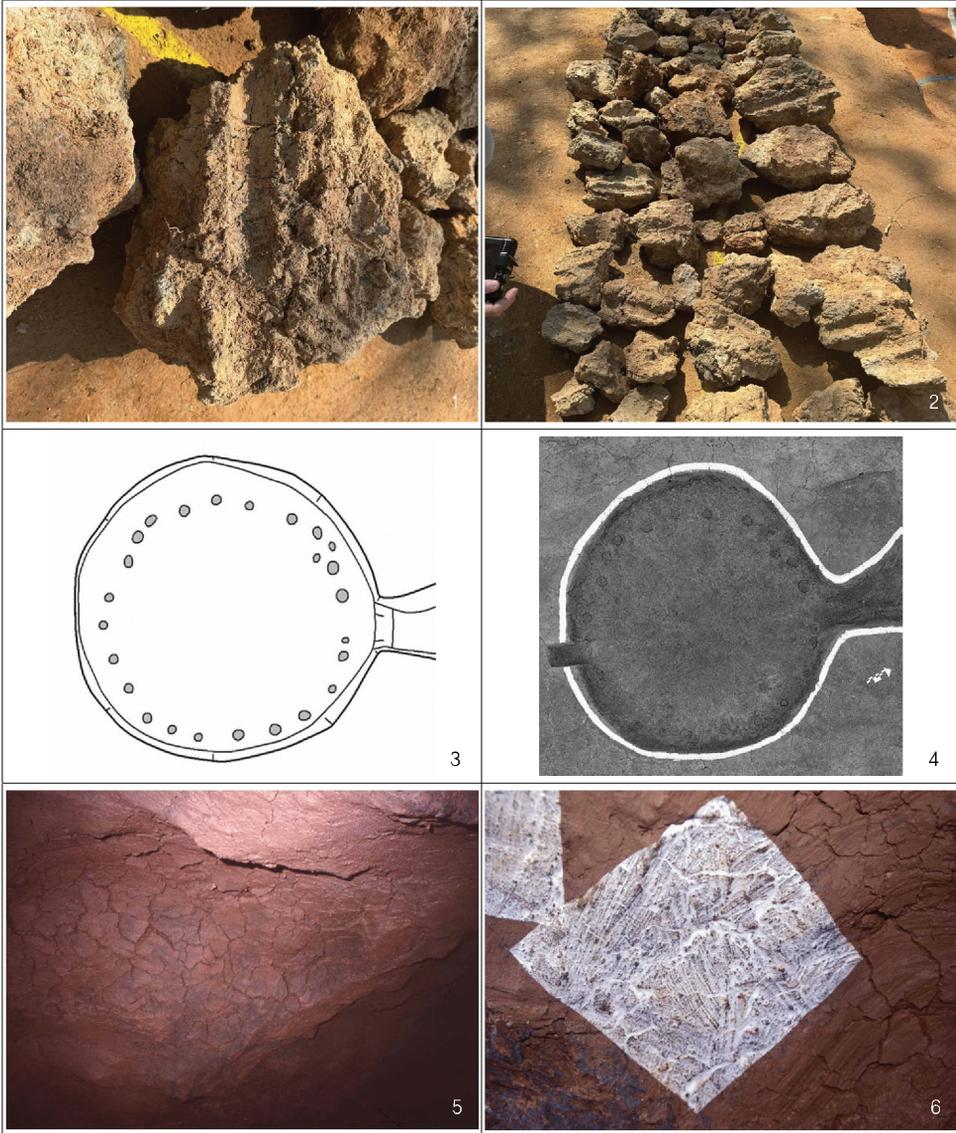
[도면 6] 토기가마 천정의 축조방식안

양한 형태의 지주목이 활용되었음을 시사하며, 그 양상은 [도면 6]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다.

다지주식(多支柱式)은 가마 내부에 다수의 소형 목주를 불규칙적으로 배치하여, 아직 경화되지 않은 천정을 넓은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지탱하기 위해 사용된 방식으로 추정된다. 이는 천정과 벽체가 연약할수록 더욱 효과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중심 지주식(中心支柱式)은 다지주식과 달리 지름 30cm 이상의 대형 지주목을 천정의 가장 취약한 부분인 중심을 따라 일정 간격으로 배치한 형식이다. 교차지주식(交叉支柱式)은 주로 가마 초축 이후 조업이 진행되어 천정이 경화된 상태에서 개보수 과정에 활용된 것으로, 특히 잦은 보수가 요구되는 연소부 천정을 지탱하기 위해 목주를 교차 배치한 방식으로 이해된다. 평면 배치에서는 주혈이 서로 어긋나게 배치되어 있어, 이를 통해 지주목이 교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지주목은 가마를 처음 축조하거나 개축하는 과정에서 구조를 지탱하는데 필수적이었으나, 가마 건조후 내부와 천정 및 벽체가 경화되어 안정성을 확보한 이후에는 활용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단순히 지주목만으로 천정을 조영하기에는 토괴(土塊)·토낭(土囊)이나 벽돌(塼)과 같은 보조 기법이 동반되지 않는 이상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천정이나 벽체를 축조하기 위해서는 지주목 외에도 일정한 적층 방식이나 보강 기술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주목과는 별개로 벽체와 천정을 형성하는 방식은 유적 사례를 통해 더욱 확인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는 축조 과정에서 벽체 점토의 점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초본류를 혼합한 점토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도면 7] 1·2, 영암 마산리 요지 2차 시·발굴조사 출토 가마 천정 및 벽체 일부(필자 촬영) 3·4, 진천 송두리유적 4-1지점 11호 제련로(중앙문화재연구원 2020) 5·6, 보령 진죽리유적Ⅱ 4호 토기가마 내부 보수흔(충남대학교박물관 2024)

추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초본류는 가마 축조 후 건조 과정이나 조업 과정에서 고온에 의해 연소되어 소실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고고학적으로 확인되기 쉽지 않다.

최근 조사된 영암 마산리 요지 2차 시·발굴조사(민족문화유산연구원 2024)에서는 7~8세기 통일신라시대 가마 11기가 확인되었다. 아직 발굴조사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아 구체적 양상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가마 내부에서 수습된 벽체편에서 벽체 내부 구조와 관련된 흔적이 관찰되어 주목된다(도면 7-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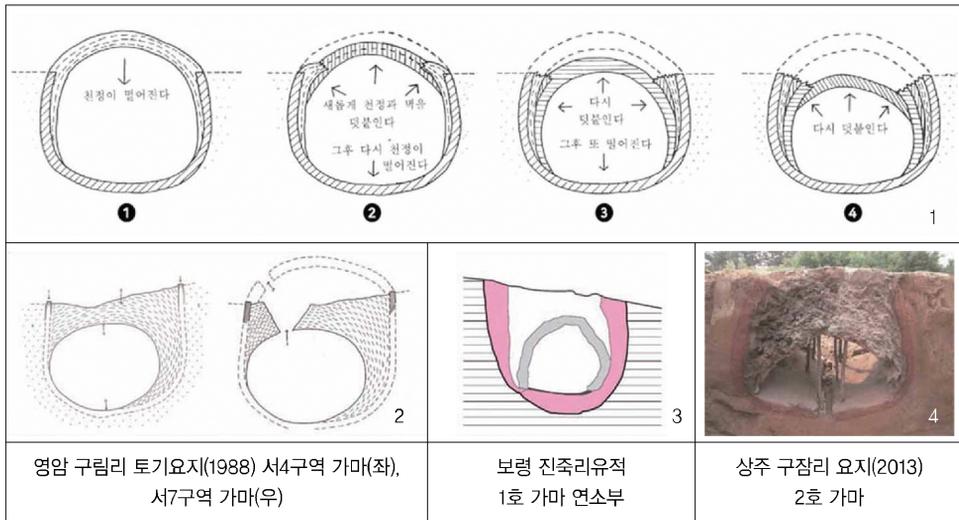
해당 흔적은 벽체 및 천정 내부에 대나무 등 목재를 골재로 사용한 흔적으로 추정된다. 잔존 양상으로 보아 벽체 외부에서 받치는 구조물이 아니라, 벽체 내부에서 골조로 기능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사례는 토기가마 유적에서는 드물지만, 점토를 이용해 높은 구조물을 축조한 고대 제련로(製鍊爐)와 같은 유구에서 유사한 예가 보고된 바 있다(도면 7-3·4).

이러한 골재는 단순히 벽체 내부를 메우는 보강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점토와 혼합된 목재나 대나무 골재는 축조 과정에서 벽체와 천정의 점성과 강도를 높여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가마가 조영된 직후 내부가 충분히 경화되지 않았던 시기에는 지주목과 더불어 천정을 형성·유지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조업이 반복되면서 고온에 의해 내부 점토가 경화되면, 골재 자체는 소실되었더라도 천정과 벽체의 구조적 안정성은 유지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지주목과 내부 골재는 각각 천정 축조와 안정화 과정에서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반지하식 가마의 천정 구조가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골재는 굴식으로 축조된 지하식 가마에서는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 지하식 가마는 초축 단계부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천정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내부에 골재를 삽입하는 행위는 오히려 비효율적이었을 수 있다. 다만 지하식 가마에서도 축조 직후나 조업이 반복된 이후 내부를 점토를 이용한 미장한 흔적은 확인된다. 이는 축조시 보강 목적 또는 반복된 조업에 따른 보수 과정의 일환으로 이해된다.

가마의 벽체, 특히 연소부와 소성부의 전면부(불과 직접 맞는 부분) 및 불턱 등은 조업 과정에서 가장 큰 열 피해를 입는 취약부로, 조업과 보수가 반복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반지하식이든 지하식이든, 가마 내부는 미장이나 점토 보강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열 피해가 적은 소성부

는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열에 취약한 연소부는 내부로 위치를 옮겨가며 활용한 사례도 빈번하게 확인된다. 이러한 과정으로 조업 후 반복된 보수 과정에서 가마의 내부 면적도 점차 축소되는 양상도 관찰된다. 영암 구림리 요지와 상주 구잠리 유적의 사례에서는 연소부 단면에서 최초 조업의 피열 흔적과 최종 단계의 벽체 규모를 비교할 수 있는데, 초축 당시와 달리 최종 운영 단계에서는 내부 규모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가마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사용되면서 지속적으로 보수되었음을 보여주며, 동시에 가마의 초축 자체가 상당히 큰 공정이었음을 시사한다.



[도면 8] 1. 토기가마 내부 보수 반복과정 모식도(이화여자대학교 1988 수정후 재인용) 2~4. 천정 및 내부 벽체 보수 사례

위 사례들은 서로 시기적 차이를 보이고 지역적 배경도 상이하므로, 그 양상의 차이가 시간성이나 지역성을 반영한 결과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확인되는 다양한 지주목 배치와 천정 축조 방식은, 반지하식 가마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는 천정 축조 기술이 이미 고대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확립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같은 유적에서 나타나는 지하식과 반지하식 등 축조 방식의 차이는 제작 집단의 기술적 한계나 시간적 차이라기보다, 제작 집단의 선택과 필요에 따른 결과였을 가능성이 크다.

2. 세부 속성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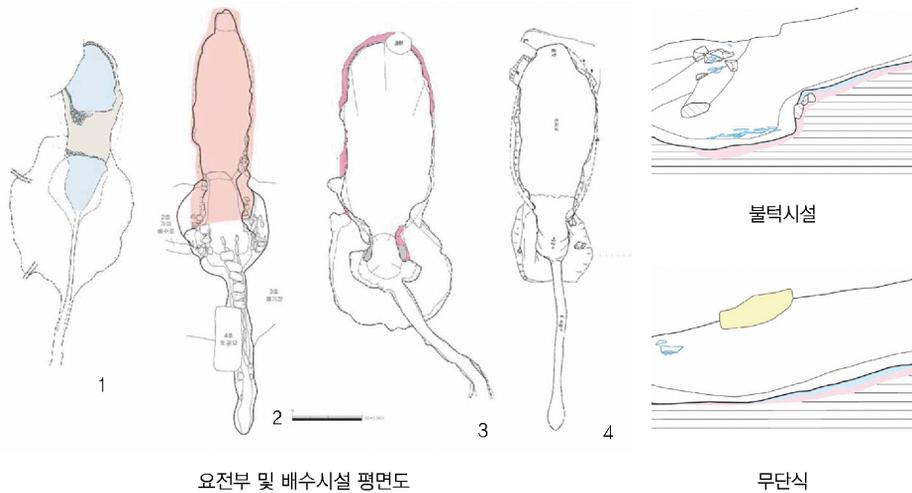
가마의 축조에서 앞 장에서 언급한 축조 방식이 가장 우선적으로 결정되는 요소라면, 그 이후에는 가마를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구조적 특징들이 결합된다. 가마는 단순한 소성 시설이 아니라 당시 제작 집단의 기술을 집약적으로 반영한 기술 복합체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여러 세부 기술이 유기적으로 접목되어야만 안정적 조업이 가능하며, 이는 곧 생산 효율과 직결되는 중요한 시설이었다.

축조 방식 외에도 가마에는 다양한 세부 속성이 나타난다. 인위적으로 축조된 가마는 조업 과정에서 고온에 의해 내부가 경화되지만, 본래 속이 비어있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장기간의 사용과 반복된 조업 후에는 보수의 필요성이 뒤따른다. 그러나 대부분의 마지막 조업 후 가마가 붕괴되거나 훼손되어 연소부와 소성부의 바닥 일부만 잔존하는 경우가 많아, 전체 구조를 복원하거나 정확한 양상을 파악하기에는 제한이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잔존 양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속성이 있다. 첫째, 요전부 및 아궁이와 불턱의 유무 및 형태와 같은 연소부 구조이다. 이는 열의 유입과 배출, 연료 장입 방식과 밀접히 관련되며, 가마의 성능과 효율을 좌우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둘째, 소성부의 평면 형태이다. 타원형, 장방형, 혹은 복합형 등 평면 구성은 소성 공간의 크기와 분포를 결정하며, 이는 생산량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셋째, 소성부 바닥의 기울기이다. 이는 화염과 열기의 흐름, 그리고 소성품의 배치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서, 가마의 설계 의도를 반영하는 중요한 속성이다. 넷째, 배연부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오벽(奧壁)의 단면과 평면 형태이다. 오벽(奧壁)은 배연부의 형태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 일반적으로 등요가마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설치되며, 가마 구조 전체의 기능적 완결성을 확보하는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오벽까지 가마 유구 가운데에서도 잔존 예가 드물어 정확한 구조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평면 형태의 잔존 양상을 통해 일정 부분 배연부의 구조를 추정할 수 있다.

1) 요전부 및 연소부의 형태

요전부는 연료 장입과 소성품 출입이 이루어지던 공간으로, 조업 후에는 재를 배출하거나 완성된 소성품을 반출하는 기능도 담당하였다. 주목할 점은, 다른 시기의



[도면 9] 1. 상주 구점리 토기요지 3호(동국문화재연구원 2013) 2. 여수 월하동 월성유적 3호(동서종합문화재연구원 2019)
3. 보령 진죽리유적 9호(충남대학교박물관 2024) 4. 시흥 방산동 도기요지(해강도자미술관 2004)

가마와 달리 요전부에 인접하여 배수로 혹은 재배출구로 추정되는 시설이 외부로 연결된 사례가 비교적 자주 확인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설은 주로 유적 내 대형 가마에서 확인되며, 그 기능적 성격에 대해서는 향후 실험 고고학적 검증이 필요하다. 다만, 여수 월하동 월성유적 1호와 3호 가마(도면 9-2), 공주 가교리 도기요지와 남현동 백제요지 근린공원 조성사업부지 내 1호 가마 등에서 천정까지 석축으로 조성된 압거 사례가 보고되었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재배출 시설로 보기보다는, 석축 천정을 동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배수와 관련된 기능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곧 토기 소성 과정에서 가마 조업 시 습도 제거는 중요한 요소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와 같은 구시설은 연료 장입 방식과도 관련된다. 수직식 장입 방식에서는 형성될 수 없는 구조이므로, 이러한 시설이 확인되는 가마는 수평식 연료 장입 방식을 채택했음을 시사한다. 유사한 시설은 이미 원삼국시대 가마에서도 확인된 바 있어 시기 판정의 직접적인 기준으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당시 요전부의 구조적 성격이나 조업 방식, 특히 연료 장입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아궁이는 연료와 소성품의 출입구로, 토축과 석축을 이용한 예가 가마의 크기와 무관하게 확인된다. 석축은 반복적인 고열에 노출되더라도 내구성이 높아 안정적이지만, 축조 과정에서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반면 보령 진죽리 유적이나 영암 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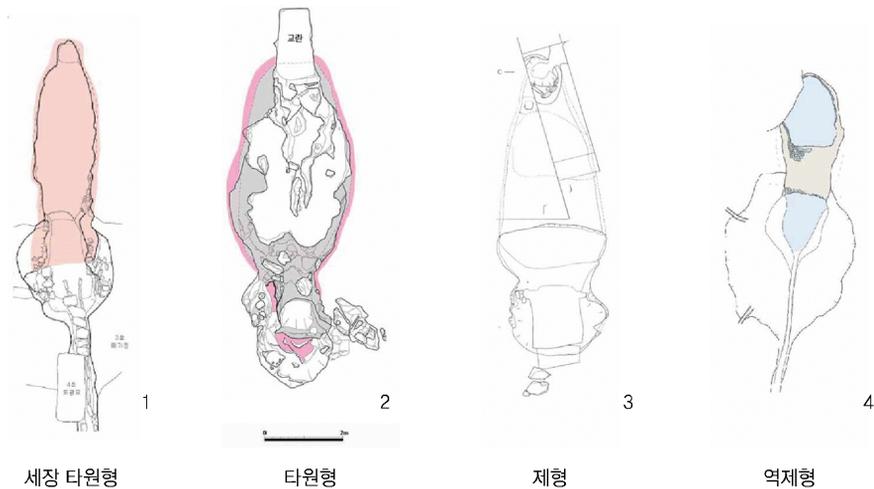
리와 같이 토축만으로 조성된 사례도 있어, 이는 제작 집단의 여건과 선택에 따라 다양한 방식이 활용되었음을 보여준다.

불턱은 단실로 구성된 이 시기 가마에서 연소부와 소성부를 구분하는 주요 요소이다. 삼국시대의 가마에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높은 비율로 확인되지만, 이 시기의 가마에서는 특히 소형 가마에서 상대적으로 더 빈번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불턱 또한 조업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고열에 노출되어 보수가 필요했던 부분으로, 암키와·대옹편·석재 등을 이용해 보강한 흔적이 확인된다.

2) 소성부의 평면형태

가마의 평면 형태는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 분류되어 왔으나, 명칭에는 주관적 요소가 반영되어 ‘고구마형’, ‘전함형’, ‘사두형’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어 왔다. 또한 잔존 양상, 특히 삭토된 높이에 따라 동일한 유구가 서로 다른 형태로 오인되는 경우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평면부만 남아 있는 유구는 제외하고, 소성부와 오벽까지 잔존한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기본적으로는 타원형과 제형(梯形, 下寬上狹)의 두 유형으로 대부분할 수 있다.

타원형은 좁은 연소부에서 넓은 소성부로 이어졌다가 오벽에서 다시 폭이 줄어드는 형태로, 토기가마의 기본적인 평면 구조를 이룬다. 이러한 형식은 가마 내부에서 화염의 속도를 조절하고 충분한 소성 공간을 확보하여 조업에서 최대 효율을 도모하



[도면 10] 1. 여수 월하동 월성유적 3호(동서종합문화재연구원 2019) 2. 보령 진죽리유적 5호(충남대학교박물관 2024)
3. 영암 구림리 토기요지 서4구 요 4. 상주 구잠리 토기요지 3호(동국문화재연구원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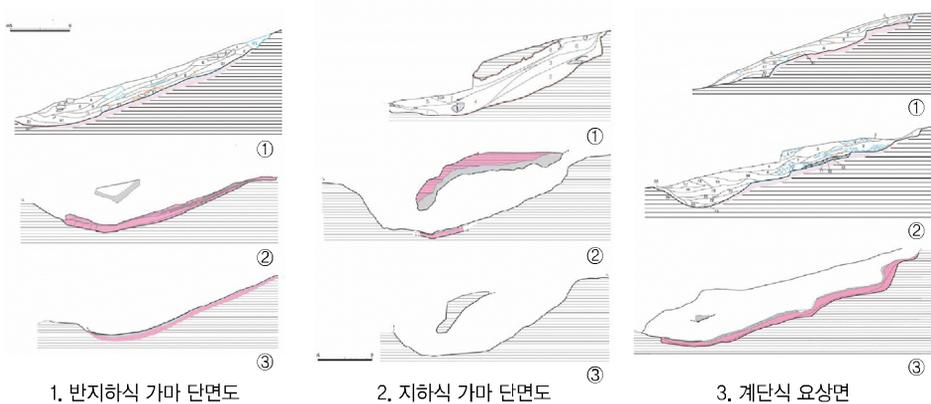
려는 제작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즉, 좁은 연소부에서 시작하여 중단부에서 최대 너비에 이른 뒤, 오벽으로 갈수록 점차 좁아지는 타원형 평면이 일반적이며, 장폭비에 따라 세장한 타원형과 타원형으로 세분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제형(梯形) 평면은 소성부 하부가 오벽보다 넓어, 소성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좁아지는 양상을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드문 유형으로 영암 구림리에서 확인된 바 있다. 반대로 역제형(逆梯形, 上寬下狹)은 소성부의 너비보다 오벽이 더 넓은 형태로, 가마 내부에서 열기의 흐름과 속도를 조절하기에 불리한 형태로 해석된다(류기정 2005). 이러한 평면은 주로 목탄요에서 확인되는 유형이지만, 상주 구잠리 유적 3호와 원산리 1호 가마에서 그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3) 소성부의 기울기 및 단면형태

소성부 바닥의 기울기는 화염과 열기의 흐름을 조절하고, 소성품의 배치를 규정하는 주요 요인으로서 가마의 설계 의도를 반영하는 속성이다. 일반적으로 소성부는 단면이 곡선을 이루며 완만한 경사를 보이는데, 지하식 가마는 반지하식 가마에 비해 상대적으로 곡률이 더 크고, 바닥이 고르지 못한 경향이 있다. 이러한 차이는 굴착 깊이와 조영 방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곧 화염의 유동 속도와 열 분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다만, 곡선형 요상면은 소성품을 안정적으로 적치하기에는 불리한 구조이다. 실제로 이상재나 이기재와 같이 소성품 배치와 관련된 유물의 출토 사례가 드물어, 당시



1. 반지하식 가마 단면도

2. 지하식 가마 단면도

3. 계단식 요상면

[도면 11] 1-①, 3-①·2 평택 지산동2 유적 1호·6호·8호(기남문화재연구원 2020), 1-②·③, 2-②·3, 3-③ 보령 진족리유적 1호·9호·4호·3호·5호(충남대학교박물관 2024), 2-1 여수 월하동 월성유적 1호(동서중합문화재연구원 2019)

제작 집단이 내부 적치를 어떻게 운영했는지는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럼에도 보령 진죽리 유적 5호 토기가마, 평택 지산동 유적 6호 및 8호 가마 등 일부에서는 바닥에 단(段)을 두어 수평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확인되며, 이는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평탄면은 소성품 적치에는 유리하지만, 화염 유동의 원활함을 방해하거나 특정 기종 소성에 한정적으로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상대적으로 드물어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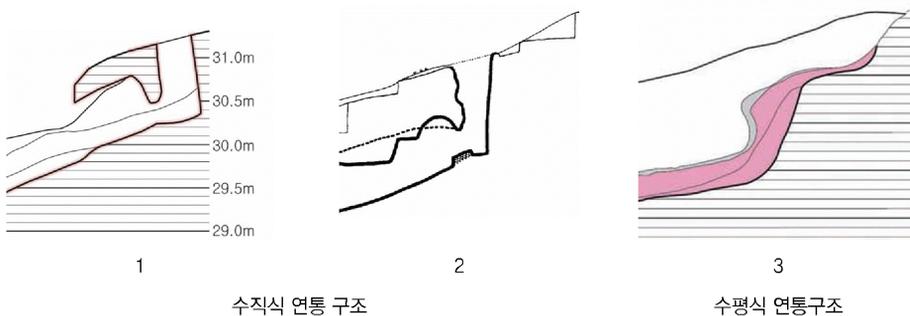
향후 연구에서는 소성부 기울기를 단순히 구조적 요인으로만 보지 않고, ① 소성품의 종류와 크기, ② 소성품 적치 방식, ③ 조업 중 화염의 유동 및 온도 분포, ④ 반복 사용에 따른 바닥의 변화 등 복합적 요소와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오벽(奧壁)의 형태

일반적으로 이 시기 오벽의 평면형태는 가마의 최대 너비에서 점차 줄어드는 형식이 기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체형·돌출형·대형돌출형 등과 같은 세부 유형(구본영 2022)이 존재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되나, 배연부까지 완전하게 잔존한 사례가 드물어 그 정확한 양상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잔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영암 구림리 서4구요, 여수 월성유적 2호 토기가마, 공주 가교리 가마 등의 사례는 수직 연통식 구조가 기본이었음을 보여준다. 반면 보령 진죽리 유적 5호 가마와 화성 청계리 유적Ⅱ 2호 가마에서는 수직 오벽이 형성된 뒤, 그 너머에서 수평 피열 흔적이 확인된다. 이때 평면 형태는 배연부가 돌출되어 있으며, 수평식 연통 구조가 존재했을 가능성도 시사한다.

특히 배수로가 설치될 만큼 가마 내부 습도 제거가 중요한 상황에서, 우수에 취약



[도면 12] 1. 여수 월하동 월성유적 1호(동서종합문화재연구원 2019) 2. 영암 구림리 동11구 요(이화여자대학교 2001)
3. 보령 진죽리유적 5호 가마(충남대학교박물관 2024).

한 수직 연통만으로 구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외부 물 유입을 막기 위해 가마 주변에 도랑을 조성하거나 상부에 지붕을 설치했을 가능성도 있으나, 현재까지 관련 유구는 확인된 바 없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형태의 오벽과 배연부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당시 제작 집단이 환경적 요인과 조업 조건에 따라 유연하게 기술을 선택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러한 문제는 현재 고고학 자료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기에, 추후 체계적인 조사와 실험적 검증을 통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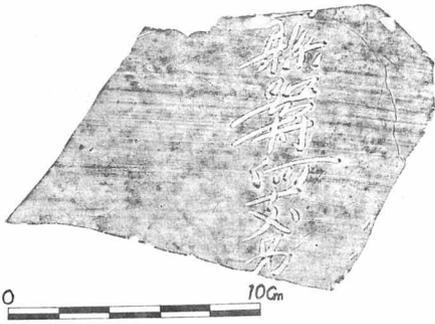
Ⅳ. 토기가마의 운영방식과 생산체계

1. 가마 운영의 특징과 조업집단

통일신라 시기에는 경주를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 국가 주도 토기 생산체계와, 각 지방에서 주변 지역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지역 생산체계가 병존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왕경지역의 토기 사용을 공급한 대표적 유적으로는 경주 화곡리 유적을 들 수 있다. 이 유적은 왕경 중심부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으나, 양질의 점토 자원, 풍부한 연료, 인접한 수계(河川) 등 입지 조건이 양호하여 대규모 토기 생산에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이동현 2022). 특히 이곳에서는 명문 토기가 다수 출토되어, 단순한 지방 생산지가 아닌 국가가 직접 운영한 관요(官窯)로 기능했을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는 통일신라 왕경의 토기 수급 체계가 단순히 민간 생산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일정 부분 직접 관리·통제되었음을 방증한다.

중앙에서 운영된 관요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문헌기록³⁾으로는 신라 경덕왕대의 사례가 있다. 비록 와기전(瓦器典)의 최초 설치 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경덕왕대에 이를 도등국(陶登局)으로 개칭하였다는 기록을 통해 적어도 이 시기 이전부터 이미 토기 생산을 전담하는 관부가 존재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는 곧 토기 생산이 단순한 장인 집단의 활동을 넘어 국가가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생산 체계의 일부였음을

3) 『三國史記』, 卷39, 雜志8, 職官, “瓦器典, 景德王改爲陶登局, 後復故. 干一人, 史六人.”



서울 사당동 출토 기촌명 토기
(김원룡 · 이종선 1977)



경주 화곡리 생산유적 출토 인장 토기편
(성림문화재연구원 2012)

[도면 13] 서울 사당동 요지 출토 기촌명 토기(좌), 경주 화곡리 생산유적 출토 인장토기편

보여준다.

한편 지방의 경우, 대표적으로 서울 사당동 요지(김원룡 · 이종선 1977)를 들 수 있다. 이곳에서는 ‘OO현기촌 하지위(OO縣器村 何支爲)’ 명문이 확인되었는데, 이를 근거로 지방에서는 특정 기촌(器村)이 해당 지역의 토기 공급을 담당하며 운영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홍보식 2003). 이러한 명문 자료는 토기 생산이 지방에서도 일정한 조직과 체계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시사하며, 기촌이 해당 지역 수요를 담당하는 지역 단위 공급 거점으로 기능했음을 보여준다.

통일신라시대에는 신문왕대 이후 9주 5소경 체제가 완비되면서 지방 행정구역이 이전 시기보다 명확히 구분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지방 공급체계가 정비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가마 시설의 입지 특성을 고려할 때, 토기 생산은 행정적 구획 자체보다는 점토 자원의 질, 연료의 확보, 유통 경로의 편의성 등 실질적 생산 여건에 의해 크게 좌우되었을 것이다. 그 결과 재료 수급과 운송에 유리한 지점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생산시설 관련 취락이 형성되고, 이를 단위로 한 공급 권역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인 나말여초 시기는 신라 중앙사회가 급격히 약화되던 시기이다. 해공왕대 이후 중앙 귀족 세력의 반란을 기점으로 중앙체제는 흔들리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혼란은 진성여왕대에 이르러 각 지역에서의 반란으로 이어지며 지방 호족과 지역민들이 정치·사회적으로 주도권을 다투는 불안정한 국면을 맞이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중앙에 토기 생산과 관련된 관부가 존재하였다 하더

라도, 실제로 제 기능을 얼마나 수행했는지는 불분명하다.

앞서 Ⅲ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토기가마의 구조는 큰 틀에서 일정한 공통성을 유지하면서도 세부 속성에서는 지역적 특성이 확인된다. 이러한 지역성은 중앙의 통제력이 약화된 혼란기에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을 가능성이 크다. 토기 양상 또한 통일신라기에 들어 삼국시대와 달리 통일된 기종과 양식이 확산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나(이성주 2010), 귀족사회와 지방 호족사회의 형성과 함께 다시금 지역적 속성이 반영된 토기양상이 나타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추후 출토 토기의 양상에 대한 검토와 함께 심층적으로 다루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정치적 혼란의 결과만이 아니라, 통일신라 이후 당과의 교류를 통한 새로운 문화 요소의 유입과 기종 변화에 따른 생활문화의 다변화와도 긴밀히 관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통일신라기에 일정 부분 규격화되었던 가마 구조는 나말여초 시기에 이르러 세부 속성에서 지역적 차이를 보이며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나말여초 시기의 지방 토기 생산은 지방 세력층의 영향 아래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보령 진죽리, 영암 구림리와 같은 대규모 생산 유적 등에서도 경주 지역 출토품에서 확인되는 명문이나 관요 관련 관인(官印)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해당 유적들이 중앙의 관요 체제가 아닌, 호족과 같은 지방 세력 주도의 생산 기반 위에서 운영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2. 토기 생산의 수요층과 유통양상

앞서 언급한 지방 호족 세력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고려할 때, 나말여초 시기 토기의 수요층 역시 이들 지방 호족과 깊은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지방의 주요 호족 세력은 서해안을 중심으로 성장하였으며, 특히 서남해 지역의 세력들이 역사 무대의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통일신라 말기부터이다.

중국과의 해상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이 지역은 문화 교류는 물론, 경제 및 정치적 측면에서도 점차 중심지로 자리매김하였다. 특히 서남해 일대가 신라 중앙정부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된 계기는 장보고의 청해진 설치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신호철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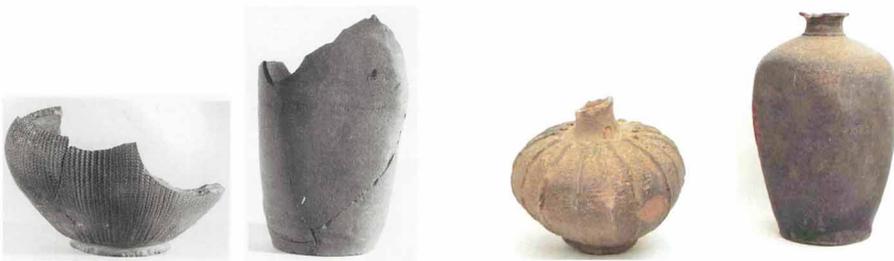
장보고는 흥덕왕 3년(828)에 당나라에서 귀국하여 청해진 설치를 요청하였고, 이

후 청해진은 해상무역의 중심지로 발전하였다. 그는 주로 서남해안 일대의 지방 세력을 기반으로 활동하였으며, 이를 통해 신라 중앙 정계에까지 진출한 강력한 호족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장보고는 당나라와의 독자적인 교류를 통해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신라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세력으로 자리잡았다.

이후 시기에 이르러, 지방 세력 중 가장 유력한 서해안 호족들은 서남해권을 중심으로 성장하게 된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견훤이 있으며, 그는 왕건과 함께 나주 지역의 패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또한 당진 일대에서 세력을 형성한 박술희(朴述希), 홍성의 공준(恭俊) 등이 9세기 후반에서 10세기 초에 이르는 시기의 주요 서해안 호족 세력으로 평가된다(김영수 2021).

나말여초 시기, 서해안권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할 정도로 강성했던 호족들은 이미 당시 수도였던 경주 지역에 뒤지지 않는 수준의 물품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 물품은 중앙에서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서해안 지역의 보령 진죽리, 영암 구림리, 여수 월성 유적 등에서 확인되듯, 서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한 자체적인 생산체계를 통해 조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정황은 장도 청해진 유적에서도 확인되는데, 나말여초기의 대표적인 토기인 주름무늬 병과 편병 등이 다량 출토되었다. 또한 서해안의 주요 호족 세력의 거점으로 알려진 홍성 신금성 유적에서도 고급 액체를 보관하기 위한 주름무늬 병을 비롯해 편병, 편구병 등이 출토되어, 당시 서해안 지역의 물질문화 수준을 잘 보여준다.



[도면 14] 홍성 신금성(좌), 장도 청해진(우) 출토 주름무늬 병 및 4면 편병

아울러, 장보고 시기부터 당나라와의 독자적인 교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홍성 신금성에서 출토된 10세기대 五代 시기의 화형청자(충남대학교박물관 1994; 이종민 2001) 또한 중앙정부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호족 세력들이 이러한 고급 물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도면 15] 홍성 신금성 출토 화형청자(좌), 보령 성주사지 출토 중국제 청자(우)

할 수 있다.

한편, 이 무렵 주름무늬 병과 함께 새롭게 등장하는 기종으로는 편병을 들 수 있다. 1면, 2면, 4면 편병이 나말여초기에 동시 출현하기 시작하며(한혜선 2019), 이 가운데 4면 편병의 형태는 다소 추정의 여지는 있지만, 그 구조적 특성을 살필 필요가 있다. 형태적으로 볼 때 4면 편병은 저장과 운송에 매우 유리한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선박과 같이 지속적으로 흔들리는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세워둘 수 있다는 점에서 기능적 형태의 제작 의도가 다분하다. 4면 편병은 앞서 살펴본 청해진, 홍성 신금성 등 해안 지역의 주요 유적에서 공통적으로 출토되는 대표적인 기종 중 하나로, 이 시기 서해안 세력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시사한다. 반면, 1면 및 2면 편병과는 달리 4면 편병은 현재까지 자기로 제작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는 4면 편병이 자기와 같은 고급 기종보다는, 실질적인 저장 및 운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실용 기였음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특성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4면 편병의 출현은 단순한 기종의 변형이라기보다, 당대 서해안 지역에서 성장한 해상 중심 호족 세력의 활동 양상과 관련이 있었던 것을 추정할 수 있다. 특히 장보고를 비롯한 해상 호족 세력이 활발한 교역 활동을 전개하며 세력을 확장해 나갔던 역사적 배경을 고려할 때, 해상 운송에 특화된 4면 편병과 같은 기종이 이들 세력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고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적지 않다.

당시 서해안 세력은 단순한 지방 세력이 아닌, 독자적인 정치·경제·군사적 기반을 갖춘 실질적인 권력 집단으로 기능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해안을 따라 성장하면서 해상 교통과 무역에 최적화된 도구와 용기를 필요로 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4면 편병의 출현은 단순한 지역적 특징이나 우연이 아닌, 당대의 정치적·경제적 조건 속



[도면 16] 1·2. 보령 진죽리유적 출토 4면 편병 및 출토유물

3. 영암 구림리 토기요지 출토유물 4. 익산 미륵사지 출토유물 일괄(보령박물관 2016)

에서 형성된 실용기종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구산선문(九山禪門) 중 하나인 보령 성주사지나 익산 미륵사지 등에서도 주름무늬 병, 편구병, 그리고 중국제 자기 등이 수습된 바 있다. 이러한 유물들은 보령 진죽리 유적 출토품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지역 간의 물질문화 교류 양상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성주사는 구산선문 중 하나로, 신라 왕경과 상당히 떨어진 지방인 보령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방 호족들의 지원을 받아 창건된 사찰로 알려져 있다(고영섭 2014). 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때, 성주사 역시 나말여초 시기 지역 가마에서 생산된 토기류의 주요 수요처 중 하나였을 가능성이 크다(충남대학교박물관 1998).

결론적으로, 나말여초 시기 서남해안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호족 세력은 단순한 지방 세력이 아닌, 독자적인 경제 기반과 소비층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정치적 자율성과 함께 해상 교역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해양 중심세력으로서 기능하였다. 이들 세력은 바다를 중심으로 한 해상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자체적인 생산과

소비 구조를 갖추었으며, 이는 대규모 가마 유적에서 확인되는 다양한 토기류와 관련 유물들을 통해 실증적으로 뒷받침된다.

4면 편병과 같은 특수한 기종의 등장은 이러한 해상 활동과 실용적 필요 속에서 탄생한 결과물로 보이며, 이는 단순한 지역적 현상이 아니라, 당대의 정치적·경제적 조건이 반영된 유물적 증거라 할 수 있다. 또한 구산선문 사찰들의 건립과 그 유적에서의 토기류 출토는, 종교 세력 역시 당시 지역 생산품의 수요처였음을 보여주며, 지역 호족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이러한 유통 구조가 형성되었음을 시사한다.

V. 맺음말

나말여초 시기는 정치적·사회적 과도기일 뿐 아니라, 물질문화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전환기였다. 통일신라의 중앙집권 체제가 붕괴되고 고려의 중앙권력이 확립되기까지의 이 시기는, 중앙과 지방 사이의 권력관계가 재편되고, 지방 호족 세력의 자립과 성장, 해상 교역의 활성화 등 복합적인 양상이 전개되었다. 이처럼 정치적 변화와 함께 등장한 지방 중심의 생산 구조는 토기가마 양상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II장과 III장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나말여초기의 토기가마는 단순히 기술의 진화 단계를 보여주는 구조물이 아니라, 해당 시기의 사회적 수요와 지역적 특성에 따라 구성된 복합적 양상을 갖는다. 지하식과 반지하식 가마가 공존하고, 동일 유적 내에서도 다양한 축조 방식이 혼재하는 양상은 토기 가마의 구조가 단선적인 기술 발전의 결과가 아니라, 중앙 통제가 약화된 시대적 배경 속에서 각 지역 제작 집단이 자의적으로, 그리고 필요에 따라 선택한 결과였음을 시사한다. 특히 반지하식 가마의 경우, 천정 조영 기술과 지주목, 내부 골재 등의 정교한 기술적 조합이 요구되었으며, 이는 천정 구조 축조기술이 이미 정착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 시기 주요 유적에서 주름무늬 병, 편구병, 편병 등이 공통적으로 출토되며, 이는 나말여초 시기를 대표하는 물질문화의 양상임과 동시에, 각 생산유적 간의 공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기종들의 유통 양상을 살펴보면, 주로 서해안권의 해상 교역 중심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확인되며, 이는 장보고를 기점으로 형성된 해상세력과, 서해안 지역의 건훤·박술희 등 지방 호족 세력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4면 편병과 같은 기종은 선박 내에서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적치할 수 있도록 설계된 형태로, 운송과 저장에 적합한 실용기로 해석된다. 이러한 특성은 당시 해상 운송이 유통의 핵심 경로였으며, 이를 서해안 기반의 호족 세력이 주도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물적 증거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성주사와 같은 구산선문 계열 사찰이나 익산 미륵사지 등 주요 사찰에서도 이 시기의 대표 기종들이 출토되고 있다는 점은, 당시 불교문화 또한 주요한 소비 주체로서 토기 생산체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는 지방 호족과 불교 세력이 상호 협력 관계 속에서 물자 소비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었던 역사적 맥락을 반영한다.

결론적으로, 나말여초기의 토기가마는 단순한 생산시설이 아니라, 해당 시대의 기술력, 정치·경제적 권력 구조, 물류 네트워크, 소비 양식, 지역 정체성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유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투고일 2025. 9. 1 | 심사완료일 2025. 9. 18 | 게재확정일 2025. 10. 1

참고문헌

- 강경숙, 2005, 『한국 도자기 가마터 연구』, 시공아트.
- 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25, 「남원동 백제요지 근린공원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정밀발굴조사 3차 학술자문회의 자료집」.
- 고영섭, 2014, 「신라 중대의 선법 전래와 나말여초의 구산선문 형성 - 북종선과 남종선의 전래와 안착 -」, 『신라문화』 44,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신라문화연구소.
- 공주대학교박물관, 2000, 『가교리도기요지』.
- 구분영, 2022, 「경기남부지역 토기가마 연구 남북국~고려시대 초기를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장도 청해진 유적발굴조사보고서 I』.
_____, 2002, 『장도 청해진 유적발굴조사보고서 II』.
- 기남문화재연구원, 2017, 『안성 조일리유적-안성 조일리 산업유동형 지구단위계획부지 발굴조사-』.
_____, 2020, 『평택 지산동2 유적』.
- 김여진, 2007, 「高麗時代 陶器生産施設과 生産品에 대한 研究」,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수, 2021, 「나말여초 서해 해상세력과 고려의 건국: 당진 출신 복지검, 박술희의 정치활동을 중심으로」, 『동방학』 44,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 김원룡·이종선, 1977, 「사당동 신라토기요지 조사 약보」, 『문화재』 11, 문화재관리국.
- 김진영, 2015, 「진천 삼용리·산수리 토기가마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동국문화재연구원, 2013, 『상주 구잠리 토기요지-고속국도 제30호선 상주~안동간 건설공사 1공구내 구잠리유적 발굴조사』.
- 동서중합문화재연구원, 2019, 『여수 국가산업단지 대립산업 공장 증설부지 내 월하동 월성유적』.
- 류기정, 2005, 「羅末麗初~高麗時代 土器窯의 變遷過程과 井洞里 土器窯의 操業時期」, 『부여 정동리 유적』, 충청문화재연구원.
- 민족문화유산연구원, 2019, 『영암 구림리 요장 3·4차 발굴조사보고서』.
_____, 2024, 『영암 마산리 요지 2차 시·발굴조사 현장설명회자료집』.
- 보령박물관, 2016, 『통일신라의 보령 진죽리 토기』, 에픽.
- 성림문화재연구원, 2012, 『경주 화곡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지구내 경주 화곡리 생산유적』.
- 신호철, 2011, 「高麗 건국기 西南海 지방세력의 동향: 羅州 호족의 활동을 중심으로」, 『역사와담론』 58, 호서사학회.
- 영남문화재연구원, 2003, 『대구 옥수동·경산 옥산동 유적 I』.
_____, 2005, 『대구 신당동유적』.
- 이경희, 2022, 「통일신라시대 주름문병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동현, 2022, 「통일신라토기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성주, 2010, 「자기발생의 전야, 통일신라시대」, 『한반도의 흙, 도자기로 태어나다』, 국사편찬위원회.
- 이종민, 2001, 『고려 초기 청자 연구』, 백산자료원.
- 이지영, 2023, 「호남지역 마한·백제 토기가마의 특징과 신기술 도입양상」, 『백제학보』 46, 백제학회.
-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1988, 『영암 구림리 토기요지발굴조사보고서-1차발굴조사중간보고』.
_____, 2001, 『영암 구림리 토기요지-2차 발굴조사 보고서』.
- 조성원·홍진근, 2010, 「燒成實驗을 통해 본 三國時代소성기술 연구-영남지역 자료를 중심으로-」, 『아외고고학』 9, 한국문화유산협회.

- 중앙문화재연구원. 2020. 『진천 송두산업단지 조성사업부지 내 진천 송두리유적』.
- 최병현. 2006. 「토기 요지에 대한 고찰」, 『진천 삼용리·신수리 토기 요지군』, 한남대학교중앙박물관.
- 최맹식. 1991. 「統一新羅 줄무늬 및 덧띠무늬 토기병에 관한 小考」, 『헤리티지: 역사와 과학』 24, 국립문화재 연구소.
- 충남대학교박물관, 1994, 『신금성』.
- _____. 1998, 『성주사』.
- _____. 2024, 『보령 진죽리유적 II』.
- 한백문화재연구원. 2013, 『화선 동단2 신도시 문화재 발굴조사 회성 청계리 유적 I』.
- 한영우. 2017. 『다시 찾는 우리 역사』, 경세원.
- 한혜선. 2017. 「羅末麗初 陶器扁球瓶의 연원과 자기로의 변안」, 『중세고고학보』 1, 중세고고학회.
- _____. 2019, 『고려 도기 연구』, 역락.
- 해강도자미술관, 2004, 『시흥 방산동 도기요지 발굴조사 보고서』.
- 호남문화재연구원, 2004, 『해남~삼산간 도로확장구간내 해남 백야리 요지 -해남 오시골 요지-』.
- 홍보식. 2003, 『신라후기 고분문화 연구』, 춘추각.
- 北野博司. 2007. 「律令国家轉換期の須惠器窯業」, 『研究報告』134, 国立歴史民俗博物館.

Structure and Operation of Earthenware Kilns in the Late Silla–Early Goryeo Period

Yoon, Yeo–Heon (Senior Researcher,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Museum)

Tae, Young–Rim (Researcher,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Museum)

This study examines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operational systems of earthenware kilns during the Late Silla–Early Goryeo period, reinterpreting the conventional linear model of kiln development from subterranean to semi-subterranean to aboveground types. Contrary to earlier views that semi-subterranean kilns represent a new innovation,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heir construction techniques, including arched ceilings supported by wooden posts, bamboo frameworks, and clay reinforcements, had already been established as early as the Proto–Three Kingdoms and Three Kingdoms periods.

The analysis focuses on major kiln sites where diagnostic pottery types have been identified—such as Bangsan-dong, Cheonggye-ri, Jinjuk-ri, Gurim-ri, Jisan-dong 2, and Joil-ri. A revised classification is proposed based on ceiling construction methods, distinguishing between the use of natural soil and clay. Evidence of drainage channels, stepped floors, and diverse rear wall venting systems indicates that kiln designs were deliberately adapted to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production requirements rather than following a uniform technological evolution.

These findings reveal that variations in kiln structures reflect technological choices made by production groups responding to local demands and operating

conditions. Moreover, the study highlights that pottery production and distribution during this transitional period were organized within decentralized systems shaped by regional powers. By situating kiln technologies within broader socio-economic contexts, this research provides critical insights into the cumulative and adaptive nature of technological traditions and their continuity into early Goryeo porcelain production.

Key words : kiln, kiln structure, local aristocracy



일제강점기 대구 달성토성의 고고학적 인식과

공간적 혼종성

Archaeological Perceptions and
Spatial Hybridity of Dalseong Earthen Fortress
in Daegu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김해경

건국대학교 조교수

김 선

재단법인 불교문화유산연구소 연구관

I. 서론

II. 일제강점기 대구 달성토성의 공간적 혼종성 형성 과정

III. 일제강점기 대구 달성토성의 공원, 신사, 발굴의 중첩 경험

IV. 일제강점기 보물고적 제94호 대구 달성의 행위 제약과 보존

V. 결론

국문 요약

대구 달성토성은 대한제국 시기부터 일제강점기 동안 공간적 성격이 재구성되며 다양한 변화를 축적한 장소로 팔립세스트적 성격을 지닌다. 본 연구는 달성토성의 혼종적 공간성과 각 시기별 이용 형태 및 물리적 변용 양상에서 교차된 관점을 해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1906년에 공원 조성 계획과 황대신궁 요배전 건립이 진행되었다. 1907년에는 공원조성이 본격화 되었고, 1909년에는 세키노 다다시의 고적조사가 있었으나 달성토성은 주목받지 못했다. 1913년 12월의 요배전 증개축공사에서 출토된 유물로 비로소 가치가 인지되었다.

이처럼 1910년대 달성토성은 대구부의 일본인 증가로 대구신사와 공원이 공존하여 공공공간과 종교공간이 혼재하는 특징을 보였다.

공간구성을 보면 진입부에는 수직적인 도리이와 등롱으로 대구신사의 시각성이 강조되었다. 진입부를 지나 조성된 평평한 원형공간은 조선인의 운동경기 장소로 이용되었고, 토성의 구릉지에는 산책로와 휴게시설이 도입되었다. 가장 안쪽의 대구신사에서는 종교적 제의뿐만 아니라 결혼식과 기우제등 일상성이 확산되었다. 1939년 대구신사의 확장에서 신원은 일본의 유명한 조원기인 혼다 세이로쿠가 담당했다.

1937년 대구신사는 국폐소사로 승격되었고, 1939년에는 달성토성이 보물고적 제94호로 지정되었다. 1940년 국체명정관 건립과정에서 토성 훼손으로 현상변경 문제가 제기되었고, 원형복구가 제시되었다. 1941년에는 대형석표 2기를 건립하여 보존의 당위성과 행위제한을 표식했다. 이와 같이 대구 달성은 근대공원·문화유산·신사·공공적 성격이 중첩된 혼종 공간으로, 식민지 시기의 디층적 공간 경험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러한 팔립세스트적 공간성을 해석하는데 의의를 둔다.

주제어 : 대구 달성공원, 혼종적 공간성, 팔립세스트, 대구신사, 일제강점기 도시공간

I. 서론

1963년 사적으로 지정된 달성 토성에 대한 문헌상 축성기록은 『삼국사기』에 ‘신라 점해왕(沾解王) 15년(261년) 달벌성을 쌓고 나마극종(奈麻克宗)을 성주로 삼았다.’에서 첫 기록이 확인된다. 『대구읍지』를 보면 고려시대 달성 서씨의 사전(賜田)으로 귀속되어 세거지 기능을 하였다고 한다. 『세종지리지』에서는 ‘읍석성(邑石城)은 군(郡) 서쪽 2리에 있다. 둘레가 4백 551보이며, 안에 샘이 둘이 있다.’라는 기록으로 존재가 확인된다. 이덕무(李德懋, 1741-1793)의 『아정유고(雅亭遺稿)』 ‘가야산기(伽倻山記)’에는 “성의 서북쪽에 흙언덕이 있는데 무너진 토성같으며 푸른 소나무가 뺨뺨이 있으니 여기가 달성이다.”라는 내용으로 토성이 무너져서 성곽 기능을 상실하였고, 송림으로 구성된 경관임을 알 수 있다(국립대구박물관 2014). 실제적인 토성의 존재 확인은 조선총독부에서 주관했다. 도리이 류조(鳥居龍藏)는 1914년과 1917년에 2차례의 조사를 진행했는데, 1917년 조사에서 토성 성벽 중 동문지 일대를 확인했다. 1968년의 문화관 건립을 위한 사전 발굴조사에서는 축조시기를 기원후 3세기로 도출했으나 축성 주체는 이견이 존재한다. 대구시에서는 2018년에 수립된 『대구달성 보존·활용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달성 토성의 원형 복원, 역사관 건립, 시민공원 조성 등을 포함한 1,300억원 예산으로 2025년 ‘국가사적 달성·경상감영 종합정비계획’을 확정하고, 2034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2034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중앙일보』 2025.6.23).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달성의 공원 기능과 문화유산적 가치에 관한 연구로 대별된다. 우선, 달성공원의 현대적 이용이 아닌 역사적 변천에 주목한 연구로는 달성의 입지와 풍수적 특성을 분석한 조호원(2021), 공원 내부의 가이즈카 향나무의 실체를 규명한 김중원·이정아(2018: 335~352), 달성공원을 직접적으로 다룬 박은아(2002: 131~154)의 연구가 있다. 문화유산적 가치에 주목한 연구들은 역사적인 성벽 조사를 진행한 윤용진(1968: 500~501), 달성토성과 대구지역 고대 정치체의 형성 기반을 다룬 김세기(2018: 197~236), 달성토성과 달성서씨와의 관련성을 분석한 구본욱(2023: 7~32), 국내 성곽과의 비교를 통해 달성의 특성을 규명한 이혁희(2024: 143~177) 등이 있다. 또한, 달성의 보존과 활용 방안을 제시한 옥희정(2008),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제언을 내놓은 이현태(2024: 297~324)의 연구도 확인된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부분 달성 유적 자체에 집중하거나 공원적 기능 및 대

구신사의 입지를 간략하게 서술하는데 그쳤다. 더불어 1939년에는 보물고적 제94호로 지정된 사당은 언급이 없었다.

달성토성은 대한제국 시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단순한 공원이 아니라, 다층적인 공간적 성격을 지닌 동시에 타국의 상징적인 종교 구조물이 입지한 장소였다. 특히 이용객에게 열린 공간일수록 시기별 필요에 따라 공간적 변형은 다각화되었고, 식민지 시기라는 특수성이 작용했지만,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팔림세스트(palimpsest) 또는 양피지는 이미 적혀 있던 글씨를 긁어내거나 씻어내어 기록매체를 재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렇게 재사용되어 다시 작성된 문서를 말한다. 이때 기존의 내용을 지우고 새로운 내용을 덧씌워서 사용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이전 글자는 완전히 지워지지 않아 흐릿하게 남아 있기도 한다. 최근에는 ‘겹쳐진 시간의 층위’, ‘과거와 현재의 중첩’의 의미로 건축·예술·문학·지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은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때에는 표층 아래에 존재하는 다양한 기억, 흔적, 시간의 켜가 중첩된 상태를 설명하는 데 사용했다. 현재 대구 달성공원은 일제강점기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공원의 성격을 재구성하는 다양한 공간적 변형을 겪었으며, 그 흔적은 달성공원의 팔림세스트로 축적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달성토성의 혼종적 공간성과 내재된 교차적 시점의 해석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우선, 각 시기에 작성된 측량지도와 도상자료를 통해 시기별 공간 변화를 추적하였다. 이어서, 변화의 실제적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동시기에 제작·유통된 발간엽서와 사진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당시 공원 공간에서 이루어진 변형의 법적·행정적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일제강점기 행정자료 및 법령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담론을 이해하기 위해 동시대 잡지 및 신문기사의 내용 분석을 병행하였다.

II. 일제강점기 대구 달성의 공간적 혼종성 형성 과정

1. 달성공원의 조성과 공간적 성격

달성공원의 조성은 ‘달성공원기성회’의 조직을 통해서 구체화되었다. 『대구상공회의소칠십년사』에서는 1907년에 대구 이사청이 대구일본인상업회의소를 통해 ‘달

성공원기성회'를 조직하였으며, 부회장에 서병오, 간사에 이석진이 조선인으로 참여하였음을 밝히고 있다(대구상공회의소 1977). 『대구민단사』를 보면 일본인과 일부 조선인으로 구성된 달성공원기성회의 취의서에 공원조성 목적을 “주민의 공락지(共樂地)를 조성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것을 통해 이곳에 내유(來遊)하는 사람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서술했다(대구부 1915). 기성회에서는 공원 조성 비용 마련을 위해 복권을 발매하였고, 그 수익으로 달성 내부의 가시덤불과 억새풀을 잘라낸 후 뽕나무, 소나무, 단풍나무를 식재하고 산책로와 운동장을 설치했다(上田義雄 1918).

1926년에는 달성토성 구릉지 상부인 언덕에서 바라보는 대구부의 조망이 훌륭하다고 서술했다(『동아일보』 1926.11.19). 이를 보면 1906년 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공원 조성이 구체화된 시점은 1907년임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는 대구의 농상공부 주사로 파견된 박중양의 대구읍성 훼손이 진행되었고, 서북성투였던 망경루가 달성공원으로 이전되었다(그림 2 참조).

근대적 측량으로 작도된 1:10,000의 1917년 발간 지도를 보면 공원의 공간 구성이 확인된다. 대구신사에 이르는 참도가 중심축을 이루며, 전면부의 달성토성에 위



a: 1917년 지도의 달성공원 공간 배치



b: 1917년 지도의 관풍루와 망경루 위치



c: 1917년 유리건판 사진의 달성토성 수목 지지대와 등의자 (소장품번호 : 건판 4845)



d: 1917년 유리건판 사진의 달성공원 시설물 (소장품번호 : 건판 36603)

[그림 1] 1917년 달성공원의 공간 구성(출처: 국립중앙박물관)

요된 넓은 부지는 별다른 시설물이 없다. 중심축을 따라 진입하면, 대구신사에 다다르고, 달성토성의 구릉지적인 지형에는 산책로가 조성되었다. 남쪽 능선에는 망경루가 자리하였고, 대구역 앞 경북도청 맞은 편에는 관풍루가 존치되어 있다(그림 1b 참조). 관풍루는 1917년 9월에 예산 800원을 들여 달성공원으로 이군했다(「조선시보」 1917.9.20, 「매일신보」 1917.9.29). 공원 시설의 도입 유무는 1917년에 촬영된 발굴 관련 사진에서도 확인된다. [그림 1c]와 [그림 1d]를 보면 토성 하부에서는 발굴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 상부에는 경관 조성을 위한 식재 수목과 이를 지탱하는 지주목, 그리고 이용자를 위한 등의자와 파고라 등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1917년과 1939년 지도를 비교할 경우, 달성공원 전체 공간 형태의 큰 변화는 없다. 1939년 지도에는 동북쪽 능선에 관풍루가 표식되어 있으며, 전면 해자기능의 하천이 정비되어 있다. 관풍루에 올라서 보는 동쪽의 대구 시가 조망을 경성 남산공원에서 바라보는 경성 시가지와 비교하면서, 발전하는 대구 풍광을 볼 수 있는 지점으로 각종 안내서에 소개되었다. 이후 달성공원은 봄에는 벚꽃, 여름에는 울창한 녹음 등 사계절 내내 대구 시민의 주요 소요처로 자리잡았다(「별건곤」 1930).

요컨대, 일제강점기 달성공원의 공간적 특징은 달성토성 상부를 산책로로 활용한 점, 그리고 조선시대 대구읍성의 주요 건축물인 망경루와 관풍루를 공원 내부로 이전하여 휴게시설로 변용한 점에서 찾을 수 있다.



a: 달성공원 공간 배치(1939년 지도)



b: 관풍루와 망경루 위치

(출처: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번호: 민속 26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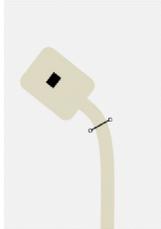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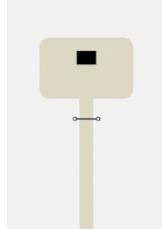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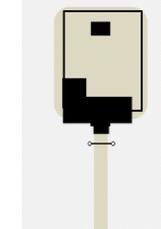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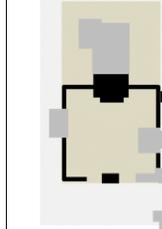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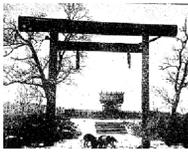
[그림 2] 1939년 대구 달성의 공간 구성

2. 대구신사의 조성과 공간적 의미

달성공원 중심부에 입지한 대구신사는 해방 이전까지 4차례의 외형적 변형이 진

행되었다(그림 3 참조). 대구신사 조성은 일본인의 대구 거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본인의 대구 거주는 1894년 청일전쟁 당시 일본군이 대구를 남부 병참선으로 삼아 달성에 주둔하면서 시작되었다. 1896년 일본군 임시헌병대 본부가 설치되었고, 1903년에는 일본군 주차헌병대로 개칭되었다. 경부선 건설과 연계된 대구역 건립과 러일전쟁의 승리 이후, 일본인 거주자는 1904년 800여 명에서 1905년 1,500명으로 급증하였다. 달성토성은 일본군의 군사적 승리를 상징하는 기념 공간으로 인식되었으며, 청일전쟁 시기 야전지(野陣地)로 사용된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신사 조성 논의가 제기되었다(「별건곤」 1930). ‘전통적으로 신을 공경하는 관념을 막을 길 없어 사당을 모시고 아침저녁으로 경배하고 보본반시(報本反始)의 예를 드리려는 논의’가 있었으며, ‘예로부터 토속적 신앙인 성황당이 있어 경외의 대상’이었기에 진좌지로 선정되었다(岩下傳四郎 1941). 당시 경상북도 관찰사 이용익은 신사 건립 저지를 위해 달성토성내 토지에 뽕나무 식재를 주장하였으나 실패하였다.

1905년 11월 3일에 황대신궁과 관련된 표목을 세우고 요배식을 거행했다. 이어 1906년 5월에 일본인 거류민단은 2,500원의 예산으로 황대신궁 요배전을 건립했고, 11월 천장절에 낙성 봉헌식을 진행했다. 요배전의 건축 재료인 노송은 기소(木曾) 지역 황실 소유 산림에서 특별 하사된 것이었지만, 건물 형태는 단순했다(그림 3 참조). 1913년에는 ‘대구신사’로 개칭되었고, 높은 곳에 요배전을 입지시키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그해 12월 요배전 개축 공사 낙찰 기록이 확인되며(「매일신보」 1913.12.21), 1914년 봄에 실제 공사를 진행하여 3월에 준공되었다. 1916년 당시 대구신사 재산은 목조 초가형 배전 1동, 사무동 1동, 부속 평가 1동과 도리이, 담장, 석단, 수세소였다(「조선시보」 1916.8.2). 1917년에는 대형 도리이가, 1929년에는 화강암 표비(表碑)가 기부되었다. 1921년에는 개축 논의가 있었지만(「조선시보」 1921.3.26), 1930년대 들어 대구신사의 3기 건축 공사가 추진되었다. 1931년에는 중전(中殿), 수전(手洗い), 옥책(玉垣), 계시관, 담장 및 사무소 신설 등이 예정되었으며(「부산일보」 1931.9.1), 1932년에는 높이 9m 규모의 석재 도리이가 기부·설치되었다(「조선신문」 1932.5.29). 1933년과 1934년에는 각각 26기와 16기의 석등이, 1935년에는 경신회에 의해 신마(神馬)가 봉헌되었다. 이때 만주사변과 상해사건 전사자를 위한 충혼비 건립이 추진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대구신사가 아닌 대명동 부영운동장에 건립되었다. 1935년에는 달성군청 산림과 직원들이 금액을 각출하여 대구신사로 거목을 이식했다. 서양측백나무(シロブヒバ) 수고 약 5.4m(18尺) 3그루, 가이즈카 향나무

구분	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
연도	1906년 ~ 1914년	1914년 ~ 1931년	1931년 ~ 1938년	1939년 - 1945년
공간 구성	황대신궁 요배전	황대신궁 요배전/ 대구신사	대구신사	대구신사
개념 평면				
사진				

[그림 3] 대구신사의 변천 과정

(カイツカイブキ) 수고 약 3m(10尺) 1그루였다(「조선신문」 1935.4.10).

1936년 8월 1일의 신사제도 개정에 대한 칙령을 통해 ‘일도일열격사(一道一列格社)’·‘일읍면일신사(一邑面一神祠)’를 공포했다. 총독부의 지원을 받는 국폐소사(國幣小社), 도부읍면으로부터 신찬폐백료공진(神饌幣帛料供進)을 받는 도공진사와 부공진사가 도입되었다(문혜진 2018). 대구신사는 1936년에 승격을 위한 봉찬회가 조직되었고, 1937년에 니혼마츠 코조(二本松孝藏)가 신사 건물을 설계하여 완성했다(「부산일보」 1937.1.26). 1938년에는 실질적인 공사가 착수되어 임시 배전에서 제례가 진행되었으며(「조선신문」 1938.2.21), 이때 신사 주변 임원 조성은 일본의 유명한 조원가 혼다 세이로쿠(本多靜六)가 담당하였다(「조선신문」 1938.4.23). 혼다 박사는 기존 지형을 존중하면서, 공원으로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수목을 식재하여 경관적 가치를 높이도록 설계했다. 지명 청부 입찰을 통해 본전, 배전, 신찬전(神饌殿), 사단(社壇), 신문(神門), 신사 수여소(授與所) 등 일체의 공사가 시행되었고, 고쿠라(小倉市) 출신 나카무라 도키지로(中村時次郎)가 책임 시공을 맡았다(「조선신문」 1938.5.5). 준공은 당초 1939년 9월로 예정되었으나, 실제 준공은 1939년 10월 15일에 이루어졌다.

대구신사는 달성토성의 구릉에 의해 위요된 입지에 1937년 조선내 8개 국폐소사 중 하나로 승격되어 위상이 한층 강화되었다.

3. 고적 제94호 대구 달성의 지정과 공간 구축

일본에서 1897년에 제정된 「고사사보존법」은 사사(社寺)에 속하는 건조물과 보물류를 '특별보호건조물' 또는 '국보'로 지정하고, 유지·보존에 필요한 국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문화재 지정 제도로 문화유산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하였다. 조선총독부는 1916년 「고적 및 유물 보존규칙」(이하 「보존규칙」)을 제정하여, 선별된 고적과 유물을 대장에 등록하는 문화유산 등록 제도를 시행하였지만, 국고 보조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아 실질적인 재정 지원은 없었다. 1924년에는 조선총독부 고적조사과가 폐지되었고, 1931년에는 총독부 외곽 조직으로 「조선고적연구회」가 결성되어 고적 조사 사업을 담당했다.

1933년에 제정된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이하 「보존령」)은 총독부 부령에 해당하는 「보존규칙」보다 상위의 제령(制令)으로 공포되었다. 「보존령」은 소유권 제한, 보물의 수출과 이출 금지, 자문기관인 보존회 설치 등을 통해 문화유산 보존 체계를 강화하였으며,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의 네 가지 범주로 문화유산을 구분지정했다. 제1조에서 보물 지정의 기준을 “역사의 증징(證徵) 또는 미술의 모범”이라 규정하여, 이는 조선총독부의 동화정책적 관점에 따른 취사선택의 기준이었다. 명승·고적은 “패총, 고분, 절터, 성터, 가마터 기타 유적, 경승지 또는 동식물·지질·광물로서 학술연구 자료가 되는 것”을 조선총독이 지정하도록 규정하여, 지정 권한이 식민 권력에 있음을 명시했다. 1938년 제4회 총회에서 신규 101종(총 457건)을 지정하면서 목적을 ‘내선일체의 관념을 적확히 표명하는 것’이라 밝히기도 하였다(「동아일보」 1938.11.26). 대구 달성은 1939년 10월 18일자 조선총독부 관보 제3825호에 의해 보물고적 제94호로 지정되었다. 지정 범위는 달성정 294-1 공원지 32,427평, 294-2 임야 100평, 294-4 공원지 147평, 294-5 공원지 144평 등이며, 당시 공원지는 국유지였다(그림 4 참조).

아울러 「보존령」은 문화유산 보존 기준을 구체화하고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소유권 제한과 현상 변경 제한을 명문화하였다. 제5조는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에 대해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고, 제18조는 유적 발굴 및 발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여 총독 보고를 의무화하였다. 이는 1941년 국체명징관 설립 과정에서 훼손된 성벽 일부를 조사할 당시 적용되었다.

이는 달성이 단순한 지역 명승지가 아니라, 일제의 문화유산 정책 속에서 제국적 의미가 부여된 기념 공간으로 편입됨을 보여주는 기제였다.



[그림 4] 대구 달성의 보물고적 제94호 지정(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조선총독부 관보)

Ⅲ. 일제강점기 대구 달성의 공원, 신사, 발굴의 중첩 경험

1. 공공성이 표출된 달성공원

1924년 7월에 발생한 대구 대홍수의 원인은 1923년에 달성 남쪽에 저류지 기능을 하는 천왕당못을 메우고, 대구 신시장을 만들면서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 특히 신정(新町) 일대는 대구에서 가장 지대가 낮은 지역의 빈민굴로 홍수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 상대적으로 지대가 높았던 달성공원은 신정교회당과 조양회관과 더불어 안전한 피난처로 기능하였다(「동아일보」 1924.7.25). 이는 달성공원이 단순히 휴식과 유희를 위한 공간을 넘어, 위기 상황에서 대구 시민들의 긴급 대피지로서도 활용되었음을 보여준다. 1926년 순종 승하 봉도식(奉悼式)에서 중요한 행사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대구내 조선인 다수가 달성공원의 봉도식에 참석했으며, 대구부 관

리가 주관한 공식 의례는 동운정(東雲町) 공설운동장에서 이루어졌다(「동아일보」 1926.5.3).

진입부를 통하면 다다른 신사 전면의 원형 평지는 야구경기, 정구대회, 육상경기(「동아일보」 1920.6.30, 「동아일보」 1921.4.4, 「동아일보」 1922.5.6, 「동아일보」 1922.5.13, 「동아일보」 1924.5.4, 「동아일보」 1926.3.28, 「동아일보」 1927.4.7, 「동아일보」 1928.4.1, 「동아일보」 1930.8.27, 「동아일보」 1932.5.3, 「동아일보」 1933.4.29, 「동아일보」 1934.4.12, 「동아일보」 1935.6.30)와 엄복동의 자전거경기도 진행(「동아일보」 1921.5.7)이 되었다. 구체적인 경기 종목은 100m, 200m, 800m, 1,500m, 마라톤경주, 장애물경주, 일인일각, 스폰 경주, 원반투, 포탄투, 주고도(走高跳), 주폭도(走幅跳), 자전거, 단체경기, 농구, 배구, 덤블링, 바스켓볼, 체조, 율동체조 등 이었다(「동아일보」 1927.4.18). 1938년부터는 공원광장이라는 명칭으로 등장한다(그림 5 참조). 1937년 공설운동장이 대명동에 건립되면서 이후 대규모 운동경기가 진행되었으며, 공원 광장은 전시행정 관련 행사장으로 변모했다(「동아일보」 1938.4.20).

일제강점이 시작되자 전국에는 벚꽃이 다량 식재되었고, 그 시기 잡지에서는 벚꽃 명소의 홍보가 보편적 기사였다. 경성이 제일 우선시되었고, 경상도에서는 대구의 달성공원, 동래의 온천장을 벚꽃 명소로 거론했다(「별건곤」 1929). 달성공원은 특히 ‘봄에는 - 사쿠라, 여름에는 녹음’ 명소 불리기도 했다(「별건곤」 1930). 이처럼 달성공원은 대구부에 제공된 공원으로서 사회적 의미를 지녔다. 당대의 담론에서는 공원을 한 지역 사회의 문화 수준과 문명화 정도를 가늠하는 지표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공원의 실제 이용 상황은 이러한 이상적 담론과는 괴리를 보였다. 1935년 「조선일보」에 따르면, 달성공원 입구 좌우에는 관상, 사주, 복서(卜筮)와 같은 점술 행위가 성행하여 이는 유원객의 산책을 방해하였고, 공원 내부에서는 물건을 파는 아동들이 방치된 채 활동하였으며, 대소변으로 인한 오염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를 “오탁불결”로 표현하며, 공원 관리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기도 하였다(「조선일보」 1935.7.21).

이처럼 달성공원은 홍수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대피지로 기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순중 봉도식과 같은 조선인의 집합 의례의 장소로 활용되면서, 대구부 주민의 일상적 여가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일본인 거류민이 증가하고, 일본신사 규모가 커지면서 식민지 권력 규모도 현시화되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조선인의 집합장소의 무대였음이 특징이었다. 더불어 통제되지 않은 상업행위와 불결한 오염문제는 공원



a: 조선인 체육대회(출처:『동아일보』 1932.5.3)



b: 1939년 달성공원의 운동공간(출처: 개인소장)

[그림 5] 달성공원의 이용행태

관리라는 근대적 담론의 기제가 되었다. 이는 달성공원이 식민지 도시에서 단순한 녹지 공간을 넘어 사회적·문화적·정치적 의미가 중첩된 장소였음을 보여준다.

2. 종교적 상징성을 담은 대구신사

대구신사에서 거행된 공식 제전은 춘계와 추계로 구분되었으며, 각각 4월 17일과 10월 17일에 정례적으로 거행되었다(『부산일보』 1915.9.24). 달성군에 설치된 헌곡 제전(獻穀齋田)은 황실 대례식에 곡물을 헌상한 바 있으며, 이를 존치하여 매년 수확된 쌀을 대구신사에 봉납했다(『부산일보』 1916.7.1). 곡물 헌상 의례와 더불어, 1930년대까지도 수확에 대한 감사와 풍요를 기원하는 신찬제(新嘗祭)가 지속되었다(『조선시보』 1930.11.23).

1917년 춘계 제전은 4월 16일과 17일 양일간 사자춤과 봉납된 관현악 연주가 진행되었다. 야간에는 동문정의 거주 일본인이 기부한 수백 개의 등롱이 시내와 공원의 뿔나무에 장식되어 불거리를 제공하였다(『부산일보』 1917.4.15). 1920년대 춘계 제전은 천변 임시경마장에서 열린 경마대회와 연계하여 열렸다(『조선시보』 1926.4.15). 추계 제전에는 신여의 행렬이 대구부청 주변 중요지점을 지나 대구신사로 환공하는 동선이었다. 야간에는 등롱으로 장식한 화려한 경관과 흥겨운 분위기를 연출하여 사흘간은 대구시 전체가 환락의 공간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했다(『부산일보』 1926.10.15).

대구신사에는 도리이와 등롱만 봉납된 것이 아니라 부산 용두산신사를 그린 토사

파(土佐派) 화가 이시다 가가이(石田花外)의 사경화(寫景畫)도 봉납되었다(「부산일보」 1929.7.28). 가뭄 시에는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고(「부산일보」 1929.8.8), -1930년대 결혼 의례가 간소화되면서 신사 앞에서의 결혼식이 성행하였다. 대구신사 앞 결혼 건수는 1926년 15쌍, 1928년 28쌍, 1929년 30쌍으로 증가하였으며, 혼례 형식은 일본식과 서양식이 혼합된 양식을 취하였다(「부산일보」 1930.9.21). 한편, 정치적 성격을 띤 국위진전기원제(國威進展祈願祭)(「부산일보」 1931.12.15)와 사변에서 전사한 군마(軍馬)를 위령하는 군마제(「조선신문」 1939.10.19), 해군부회에서는 군국사상의 보급과 총검(銃劍)에 대한 인식 고양을 목적으로 탄환을 봉납한 사례도 확인된다(「부산일보」 1934.1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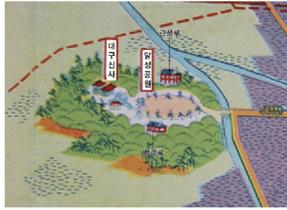
달성공원과 병치되어 존립한 대구신사는 외부에서 대구를 방문하는 이들에게 대구 구경의 필수적 경유지로 인식되었다. 1925년 임원근(林元根)이 ‘영남지방 순회반감(嶺南地方 巡廻片感)’에서 기록한 다음과 같은 서술은 이를 잘 보여준다.

“나는 일찍이 ‘영남의 대구, 대구의 달성공원’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 그러나 내가 본 달성공원은 승경(勝景)의 공원, 유원지(遊園地)의 공원, 공원의 공원이라기보다 신사의 공원, 도리이(鳥居)의 공원이었다. 공원 안으로 들어가는 첫 감상은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유연한 기분으로 산보를 한다는 느낌보다, 마치 ‘신사 참배’를 하러 들어가는 듯한 첫인상을 받게 된다. 그렇지 않더라도 신사 건축을 구경하러 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이는 다른 까닭이 아니라, 누구나 달성공원에 발길을 들여놓으면 정면 입구에 웅장한 신사 건축물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개벽」 제64호, 1925.12.1)

이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달성공원에 진입했을 때 가장 먼저 인지되는 것은 자연 경관이나 유원지적 요소가 아니라, 정면에 위치한 도리이와 신사 건축물이었다. 즉, 공원의 진입부는 신사로와 연결되는 입구의 상징성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달성공원이 단순한 근대 공원이 아니라 종교적 상징성과 근대적 유희 공간이 교차하는 혼종적 장소성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1929년과 1936년 대구 관련 관광지도를 보면 대구부의 다른 공간보다 크게 표현되었지만, 달성공원과 대구신사가 혼존됨을 표기에서도 보여준다(그림 6 참조).



a: 달성공원의 이용행태
(출처: 일제강점기 엽서)



b: 1929년 대구 관광안내도
달성공원내 구조물(출처: 개인소장)



c: 1936년 대구 관광안내도
달성공원의 공간 구성(출처: 개인소장)

[그림 6] 엽서와 관광지도에 표현된 달성공원

3. 발굴을 통한 고고학적 가치의 확장

대구에 대한 최초의 고적조사는 1909년 8월 23일 세키노 타다시(関野貞, 1868-1935)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는 통감부 탁지부 건축소의 촉탁을 받아, 야스이 세이이치(谷井濟一), 구리아마 슌이치(栗山俊一)와 함께 전국의 고건축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조사의 결과는 문화유산별 중요 가치를 서열화하여 특별 보호의 필요성에 따라 ‘甲-乙-丙-丁’의 네 단계로 구분했다(関野貞 1910). 대구에서는 문묘와 달성이 ‘乙’에 해당하는 특별보호 필요 대상이었으며, 경상감영의 외삼문은 ‘丁’, 선화당은 ‘丙’으로 분류되어 특별보호의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분류되었다. 이 조사 과정에서 촬영된 사진을 살펴보면, 경상감영은 구조적 형태를 일정 부분 유지하고 있으나 망경루는 달성공원으로 이 건된 후였다. ‘丁’으로 분류된 경상감영의 외삼문이 ‘丁’으로 분류되었기에 달성공원으로의 이 건에 무리가 없었다. 이는 고적조사에서의 가치 서열화에 따른 구분은 이후 건축물의 존치와 이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그림 7 참조).

1913년 12월 10일에는 황대신궁 요배전 공사에서 유물이 처음 발견되어 신고되



a: 경상감영 외삼문 유리건판 사진
(소장품번호 건판 265)



b: 망경루 유리건판 사진
(소장품번호 건판 000273)



c: 달성토성에서 발굴된 거북이모양 토기 유리건판 사진
(소장품번호 건판 25781)

[그림 7] 달성공원의 이용행태(출처: 국립중앙박물관)

었다. 발견 당시 조선총독부 기록에 따르면 ‘도기이며, 거북모양, 높이는 1촌, 길이는 6촌 정도이고, 술병, 혹은 물그릇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언급되었다(그림 7c 참조). 신라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였고, 발견 당시 파손된 채로 출토되어 일부가 보완되었으나, 하부 파편과 받침에 해당하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다(정인성 2023).

도리이 류조는 1914년과 1917년에 달성토성을 조사했다. 1914년에는 대구 신사 진입로 개설을 위하여 절개된 성벽에 대하여 긴급조사를 진행하였다. 당시 사진을 보면 진입부에 해당하는 성벽이 절취된 모습을 보인다(그림 8a 참조). 그는 성벽 절개 지점 중에서 남천쪽의 외측 기저부를 조사하였고, 이곳에서 남천과 나란히 흐르는 좁은 수로의 높이까지 성벽의 단면을 정리하여(有光教— 1959), 신라의 성벽 축조 이전에 형성된 문화층을 확인하였다(咸舜燮 2012). 1917년 조사는 동측 입구의 성벽, 성내 중앙부, 북측성벽 외부, 북쪽 모퉁이에서 돌출된 구릉 등 4지점에서 진행되었다. 1914년 이미 진입로 확장공사로 동측 입구의 남북 측면 및 바닥이 굴착되었고, 대구신사의 증개축으로 중앙부가 훼손된 상태였다(有光教— 1943). 유물은 동물뼈, 토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1914년 발굴 자료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지만, 1917년 조사 내용을 보면 대구 신사의 주요 참도 개설로 훼손되어 노출된 상태라고 했다. 이때 조사 내용을 대구 상정(上町) 재향군인분회 사무소에서 ‘유사이전의 민족’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고, 달성토성의 축성은 경주 반월성과 같은 시대라고 했다(「부산일보」 1917.12.14). 도리이 류조는 본질적으로 일본제국주의 침략행위에 동조한 관학자였다. 경주 월성과 달성토성의 삼국시대 이전 문화층의 양상은 한문화(漢文化)의 일방적 영향(藤田亮策·梅原末治 1923)이 아니라 아시아 북방과의 교류를 통한 내적 성장의 결과가 반영된 것(鳥居龍藏 1925)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에 기반을 둔 것으로, 철저히 소수 의견으로 치부되어 확산되지 않았다. 한국고고학계에서 도리이 류조의 학설은 관련 분야의 논점이 형성될 때까지 거의 거론되지 않았거나, 영향력이 미미하였다고 평가받았다(咸舜燮 2012).

달성토성 조사는 일제강점기 이래 부분적인 발굴과 지표조사가 반복되어 왔고, 성벽 축조 공정이나 성내 시설을 온전히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2010년대 이후 정밀 지형 측량과 비파괴 조사가 추진되었고, 최근에는 종합적인 정비 기본구상이 수립되었다. 국립대구박물관의 연속 보고서는 달성토성 자체보다 주변 고분군과 권역 유적의 조사 성과에 집중되었다. 방대한 조사 성과 축적은 성곽·분묘·취락이 하나의 체계를 갖춘 지역사 연구의 토대로 작동했다. 특히 2025년 5월부터 진행된 본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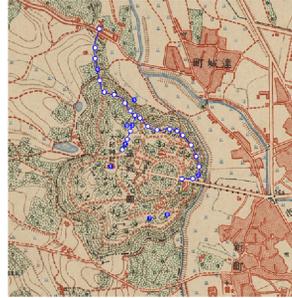
적인 달성토성의 발굴조사에서는 매장유산이 확인되어 고고학적·역사적 가치가 재조명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영남일보 2025. 03.25).



a: 1914년 유리건판 사진의 달성공원
진입부(출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번호: 건판 2191)



b: 도리이 류조가 작성한
달성토성 발굴도면
(출처: 국립대구박물관, 2014)



c: 1917년 지도에 표시한 발굴 위치

[그림 8] 도리이 류조의 조사 내용

IV. 일제강점기 보물고적 제94호 대구 달성의 행위 제약과 보존

1.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에 따른 현상 변경

1938년 미나미 지로(南次郎) 조선총독은 제3차 조선 교육령 개정을 앞두고 국체명징(國體明徵)·내선일체(內鮮一體)·인고단련(忍苦鍛鍊)의 세 가지 이념을 황국 신민의 기본 덕목으로 제시하였다. 그는 이를 ‘황국신민서사(皇國臣民誓詞)’로 발표하였으며, 1938년 3월 3일 공포된 제3차 조선 교육령의 토대가 되었다. 이와 같은 제국 이념의 고취는 1939년 이후 대구 지역에서도 가시화되었다. 같은 해 4월 29일자 「조선신문」에는 대구신사 경내에 1940년 황기(皇紀) 2600년을 기념하기 위해 ‘국체명징관’ 건립 주장이 실렸다(「경성일보」 1939.4.29). 1940년 1월에는 경상북도가 도비를 지원하여 11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다(「조선신문」 1940.1.20). 그해 2월에는 경북도회가 국체관념을 보급·확산하기 위해 국체명징관 건립을 추진한다고 했다(「동아일보」 1940.2.25).

국체명징관 건립 과정에서 진행된 주요 행사도 보도되었다. 1940년 8월 7일에 지

신제가 거행되었고(「매일신보」 1940.8.7), 그 해 12월 19일에 상량식이 진행되었다(「조선신문」 1940.12.19). 1941년 5월에는 일본 내지의 저명한 화가 이소다 나가야키(磯田長秋)가 제작한 「교육칙어를 내리는 장면」이 완성되어 조만간 대구로 이송될 예정이라고 했다(「매일신보」 1941.5.27). 작품내용은 궁중어학문소(宮中御學問所)에서 명치대제(明治大帝)가 총리대신 아마가타 아리토모(山縣公)와 문부대신 요시카와 히데노부(芳川男)에게 친히 교육칙어를 내리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같은 해 9월에는 이 외에도 여러 화가들의 작품이 추가로 도착할 예정이라는 기사가 이어졌다.

국체명징관의 건립은 1939년 보물고적 제94호로 지정된 법제의 영향을 받았다. 1940년 9월 15일의 조선총독부의 보고 문건은 건물 건설 과정에서 총독부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절취 공사가 진행된 사실을 대구를 방문한 가야모토 모리토(樞本杜人)가 작성했다. 11월 19일에 전달된 총독부 답신에서는, 공사 과정에서 성곽 절토가 있었으나 고적의 현상이나 보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했지만 「보존령」 제5조의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다고 했다. 훼손된 부분은 달성 남측 성벽의 동쪽 끝부분으로, 지정 지역 내 달성정 294-1 구역에 해당한다. 건평은 146평이지만 부지로 개척된 면적은 동서 45칸, 남북 20칸이었다. 국체명징관 후면은 높은 성벽에 접해 있었으므로, 근로봉사대의 노동력을 동원하여 이를 평탄하게 조성하려 하였고, 이미 동서 35칸에 걸쳐 성벽의 절반가량을 깎아내 내부의 석축이 노출된 상태였다. 제1도와 제2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 그 파괴 정도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성벽은 성곽의 핵심 구조물로, 이를 상실할 경우 성의 성립 의의 자체가 훼손된다.”라고 명시했다. 이에 경상북도는 훼손된 성벽에 대한 원형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공사 진행 시 조선총독부 관계자의 현장 감독 필요성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1940년 12월 26일에는 “공익상 필요한 건물 건립이므로, 공사를 위하여 최소한의 절취만을 시행



a: 국체명징관에 기부된 벽화
(출처: 「매일신보」, 1941.5. 27)



b: 국체명징관의 준공
(출처: 「경성일보」 1941.9.10)

[그림 9] 국체명징관의 구성과 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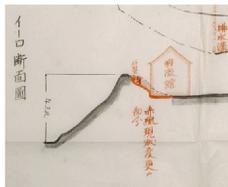
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경상북도에서는 1941년 5월 26일에 「대구달성성벽 복원공사설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 복구할 성벽은 60m, 측구 석단 연장 70m로 공사비는 587원으로 상정했다 (그림 10e 참조).

달성 토성 훼손은 1940년 국체명징관 건립 이전에도 제기된 사안이었다. 이를 입증하는 서신자료에 따르면, 1923년 당시 달성공원에서 동문 좌측 토루(土壘)가 절취되어 저지대 매립과 30칸 이상 수목 벌채가 있었다. 다나카 주조(田中十藏)는 조선총독부 박물관 주임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에게 해당 조치가 고적과 명승의 보존에 문제가 없는지를 문의한 문서가 남아 있다. 회신내용은 1921년에 이미 협소한 출입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양측 성벽 일부가 절취되어 도로폭이 확장되었으나, 진입부의 분위기는 개선되지 않았다. 이에 동쪽 시가지 조망 확보 차원에서 교토부 기술자의 설계로 도로 개착과 성벽 절취를 진행했고, 내부의 밀집 수목은 제거하거나 이식했다. 절취된 토사는 공원 외부 시장으로 통하는 도로 정비에 활용되었다. 그러나 이때 진행된 토성 훼손과 수목 벌채 과정에서는 달성토성에 대한 별다른 보존 조치는 없었다(국립중앙박물관 일제강점기 서류 1923.6.14).



a: 1941년 작성된 「대구달성 현상변경복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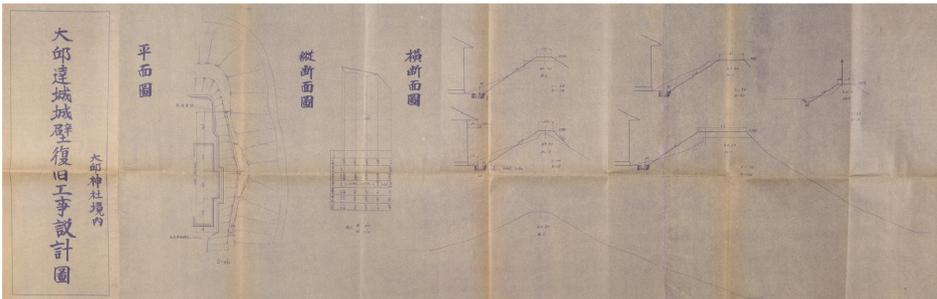
b: 「대구달성 현상변경복구도」의 상세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F009-001-005-001)



c: 「대구달성 현상변경복구도」의 첨부사진a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번호: 건판 20099)



d: 「대구달성 현상변경복구도」의 첨부사진b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번호: 건판 20100)



e: 「대구달성성벽 공사설계도」(출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A070-019-005-001)

[그림 10] 달성토성과 국체명징관 건립으로 인한 달성토성의 훼손

이는 1939년 「보존령」에 따라 보물고적 제94호로 지정됨으로써, 달성토성이 현재 까지도 문화유산 현상변경 절차와 같은 법적·제도적 영향권에 놓여 있었음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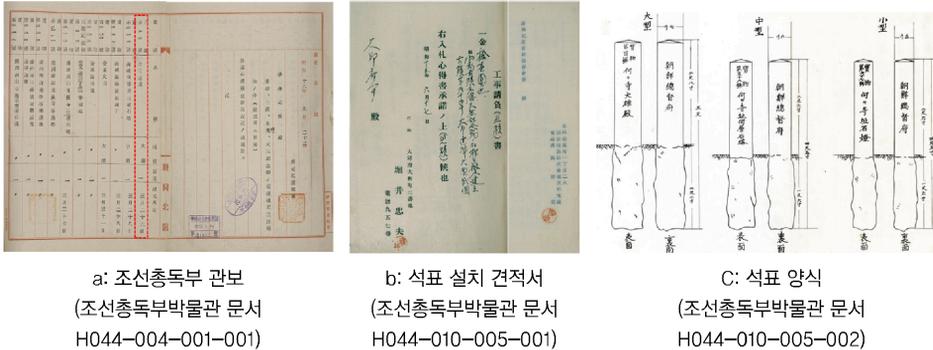
2. 보존과 가치를 표출하는 석표 설치

조선총독부는 1933년 「보존령」 제정 후 1938년경 부터 광복 직전까지 문화유산에 관한 석표를 제작하여 설치했다. 석표는 고적이 입지한 지역에 설치하여 고적의 존재를 인지시키고 부주의한 접근을 제한하려는 취지로, 조선총독부의 고적에 대한 관리 방식중 하나였다. 이때 보존·관리 업무를 맡은 조선총독부 학무국(學務局)과 고적이 입지한 행정구역 관할의 각 도와의 행정절차로 진행되었다(표 1 참조).

[표 1] 석표 건립을 위한 행정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조선총독부 학무국의 각 도 통첩	각 도에서 조선총독부 학무국에 조사보고 및 예산 신청	조선총독부 재무국이 각 도에 통첩	각 도는 배부예산으로 석표 건립 후 학무국에 건립 완료 보고
석표 건립 대상 목록 제시/ 석표 건립 비용 조사 후 보고 요청/ 해당 조사비용에 근거한 석표 건립 예산 신청	석표 제작·운반·건립 비용 견적서	조선총독부 재무국 각 도에 석표 예산 배부 / 석표 완료 후 보고 요청	석표 건립 위치도와 석표 사진 보고

1934년의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회’의 제1회 총회에서는 심사와 토의 결과 보물 210건, 고적 21건, 천연기념물 21건을 보존 대상으로 확정하였다. 석표를 설치하여 지정 사실을 명시하고, 필요에 따라 출입을 금지시켰다(「조선일보」 1934.5.4). 이후 석표는 문화유산 관리의 핵심 장치로 강조되었는데, 1938년 기사에서는 석표를 ‘고적의 파수꾼’이라 표현하며 각 도에서 예산을 제출하였다고 하였다(「조선일보」 1938.1.11). 같은 해 석재 제작비로 332개에 총 5,652원이 배정되었다(「동아일보」 1938.5.25). 제4회 총회에서는 보물 고적 지정은 신규 지정 101종을 포함하여 총 457건으로 확대하였다. 이때 지정 목적은 ‘내선일체의 관념을 적확히 표명하는 것’이 고적 애호를 통해 향토애를 고취하고 국토존중의 정서를 강화하는 데 있다고 명시했다(「동아일보」 1938.11.26). 보물 고적 지정이 확대될수록 석표 건립은 지속되었다. 석표 설치 사업은 1939년에도 계속되어, 조선총독부 학무국은 각 도



a: 조선총독부 관보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H044-004-001-001)

b: 석표 설치 견적서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H044-010-005-001)

C: 석표 양식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H044-010-005-002)

[그림 11] 석표 양식(출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의 주요 유구에 대해 석표 818개를 제작하였다(『동아일보』 1939.1.10). 학무국 통첩에는 석표 양식이 첨부되었는데, 이는 석질·형태·치수·각자(刻字) 형식과 내용을 규정하였고, 크기는 대·중·소로 구분했다(그림 11c 참조).

대구 달성과 관련해서는 『경상북도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석표 제작 완료에 관한 보고 건』(1940.11.6)이 남아 있다. 석표 건립 예산이 청구되어 입찰이 진행되었고, 호리이 다다오(堀井忠夫)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달성토성에는 석표 양식 중 대형 2기이며, 건립일은 3월 26일로 기재되어 있다(그림 11a 참조). 그러나 현재에는 석표가 남아있지 않아서 그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다.

V. 결론

대구 달성공원은 일제강점기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공간의 성격이 재구성되는 다양한 공간적 변형을 거쳐 왔으며, 그 흔적들은 달성공원의 팔립세스트로 층위화되어 축적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구 달성토성이 지닌 혼종적 공간성과 그 속에서 교차하는 다양한 관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했다.

첫째, 대구 달성에 대한 최초 고적조사는 1909년 세키노 타다시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조사는 주로 대구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중요도를 등급화하는 과정에서 경상감영 외삼문이 ‘丁’등급으로 분류되어 이후 달성공원으로의 이전 근거가 되었다. 이어 1913년 요배전 공사에서 거북 모양 토기가 발견되었으며, 1914년과 1917년에는 대구신사 진입로 확장 공사와 관련된 발굴 조사가 수행되었다. 일제강

점기 발굴조사는 달성토성의 고고학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규명하기보다는 대구신사 건축 및 확장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유물을 통해 그 중요성이 인식되었다.

둘째, 달성토성 내에 대구신사가 입지하게 된 배경에는 경부선 증설과 대구역 건설로 인한 일본인 거류자의 증가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당시 일본인들은 신사 건립에 그치지 않고 주변을 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근대적 공원 조성의 맥락 속에서 신사와 공원이 병립하는 특성을 드러냈다. 이 과정에서 신사는 달성토성에 의해 위요된 공간적 형태를 지니면서 전면 입구를 통해 진입하는 공간감을 형성하였다. 나아가 달성공원의 조성은 이용객의 증가를 유도하여 공간 활용의 폭을 더욱 확장시켰다.

셋째, 달성공원은 달성토성의 구릉지를 산책로로 활용하고, 대구읍성과 경상감영의 부속 건물을 공원 내부로 이전하였다. 이는 조선시대 건축물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공원 내에서는 휴게시설로 그 기능이 변용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산책로 주변에는 의자와 파고라가 설치되어 근대적 공원의 면모를 갖추었으며, 1938년 대구신사 확장 시에는 동경의 근대 조원가 혼다 세이로쿠가 공원과 연계된 신사의 임원(林園) 설계를 담당하였다.

넷째, 달성공원의 이용 양상을 살펴보면, 신사 전면의 원형 운동장에서 조선인이 주최하는 운동 경기의 장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1940년 대구신사가 확장되면서 공원의 전면성은 점차 약화되고, 신사로 진입하는 관문적 성격이 부각되었다. 더불어 대구신사에서는 춘계와 추계 제례뿐 아니라 결혼식, 기우제, 전몰 위령자 참배, 황태자 탄생 기념행사, 포탄 헌납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면서, 종교 공간이 점차 대구 시민의 일상적 공간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경험하였다.

다섯째, 1933년 제정된 「보존령」에 따라 1939년 달성토성은 보물고적 제94호로 지정되었다. 당시 지정 목적은 ‘내선일체의 관념을 적확히 표명하는 것’으로 밝혔는데, 달성토성이 지닌 조선의 역사가 아닌 식민지 일본의 관점이 투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1940년에는 달성 토성내부에 국체명징관 조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설계와 함께 기초 공사가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달성토성의 기저부가 훼손되었다. 당시 「보존령」 제5조에 따라 현상 변경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적절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조선총독부는 현상 변경 범위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였고, 현장 조사 이후 1941년에는 복원공사 설계서가 제출되면서 국체명징관 건설이 진행되었다.

일곱째, 1940년부터 보물고적 제94호인 달성에 이를 알리기 위한 석표 건립이 진행되었다. 석표는 ‘고적의 파수꾼’으로 불리며, 고적에 대한 애호와 존중의 정서를 가시화하는 장치로 기능하였다. 대구 달성에는 대형 석표 두 기가 세워졌다.

살펴본 바와 같이 대구 달성토성은 일제강점기 동안 단순한 근대 공원에 그치지 않고, 문화유산·대구신사·공공적 성격이 공존하는 혼종적 공간으로 기능하였다. 이러한 성격은 달성토성에서 전개된 다양한 행위 속에서도 교차된 관점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달성토성이 지닌 팔립세스트적 성격을 해석한 데에 의의를 둔다.

투고일 2025. 8. 29 | 심사완료일 2025. 9. 20 | 게재확정일 2025. 10. 1

참고문헌

- 關野貞, 1910, 『朝鮮藝術之研究』, 度支部建築所.
- 구본옥, 2023, 「대구의 달성토성과 달성서씨」, 『한국학논집』93.
- 국립대구박물관, 2014, 『대구달성유적 I-달성 조사보고서』.
- 김세기, 2018, 「대구지역 고대정치체의 형성기반과 달성토성의 위상 - 고고자료를 중심으로 -」, 『대구사학』 1(132).
- 김중수, 2020, 「일제강점기 문화계 법제 연구-「조선박물관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1933년) 제정·시행 관련」」, 『헤리티지:역사와 과학』52(2), 국립문화재연구원.
- 김종원·이정아, 2018, 「일제강점기의 가이즈카항나무의 실제 대구 달성(達城) 사적지의 노거수 두 그루를 사례로」, 『한국학』41(2).
- 남익희, 2020, 「대구 달성고분군의 편년과 성격」, 『아외고고학』37.
- _____, 2022, 「일제강점기 대구 달성고분군 자료 공개와 활용」, 『고고학지』28.
- 대구광역시, 2018, 『대구달성 보존·활용 기본계획』.
- 大邱府, 1915, 『大邱民團史』.
- 대구상공회의소, 1997, 『大邱商工會議所七十年史』.
- 대동문화재단연구원, 2017, 「달성토성 정비·활용 시범사업부지 내 유적 시굴조사 약보고서」.
- _____, 2019a, 「대구 달성 I」.
- _____, 2019b, 「대구 달성 II」.
- 문혜진, 2018, 「식민지 조선으로의 신사신도의 유입에 관한 일고찰」, 『한국학』41(2).
- 박은아, 2002, 「달성공원(대구)」, 『靑藍史學』 5.
- 삼한문화재단연구원, 2022, 『대구 달성 정밀지표조사 보고서』.
- 육희정, 2008, 「달성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연구 -역사적인 변천과정과 현황분석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용진, 1968, 「大邱 達城 城壁調査」, 『美術史學研究』1(100).
- _____, 1990, 「韓國初期鐵器文化에 관한 研究-大邱地方에서의 初期鐵器文化-」, 『韓國史學』11.
- _____, 2007, 「달성유적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 『達城 잊혀진 유적의 재발견』, 향토역사관 개관 10주년 특별 전시, 대구문화예술회관.
- 이혁희, 2024, 「국내 성과과의 비교를 통한 대구 달성의 특징」, 『중앙고고연구』44.
- 이현태, 2024, 「대구 달성 유적의 정비·활용(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제언」, 『白山學報』128.
- 정인성, 2023, 「대구 달성의 성격과 가치」, 『대구 달성의 역사·고고학적 성격과 문화유산 가치』, 대구 달성(사적) 학술세미나.
- 조호원, 2021, 「대구 달성의 입지와 풍수지리 특성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咸舜燮, 2012, 「日帝強占期 鳥居龍藏의 慶州月城 및 大邱達城 調査에 대하여」, 『영남고고학회 학술발표회』, 영남고고학회.
- 허이주, 2016, 「대구 달성토성에 해자를 찾아주자」, 『도시문제』51(577).
- 藤田亮策·梅原末治, 1923, 『大正九年度古蹟調査報告』 第一冊(金海貝塚發掘調査報告).
- 藤田亮策·梅原末治·小泉顯夫, 1925, 『大正十一年度古蹟調査報告』 第二冊(南朝鮮に於ける漢代の遺蹟).
- 上田義雄, 1918, 『大邱案内』.
- 辻子実, 2003, 『侵略神社』, 東京: 新幹社.

岩下傳四郎, 1941, 『大陸神社大觀』, 大陸神道聯盟.
 有光教一, 1943, 「石器時代の大邱」, 『大邱府史』第三特殊編.
 _____, 1959, 「慶州月城・大邱達城の城壁下の遺跡について」, 『朝鮮學報』14.
 烏居龍藏, 1925, 「濱田・梅原兩氏著『金海具塚報告』を読む」, 『有史以前の日本』.

-신문기사-

「경성일보」 1939년 4월29일 기사.
 「경성일보」 1941년 9월10일 기사.
 「동아일보」 1920년 6월30일 기사.
 「동아일보」 1921년 4월 4일 기사.
 「동아일보」 1922년 5월 6일 기사.
 「동아일보」 1922년 5월13일 기사.
 「동아일보」 1924년 5월 4일 기사.
 「동아일보」 1924년 7월25일 기사.
 「동아일보」 1926년 3월28일 기사.
 「동아일보」 1926년 5월 3일 기사.
 「동아일보」 1926년11월19일 기사.
 「동아일보」 1927년 4월 7일 기사.
 「동아일보」 1927년 4월18일 기사.
 「동아일보」 1928년 4월 1일 기사.
 「동아일보」 1930년 8월27일 기사.
 「동아일보」 1932년 5월 3일 기사.
 「동아일보」 1933년 4월29일 기사.
 「동아일보」 1934년 4월12일 기사.
 「동아일보」 1935년 6월30일 기사.
 「동아일보」 1938년 4월20일 기사.
 「동아일보」 1938년 5월25일 기사.
 「동아일보」 1938년11월26일 기사.
 「동아일보」 1939년 1월10일 기사.
 「동아일보」 1940년 2월25일 기사.
 「매일신보」 1913년12월21일 기사.
 「매일신보」 1917년 9월29일 기사.
 「매일신보」 1940년 8월 7일 기사.
 「매일신보」 1941년 5월27일 기사.
 「부산일보」 1915년 9월24일 기사.
 「부산일보」 1916년 7월 1일 기사.
 「부산일보」 1917년 4월15일 기사.
 「부산일보」 1917년12월14일 기사.
 「부산일보」 1926년10월15일 기사.

『부산일보』 1929년 7월28일 기사.
 『부산일보』 1929년 8월 8일 기사.
 『부산일보』 1930년 9월21일 기사.
 『부산일보』 1931년 9월 1일 기사.
 『부산일보』 1931년12월15일 기사.
 『부산일보』 1934년12월18일 기사.
 『부산일보』 1937년 1월26일 기사.
 『조선시보』 1916년 8월 2일 기사.
 『조선시보』 1917년 9월20일 기사.
 『조선시보』 1921년 3월26일 기사.
 『조선시보』 1926년 4월15일 기사.
 『조선시보』 1930년11월23일 기사.
 『조선신문』 1932년 5월29일 기사.
 『조선신문』 1935년 4월10일 기사.
 『조선신문』 1938년 2월21일 기사.
 『조선신문』 1938년 4월23일 기사.
 『조선신문』 1938년 5월 5일 기사.
 『조선신문』 1939년10월19일 기사.
 『조선신문』 1940년 1월20일 기사.
 『조선신문』 1940년12월19일 기사.
 『조선일보』 1934년 5월 4일 기사.
 『조선일보』 1935년 7월21일 기사.
 『조선일보』 1938년 1월11일 기사.
 『중앙일보』 2025년 6월23일 기사.
 『개벽』 64, 1925년12월 1일 기사, “嶺南地方 巡廻片感”.
 『별건곤』 20, 1929년 4월 1일 기사, “地上縱覽 朝鮮 各地 品評會 - 요새에 피는 八道の 꽃 이야기”
 『별건곤』 33, 1930년10월 1일 기사, “大邱大邱大邱, 沿革 名勝古跡”.

Archaeological Perceptions and Spatial Hybridity of Dalseong Earthen Fortress in Daegu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Kim, Hai-Gyoung (Assistant Professor, Konkuk University)

Kim, Sun (Senior Researcher, Research Institute of Buddhist Cultural Heritage)

The Dalseong Earthen Fortress in Daegu accumulated diverse spatial transformations from the Korean Empire period through the Japanese colonial era, thereby embodying the characteristics of a palimpsest. This study aims to interpret the hybrid spatiality of Dalseong Fortress by examining the overlapping perspectives found in its uses and physical transformations across different periods.

In 1906, a park construction plan and the building of the Hwangdaesingung Worship Hall were initiated. The park development was formalized in 1907, and although Tadashi Sekino conducted an archaeological survey in 1909, Dalseong Fortress received little attention at the time. Its historical value was first recognized in December 1913, when artifacts were unearthed during the reconstruction of the Worship H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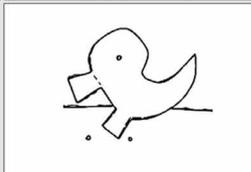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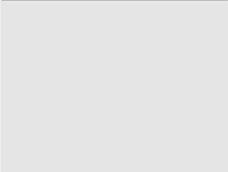
During the 1910s, the Dalseong area reflected the growing presence of Japanese residents in Daegu, as Daegu Shrine and the public park coexisted—resulting in a space where the public and the sacred overlapped. In terms of spatial composition, the entrance was marked by vertical torii gates and stone lanterns that emphasized the visual prominence of Daegu Shrine. Beyond the entrance, a flat circular plaza served as a sports ground for Koreans, while walking trails and

resting facilities were introduced along the fortress's slopes. At the innermost section, Daegu Shrine became not only a site of religious rituals but also of everyday activities such as weddings and rain-praying ceremonies. In 1939, the shrine's garden expansion was designed by Honda Seiroku, a renowned Japanese landscape architect.

Daegu Shrine was elevated to a Kokuhei Shōsha (nationally supported shrine) in 1937, and Dalseong Fortress was designated as Historic Site and Treasure No. 94 in 1939. During the construction of the Kokutai Meishinkan (National Polity Hall) in 1940, the fortress was damaged, leading to discussions on restoration and preservation. In 1941, two information boards were erected to indicate preservation principles and restrictions on alteration.

Thus, Dalseong in Daegu represents a multilayered space where modern park, cultural heritage, Shinto shrine, and public functions converged, revealing the complex spatial experiences of the colonial period. This study highlights the interpretive significance of such palimpsestic spatiality.

Key words : Daegu Dalseong Park, Hybrid Spatiality, Palimpsest, Daegu Shinto Shrine, Colonial Urban Space



학술지 발간 및 편집위원회 운영 규칙

원고 집필 요령

원고 투고 요령

『中央考古研究』 연구윤리

학술지 발간 및 편집위원회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중앙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中央考古研究』(이하 “학술지”라 한다)의 발간 및 편집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학술지 발간)

1.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명칭은 『中央考古研究』(Journal of Central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라 한다.
2. 학술지는 매년 3차례(2월 28일, 6월 30일, 10월 31일) 발간한다.

제3조(편집위원회 구성과 임기)

1. 편집위원은 연구원 내·외의 고고학 연구자 가운데 연구 업적이 우수하고 덕망있는 연구자를 연구원 이사장이 위촉하며, 5~10명 이내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가운데 이사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편집 실무를 담당하는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제4조(편집위원회의 소집과 운영)

1.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발간을 위해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5조(편집위원회의 역할)

1.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발행 목적에 부합하는 편집 방향 설정
2. 투고된 논문의 심사회부 여부 및 심사위원 위촉
3. 심사를 완료한 논문의 게재 여부 결정
4. 학술지에 게재할 연구 동향과 자료 소개, 서평, 번역문 등의 기획과 심사

5. 기타 간행물 발간에 필요한 사항

제6조(논문 심사위원의 선정과 의무)

1.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를 위해 편집위원회는 논문 한 편당 3인 이상의 관련 연구자를 논문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2. 편집위원도 논문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단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 그 위원은 당해 학술지 논문 심사 과정에 일절 관여할 수 없다.
3. 논문 심사위원은 심사위원 서약서, 투고 논문 심사 평가서, 논문 수정 제의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논문심사과정)

1.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원고 집필 요령에 적합한지와 형식 등을 살피는 1차 심사를 한다.
2. 1차 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대해 편집간사는 논문 심사위원에게 저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자료를 논문에서 삭제한 후 발송한다.
3. 논문 심사위원은 요약문의 적절성, 인용자료의 적절성, 형식요건 및 논문체제, 학술적 수준, 독창성 및 논리성 등을 종합하여 게재 여부를 평가하는 2차 심사를 한다.
4. 논문 심사위원은 논문의 학술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사 논문에 대해 ‘게재 가’(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논문의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6. 심사위원의 수정요구를 받은 논문의 필자는 자신의 논문을 수정하고 필자 회신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7. 편집위원회의 최종적인 판정결과에 따른 처리규정은 다음과 같다.
 - ①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다음호에 한하여 재투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지며, 기간 내 투고되지 않을 경우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 ②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이 재투고 되어 다시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경우, 자동적으로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 ③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투고할 수 없다.

제8조(게재 논문의 조건)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기 위해서는 고고학 등 문화유산에 관한 논문과 번역 등을 대상으로 하며, 연구원에서 정한 원고 집필 요령에 따른 형식이어야 한다.

제9조(논문 심사위원과 심사평점의 보안 의무)

1. 논문 심사에 참여한 사람은 심사위원과 심사내용에 대하여 철저히 비밀을 유지한다.
2. 만일 논문 심사자와 심사평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없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0조(원고료 및 심사료 지급)

1. 학술지 게재 원고에 대해 연구원에서 정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2. 논문 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저작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연구원에 귀속되며, 연구원의 허가없이 저작을 전용할 수 없다.

제12조(연구윤리)

1. 학술지에 투고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논문 게재 요청서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논문 투고자와 논문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은 『中央考古研究』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2. 학술지 발간 및 편집위원의 운영규칙 및 『中央考古研究』 연구윤리를 위배하였을 경우 편집위원회가 결정한 때부터 3년간 투고할 수 없다.

제13조(기타)

1. 학술지에 투고하는 논문 등의 형식은 『中央考古研究』 원고 집필 요령을 따른다.
2. 원고는 중앙문화유산연구원 홈페이지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http://jungang.medsoft.kr>)을 이용하여 투고한다.
3. 원고의 채택 여부는 편집위원회가 위촉하는 심사위원의 심사과정을 거친 후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채택되지 않은 원고는 반환한다.

부 칙

1. 본 편집위원회 규정은 2009년 12월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편집위원회 규정은 2010년 3월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 편집위원회 규정은 2012년 6월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 편집위원회 규정은 2015년 1월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 편집위원회 규정은 2016년 10월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 편집위원회 규정은 2019년 4월부터 시행한다.
7. 본 개정 편집위원회 규정은 2024년 4월부터 시행한다.
8. 본 개정 편집위원회 규정은 2025년 2월부터 시행한다.
9. 본 개정 편집위원회 규정은 2025년 6월부터 시행한다.

원고 집필 요령

1. (문자) 원고는 한글을 원칙으로 작성하며, 한자는 고유명사나 혼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 사용한다.
2. (분량) 논문은 본문과 도면과 사진, 표 등을 포함하여 학술지 인쇄 쪽수로 30쪽 내외로 하며, 도면과 사진은 논지 전개상 필요한 최소한의 양으로 한다(도면과 사진은 편집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음).
3. (구성) 논문은 제목, 저자명, 목차, 국문요약, 국문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영문제목, 영문저자, 영문요약, 영문주제어의 순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4. (요약문) 국문요약은 제목, 저자명, 목차, 주제어와 함께 학술지 인쇄 쪽수 1쪽을 넘지 않을 만한 분량으로 한다. 영문요약은 제목, 저자명, 요약문, 주제어의 순으로 작성하되, 학술지 인쇄 쪽수 1쪽을 넘지 않을 분량으로 한다.
5. (항목) 본문의 항목은 로마 숫자와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章, 項, 目, 細目을 각각 I., 1., 1), (1)의 순으로 기재한다. 서론(머리말)과 결론(맺음말)도 章에 포함시킨다. 목차에는 章과 項까지 기재한다.
6. (주요 표기) 주요 표기는 논문명을 ‘『』’으로, 책명과 정기간행물명을 ‘『』’으로 통일한다.
7. (인용문헌) 본문 중의 인용문헌은 각주로 처리하지 않고, 본문 중에 저자와 발표연도를 기재하며 가급적 인용한 쪽수를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유적명이 반복적으로 열거되는 경우 처음만 인용문헌을 표기한다.

1) 인용문헌 표기 예

- ① 단독 연구 논문 : (홍길동 2005), (홍길동 2005b), (홍길동 2008: 25), (홍길동 2008: 14~36), (홍길동 2022, 2023), (이몽룡 2023; 성춘향 2023) 등
- ② 2인 연구 논문 : (이몽룡·성춘향 2008), (이몽룡·성춘향 2008b), (이몽룡·성춘향

2008: 3), (이몽룡·성춘향 2008: 5~7) 등

- ③ 3인 이상 연구 논문 : (홍길동 외 2008), (홍길동 외 2008b), (홍길동 외 2008: 128), (홍길동 외 2008: 146~151) 등

2) 인용문헌 구성방식의 예

- ① 홍길동(1998: 21)에 의하면……, 홍길동(1998: 21)은 ……, 홍길동(1998: 21~27)은 …….
- ② ……로 보는 견해(홍길동 1998: 21)가 있다., ……로 보기도 한다(홍길동1998: 215).
- ③ “홍길동에 의하면 ……라고 한다(홍길동 1998: 21).”는 식으로 필자가 중복 인용되는 표현은 피한다.

8. (각주) 각주는 본문 중의 인용문헌 표기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 내용을 간략하게 달 수 있는데, 각주는 해당 문장 또는 용어의 끝에 반괄호의 일련번호를 매기고, 각주 중의 인용에 관한 사항은 인용문헌 표기법과 동일한 원칙으로 작성한다.

9. (참고문헌) 참고문헌은 본문 중에 인용한 문헌만 기재하되, 한국어·중국어·일본어·서양어의 문헌의 순으로 표기하고, 논문과 저서 구별 없이 한국어 문헌은 저자의 한글 자모순, 중국어와 일본어 문헌은 저자 한자음의 한글 자모순, 서양어 문헌은 저자의 알파벳 순으로 작성한다. 한 저자의 문헌이 여러 개 있을 경우 출판연도 순으로 작성하며, 한 저자의 같은 연도 문헌은 책수나 간행일이 빠른 것부터 출판연도 뒤에 ‘a, b, c, …’를 덧붙여 구별한다. 공동연구는 같은 저자명의 단독 연구 다음에 배열한다. 참고문헌의 표기 예는 아래와 같다.

1) 단행본의 경우 : 저자명, 출판연도, 『책명』판수, 출판기관명의 순으로 표기한다.

(1) 한국어·중국어·일본어 단행본

① 단행본

金元龍, 1986, 『韓國考古學概說』제3판, 一志社.

② 발굴조사보고서

國立中央博物館, 2002, 『法泉里Ⅱ』, 古蹟調查報告 第三十三冊.

③ 번역서

트리거, 브루스(성춘택 역), 1997, 『고고학사: 사상과 이론』, 학연문화사.

(2) 서양어 단행본 : 서명은 이탤릭체로 작성

Renfrew, C, and P. Bahn, 2004, *Archaeology : Theories, Methods, and Practice*, 4th ed., Thames & Hudson.

2) 논문의 경우 : 저자명, 출판연도, 「논문명」, 『정기간행물명』권 또는 호수, 출판기관명의 순으로 표기한다.

(1) 한국어 · 중국어 · 일본어 논문

① 학술지 수록 논문

金元龍, 1952, 「慶州九政里 出土 金屬併用期遺物에 對하여」, 『歷史學報』1, 歷史學會.

② 학위논문

홍길동, 2005, 「韓國 OOOO의 考古學的 研究」, OO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 서양어 논문 : 정기간행물명은 이탤릭체로 작성

Binford, L. R., 1968, Post-Pleistocene adaptations, *In New Perspectives in Archaeology*, S. R. Binford and L. R. Binford, eds., Aldine.

10. (표, 도면, 사진 등) 표, 도면, 사진은 ‘[]’를 사용하여 ‘[표(도면, 사진) 1, 2···]’로 표시하고 그 뒤에 제목을 표기하며, 출진은 제목 뒤에 본문 중의 인용문헌 표기와 같은 요령으로 작성한다. 표, 도면, 사진은 문헌화하였을 경우 설명문을 포함하여 가로 13.5cm, 세로 20.5cm를 넘지 않게 편집하여야 한다.

1) 표는 본문 중에 편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표 제목은 표 상단 왼쪽에 표기한다.

2) 도면은 가급적 흑색으로 제도하며, 사진은 선명한 것이어야 한다. 도면과 사진은 본문이나 참고문헌 뒤에 편집할 수 있으며, 제목은 도면이나 사진하단 중앙부에 표기한다.

11. (세부편집요령) 논문의 세부편집요령은 한글의 경우 아래와 같다.

1) 편집용지 : 용지종류 B5(4×6배판), 용지여백은 위쪽 15mm, 머리말 10mm, 왼쪽 · 오른쪽 30mm, 아래쪽 13mm, 꼬리말 17.5mm로 한다.

2) 문단모양 : 정렬방식은 章만 양쪽 정렬하고 들여쓰기 하지 않으며, 項, 目, 細目은 양쪽 정렬과 함께 첫줄을 들여쓰기하며, 줄간격은 본문 180%, 각주 130%로 한다.

3) 글자모양

- (1) 題目 : 기준크기 15pt, 글꼴 신명조, 장평 100%, 자간 0%, 속성 진하게
- (2) 著者 : 기준크기 11pt, 글꼴 신명조, 장평 100%, 자간 0%, 속성 보통
- (3) 국문요약 : 기준크기 9pt, 글꼴 신명조, 장평100%, 자간 0%, 속성 보통, 줄간격 180%
- (4) 章 : 기준크기 14pt, 글꼴 신명조, 장평 100%, 자간 0%, 속성 진하게
- (5) 項 : 기준크기 12pt, 글꼴 신명조, 장평 100%, 자간 0%, 속성 진하게
- (6) 目·細目 : 기준크기 10.5pt, 글꼴 신명조, 장평 100%, 자간 0%, 속성 진하게
- (7) 본문 : 기준크기 10pt, 글꼴 신명조, 장평100%, 자간 -6%, 속성 보통
- (8) 표·도면·사진 제목 : 기준크기 7.5pt, 글꼴 중고딕, 장평100%, 자간 -20%, 속성 보통
- (9) 표 내용 : 기준크기 9.5pt, 글꼴 중고딕, 장평 100%, 자간 0%, 속성 보통
- (10) 각주 : 기준크기 9pt, 글꼴 신명조, 장평 95%, 자간 -9%, 속성 보통
- (11) 참고문헌(제목) : 기준크기 10pt, 글꼴 신명조, 장평 100%, 자간 0%, 속성 진하게

원고 투고 요령

1. 투고자격 : 국내 · 외 고고학 연구자
2. 투고분야 : 투고된 원고는 고고학에 관한 논문, 조사보고문, 자료소개문, 서평 등으로서 고고학의 발전에 기여할만한 독창적인 내용을 갖추어야 한다.
3. 접수 및 마감 : 논문은 상시 접수하며 각 호별 논문접수 마감은 당해 학술지 발행일의 두달전(12월 31일, 4월 30일, 8월 31일)을 원칙으로 한다.
4. 신청방법 : 중앙문화유산연구원 홈페이지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http://jungangmedsoft.kr>)에 회원가입 후 메뉴얼에 따라 논문투고
5. 논문의 제출 형태
 - ① 논문은 게재신청서 1부(홈페이지 다운로드)와 함께 원고를 제출하되 공정한 심사를 위해 필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논문은 아래의 집필 요령에 따라 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국문과 영문으로 된 요약문과 주제어(Key Word)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투고자는 게재 확정 통보를 받은 후 1주일 내에 논문 한글파일과 도면 원본(해상도 300dpi 이상)을 이메일로 제출한다.

『中央考古研究』 연구윤리

1.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

- 1) 연구원의 학술지에 투고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을 마치 자신의 연구 결과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연구 성과나 주장, 아이디어를 참조할 경우 『中央考古研究』 원고 집필 요령의 인용문헌, 각주, 참고문헌을 통해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한다.
- 2) 연구원의 학술지에 투고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제시해서는 안 된다. 특수한 사정에 의해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게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원 편집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3)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한 경우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비공개적인 과정을 통해 얻은 자료의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인용할 수 있다.
- 4) 이미 발표된 타인의 연구 성과를 전부 또는 일부 정확한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변화시켜 사용할 경우 연구 표절이라 하며, 사용 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 5) 일반적으로 타인의 논문 및 저서를 연속적으로 두 문장 이상을 인용표시 없이 동일하게 발췌 또는 사용하는 경우 연구 표절로 인정한다.
- 6) 연구자 본인의 연구 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하는 경우 이중게재에 해당하며, 이중게재는 일반적으로 논문의 경우만 해당하고 학위논문은 예외로 한다.
- 7) 연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저자의 소속, 직위(저자정보)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2.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

- 1)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2)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학술지에 투고한 연구자와의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위원의 관점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 3) 심사위원은 논문을 심사한 사실과 논문의 내용 등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하며, 학술지가 간행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3.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

- 1) 편집위원은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해서 사적인 친분관계나 어떤 선입견 없이 오로지 원고집필요령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2) 편집위원은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분야의 관련연구자에게 논문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3) 편집위원은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심사위원 이외의 사람에게 투고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